



4

1994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4. 4호

(루게 558)



◆◆◆◆◆◆◆◆◆◆ 차 례 ◆◆◆◆◆◆◆◆◆◆

인민의 행복	4
영원한 재부	5
남석리 장수바위	15
출 발 선	17
특색있는 인간관계를 설정하는것은 수령형상작품창작의 중요한 요구	25
경사로워라 4 월의 봄명절 외 1 편	29
명 언	30
수령님 바다길로 오실줄이야	30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헌시	31
김정일원수	31
비는 어떻게 맺었는가	32
위대한 메아리	35
장 군	36
투철한 숭배관을 심어주는 심장의 송가	38
투사의 마음	42
내 삶의 꽃 외 2 편	43
고향집 설경	44
전쟁과 사랑에 대한 답시	45
한걸음 한걸음 손잡아 이끄시여	46
아, 내 심장아! 외 1 편	49
명제해설	50
《소조원동무, 나 좀 봅시다!》	51
생일선물	52

사랑이야기	54
혁명의 붓으로 우리당을 지키리	60
해빛넘치는 초소	61
기다리는 고향	63
너의 그늘아래 땀들이며 섰노라니 외 1 편	70
인민을 위해 생을 바친 참된 정치일군	71
군대명절	76
등대불	77
금야벌의 기수	78

인민의 행복

량덕모

새날이 바뀌어
새롭게 흘러드는 기쁨은 많아도
나는 참말로 기쁘노라
우리 수령님 정정하신 그 모습을
날마다 뵈옵는것이

오늘도 텔레비죤화면에
환히 웃으시며 나오시는 그이
두렁길로 구내길로 자주 걸으시던
그 낮익은 걸음걸이
그 귀에 익은 음성...

더 밝아지신 그이 미소가 어려
우리의 하늘은
저리도 맑고 푸르려라
더 왕성해지신 그이 정력이 넘쳐
우리의 이 땅은
봄을 맞은 산천처럼 약동하여라

오늘도 원썩들은 미친듯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날뛰여도
우리앞에 서계시는 수령님
그 엄엄하신 기상에서 힘을 얻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노라

아, 인간이 기원하는 그 모든것이
수령님의 존함에서 시작되어
꽃피고 열매맺는 내 나라

말이 다르고 살색이 달라도
그리워 앞을 다투어 달려오는
아버이 품
수령님 건강하시니
나라가 강하고
민족이 흥하여라

그런 행복이 없어
저마끔 고아처럼 흠어지는 일부 나라들
명예를 얻은 영웅도 박사도
갈길없는 날새처럼
목놓아 울며 헤매이거니

나는 행복하여라
마디마디 력사의 진리를 새겨주시는
그이 가르치심따라
후회없이 참답게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하늘땅을 휘여잡으시는
그이 손길따라
아름다운 래일로 기운차게 달려감이

한평생 하늘로 믿으시는
인민의 마음속에
승리와 희망의 빛을 뿌리시는 은혜로운 태양
우리 수령님 정정하시고
우리 지도자동지 그 위업 그대로 이어가시니
바람분들 근심이라
눈비온들 걱정이라

오, 아침저녁
건강하신 그이 영상을 우러르며
자애깊은 그이 음성을 들으며
굳건한 사회주의 내 나라 지붕밑에서
마음놓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
이것이 인민이 누리는 만복중에
가장 큰 행복이여라!

하기에 4월의 이 봄날
하늘땅 가득 터져오르는 인민의 목소리
-아버이수령님이시여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영원한 재부

리광호

망망한 동해의 푸른 물결을 헤가르며 달리는 《만경봉》호가 점점 조국을 가까이 하자 배전에 선 재일동포상공인 조국방문단 단장 최종만의 마음은 한없이 설레었다.

어느덧 칠순에 들어서는 그의 흰머리가 귀전에서 날렸고 불그스레하니 상혈된 얼굴에는 고생의 자욱인듯 잔주름이 거미줄처럼 얹혀있었다. 나이들면서 몸이 부해져 갱깁하던 그의 몸이 어지간히 틀져 보였다.

지난날 판부련락선에 몸을 싣고 갈매기 구슬피우는 현해탄을 건널 때에는 찬바람 막아줄 한벌의 토스레웃도 터갈런 발을 감싸줄 한켠레의 고무신도 신겨주지 못했던 조국이 오늘은 부강한 품을 활짝 벌려 어서 오라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다.

십여년전에 먼저 귀국시킨 아들은 잘 있는지. 귀국시킬 때의 일을 생각하면 죄책감을 금할수 없다. 불구가 되어 다리를 절룩거리는데다가 자본주의의 사회악에 휘말려 더는 건질수가 없게 된 아들이었다. 그러던 아들이 다리를 고치고 대학까지 졸업하였다는 편지가 왔으나 그것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최종만이였다. 그런 병신자식을 삼촌따라 조국에 보내놓고 십여년만에야 오는 최종만으로서는 실로 체면이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상공인이라는 이름으로 하여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조국에서는 이미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지 오래인 지금 착취사회의 직업인 상공인이라는것이 어쩐지 뻗뻗하지 못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호구지책으로 시작했던 장사였지만 한생을 돈을 모으기 위해 뛰여다녔다고 생각하니 인간의 생존방식이 판판 다른 조국앞에 자신의 처신과 체면이 여간만 웅색스럽지 않았다.

이런 감정으로 하여 십대의 꽃나이에 정든 산천을 떠난후 칠십고개를 바라보는 날까지 자나깨나 못견디게 그리면서도 찾아올 용단을 못내렸던 조국이었다.

배가 부두에 정박하자 환영나온 조국인민들의 꽃물결이 금시 갑판으로 파도쳐올것만 같았다.

최종만의 가슴은 뭉클해지며 불덩이같은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올랐다. 격정에 넘친 환호의 물결이 파도쳐 설레이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는 두손을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를 불렀다. 최종만은 인파속에 묻히여 환영의 꽃보라를 받으며 마중나온 조국의 일군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가 사람들의 꽃물결속을 벗어났을 때였다.

《아버지!》 하고 부르며 엎어질듯 달려오는 건장한 청년이 있었다.

최종만은 한순간 누구를 부르는가 하여 의혹과 놀라움에 굳어진채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버지, 저예요. 기석이에요!》

상대방은 막 격해 웨쳤다.

(아니 과연 이 청년이 내 아들이란 말인가?!)

투실투실한 얼굴, 외탁을 한 부리부리한 눈, 버그라진 어깨, 여러모로 억세보이는 청년이다.

아들 기석이라면 앙상하게 메마른 다리를 절룩거리며 달려왔어야 할텐데 최종만의 앞에 나타난 아들은 무쇠같은 다리로 땅을 짹 번디디고 억세게 서있는것이다. 자기가 낳아 키웠다가엔 너무나도 골골한 청년이다.

《아니 네가 기석이란 말이냐! 정녕 내 아들이 웬단 말이냐?》

최종만은 한순간 아들을 포옹해줄 생각도 있고 그냥 기석이의 다리를 살펴보았다. 자기의 가슴을 솟덩이처럼 태워주던 그 다리로 땅을 구르며 달려온 아들이 꿈만같았다.

기석이가 귀국한 이듬해 다리를 고쳤다는 사연의 편지를 받고도 이애가 아버지를 안심시키느라 그러는것이 아닐가, 설혹 고쳤다쳐도 무얼 온전히 고쳤으랴 하고 생각하며 믿지 않았던 최종만이였다. 한것은 일본의 한다하는 명의들도 도리머리를 짓고 특효라고 소문이 자자한 별의별 약재도 이렇다할 효험을 못본 아들의 다리였기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 아들 기석이가 보란듯이 나타난 것이다.

《기석아, 네가 정말 다리를 고쳤단말이냐!》

최종만은 기석이를 부둥켜안고 그의 등을 마구 쓸어만졌다.

《아버지, 나때문에 술한 속을 썩였댔지요.》

기석이는 아이때처럼 웅석섞인 목소리로 울먹울먹 말하였다.

이윽하여 사람들의 물결속을 헤쳐나온 최종만은 어느새 아들 기석이와 승용차에 올랐는지 의식하지 못했다.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아들의 준수한 모습을 바라본 최종만은 대견함을 금치 못해하며 나직이 물었다.

《그래 다리가 깨끗이 완치됐냐?》

최종만은 아들의 림름한 모습이 꿈만같아 옆에 앉은 그의 다리를 만져보았다. 손아귀가 모자라게

잡히는 박달나무같이 탄탄한 다리였다. 억세게 자란 아들이 과연 일본에서 말썽맞고 다리를 절어 평생 온전한 사람구실을 해볼것 같지 못하던 그란말인가.

《조국의 품에 안긴것만도 고마운데 이렇게 네가 다리를 고치고 이제는 대학까지 나와 어엿한 의사로 자랐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최종만은 거듭 탄복할뿐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수령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니었던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억센 다리에 새사람으로 자라날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허두를 뎌 기석은 조국에 와서 다리를 고치던 때의 잊지 못할 이야기부터 펼쳐나갔다.

그것은 기석이가 귀국한 해 가을에 있는 일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황금물결 설레이는 풍요한 들판을 지나 산굽이를 굽이굽이 에돌아 달리고있었다. 산기슭에서부터 물들기 시작한 단풍은 빨간 불길이 번져지듯 점점 산우로 퍼져가고있었다. 산의 한중간을 가로질러간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라고 쓴 구호가 두드러지게 안겨왔다.

《천천히 갑시다.》

수령님께서서는 부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손수 차창을 여시였다. 부관은 앞면 거울에 비낀 수령님의 모습을 지켜보고있었다. 벌써 그이께서 달리는 차앞 저 멀리 점으로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이르신 말씀이었다. 차가 점점 거리를 좁히자 그들의 모습이 선명히 안겨왔다. 자세히 보니 한 중년남자가 붉은 넥타이를 맨 중학생을 업고 급한 걸음을 놓고있었다. 그뒤로 한녀성이 엮힌 학생을 부축하며 걷고있었다.

(구급환자라도 생긴것인가?)

수령님께서서는 심상치 않은 예감으로 차를 세우게 하시였다.

차는 그들앞을 얼마쯤 미끄러져나가 멎어섰다.

지나칠줄 알았던 차가 자기들앞에서 멎어서자들은 무슨 영문인가 하여 눈이 둥그래졌다.

《부관동무,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오.》

부관은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로 갔다.

얼마후 부관이 돌아왔다.

《수령님, 저 동무들은 시내에 있는 명석중학교교원들과 학생입니다. 이곳 설봉산에 등산왔었는데 학생이 그만 벼랑에서 굴러 다리를 다쳤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으로 가는 길이랍니다.》

《심하게 다쳤소?》

수령님께서서는 신중하신 어조로 물으시였다.

《환자는 지금 의식을 잃고있습니다.》

《병원이 멀다오?》

《시내로 가야 한답니다.》

《아직도 퍼그나 가야겠구만. 그런데 걸어간단 말이요?》

《가느라면 차를 만날수 있을거라고 합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르시였다.

《부관동무, 동무가 이 차를 가지고 저 학생을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오시오.》

《수령님, 줄곧 가야 기계공장에 제시간에 닿을수 있습니다.》

부관은 현지도의 길에 오르신 수령님의 사업을 빈틈없이 보좌해야 할 자기의 직책을 생각하였다.

《알고있소, 그러나 그렇게 하는게 좋겠소.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소.》

수령님께서서는 차에서 내리시였다. 그러시고는 선생들쪽에 대고 가까이 오라고 가볍게 손짓을 하시였다.

그제야 부상당한 아이를 업고있던 남선생과 부축하고있던 녀선생이 위대한 수령님을 알아보고 어쩔바를 몰라했다. 녀선생이 몸자세를 바로잡으며 인사를 올렸다. 남선생도 업고있던 학생을 막 내려놓고 인사를 올리려 하자 수령님께서서는 몇걸음 다가서며 급히 이르시였다.

《학생을 이 차에 태우시오.》

《!》

선생들은 수령님의 말씀에 목이 꼭 메였다. 미처 그이께 인사도 드리지 못했는데 수령님께서 모든것을 아시고 한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는것이다.

곧 부관이 달려가 선생이 업고있는 학생을 안고 걸어왔다.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차문을 열어주시였다.

학생을 태우고 부관과 남선생이 차에 올랐다.

《무슨 사연이 있는것 같은데… 녀선생은 나와 이야기나 나눌시다.》

수령님께서서는 다친 학생의 얼굴에서 줄곧 눈길을 떼지 못하시더니 그의 상태를 더 알아보시려는듯 녀선생을 남아있게 하시였다.

승용차는 곧 미끄러져나갔다.

그제야 녀선생은 이마에 흥건히 내뻘 땀을 찍어내고 옷매무시를 바로했다.

수령님께서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얼굴이 일년감처럼 붉어진 녀선생을 보며 나직이 물으시였다.

《그래 학생이 어떻게 하다가 산에서 떨어졌습니까?》

수령님의 안색은 다소 어두우시였다.

《수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만 미처 학생들을 살려보지 못하다나니…》

녀선생은 자책감으로 고개를 숙이였다.

《어떻게 다 큰 학생들을 일일이 살필수가 있겠습니까.》

니까. 개중에는 장난이 심하거나 산발타기에 서툰 학생들도 있을테지요.》

수령님께서서는 너선생의 자책어린 마음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었다.

너선생은 속죄되는 마음으로 수령님께 모든걸 죄다 말씀드렸다.

《중학교 3학년생인 최기석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몸이 성하지 못합니다.

올봄에 양딸 하나를 키우고있는 삼촌네와 같이 조국에 귀국한 그는 일본에서 어렸을 때 생긴 소아마비로 한쪽다리를 몹시 절고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그를 제 나이에 맞게 자기 학년에 입학시켰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붙여 미진된 학습을 방조하게 하고 소년단 사업과 생활도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심하게 저는 다리로하여 체육을 비롯한 운동회나 등산 같은 때에는 빠지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등산에도 그를 남겨두자고 하였는데 끝내 따라왔습니다.

학생들의 부축을 받으며 그는 겨우 산에 올라가 식물채집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가파로운 경사지에서 산열매를 따려 하다가 그만 굴러떨어졌습니다.》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듣고계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가 무거우신 어조로 물으시었다.

《그러니 불구의 몸으로 귀국했던 말이지요?》

《예.》

《그의 부모는 안계십니까?》

《일본에 있습니다. 재일동포상공인이라는데 아들에게 조국을 알게 하기 위해 먼저 귀국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단 말이지요.》

수령님께서서는 다시 의혹이 실린 표정을 지으시었다. 아무리 조국을 알게 한다쳐도 어떻게 몸이 성하지 못한 아이를 홀로 조국에 보낸단 말인가. 흔히 우리 부모들은 병신자식일수록 더 사랑하고 몸가짜이 끼고있으면서 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는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몸이 불편한 그를 가깝기는 하지만 삼촌한테 꺼묻혀 귀국시켰다는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인차 의혹을 지워버리시고 너선생에게 학교생활이며 학생들의 학습정형 등 여러가지를 물으시었다. 등산로정이며 거리, 시간 등을 물어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산천경계를 둘러보시며 저으기 만족하신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설봉산을 바라보니 수림도 울창하고 바위들도 듽성듬성한게 등산에 적합할것 같습니다. 옆에는 강까지 있어 등산하고 내려와서 강변에서 휴식하며

몸을 씻으면 상쾌하겠습니다.》

너선생이 그렇다고 대답올리자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건장한 체력과 완강한 의지로 단련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었다.

《나도 어렸을 때 등산을 많이 하였습니다. 만경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곳에 산세가 험한 룡악산이 있습니다. 칠골 창덕학교에 다닐 때 동무들과 같이 자주 룡악산에 올라 등산도 하고 덕수도 맞았습니다. 심신을 단련하는데는 등산이상이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그렇게 단련되어서인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어려운 시련들을 능히 극복할수 있었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너선생은 수령님의 뜻깊은 말씀을 들으며 범상히 생각했던 등산의 의의를 가슴깊이 새기었다.

얼마후 승용차가 돌아왔다. 부관이 송구스러운 몸가짐으로 내렸다.

《그래 입원은 시켰소?》

《예, 진찰한데 의하면 큰 부상은 아니여서 인차 치료할수 있다고 합니다.》

《의식은?》

《의식도 회복되었습니다.》

《수고했소. 의식을 차렸다니 마음이 놓이오.》

수령님께서서는 비로소 한시름 놓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시었다. 너선생의 얼굴에도 생기가 피어올랐다.

그이께서는 너선생에게 앞으로 입원한 학생을 잘 돌봐주라고 간곡히 이르고 승용차에 오르시었다.

차는 다시 기계공장을 향해 달렸다. 차안에서 수령님께서서는 부관에게 의미심장한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환자에게서 다른것을 느끼지 못했소?》

《예, 다른것은...》

부관은 환자에 대해 아는것이 없는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그 학생이 소아마비로 다리를 몹시 저는 심한 불구라요. 결국 걸음걸이가 서툴어서 벼랑에서 굴러떨어졌소.》

《?!》

부관은 그를 안아다 차에 태울 때는 그런 감촉을 느끼지 못했고 차에서 내리올 때는 의사들과 간호원들이 달려나와 담가로 들고갔으니 미처 그런것을 감촉할 사이가 없었었다.

《나도 너선생의 말을 듣고야 알았소.

아버지가 일본에서 상공인으로 있다는데 아들에게 조국을 알게 하기 위해 삼촌을 따라 귀국시켰다는거요. 상공인을 하면서도 아들의 다리만은 고칠수 없었던가보요. 조국에 큰 기대를 안고 보낸 재일공민의 아들인데 우리가 잘 돌봐주어야겠소. 그에게도 꿈이 있을게요. 그런데 다리가 처태가지고야 어떻게 포부를 실현할수 있겠소. 동무가 또 좀 수고를 해줘야겠소. 이제 기계공장에 도착하면 도병원

의 정형외과에 찾아가보요. 거기에 정형외과부문에
서 권위가 있는 신선생이 있을게요. 그 선생에게 오
늘 다친 학생의 다리를 고칠수 있겠는가 알아보라
고 하시오.》

부관은 목이 메어 인차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인민의 사소한 불편을 보시고도 마음놓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가득 차올랐기때문이다.

차는 어느덧 기계공장에 이르렀다. 공장지도일군
들이 정문에 나와 수령님을 마중했다. 그이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였다. 공장일군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신 수령님께서서는 천천히 공장구내로 걸음을 옮
기시였다.

그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뜨거움에 넘쳐있던 부관
은 드디어 차에 올라 도병원으로 향했다...

감격에 젖어 이야기를 펼쳐나가던 기석이는 흥분
과 걱정과 목이 메어 잠시 이야기를 중단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들에 대한 치료를 직접 조
직해주셨단 말인가!)

견잡을수 없는 흥분에 사로잡힌 최종만의 얼굴에
는 위대한 수령님의 하해같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정도로 가득차있었다.

《아버지, 그후 저는 도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신선생이 직접 저를 담당치료했습니다.
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너의 이번 상처뿐아니라 소아마
비로 기형화된 다리를 원상회복시키라고 우리에게
과업을 주셨다. 앞날이 구만리같은 소년인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너를 원상회복시키라고
하셨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인간이 그 어떤 값진
재부에 비할바없이 귀중하기때문이다. 너는 정말
행복한 소년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의 다
리를 고쳐 대지를 활보하게 하련다.》

그후 신선생이 책임진 관록있는 의료집단에 의해
여러차례나 저의 다리에 대한 수술이 진행되었습
니다. 그것은 조국인민들이 자기의 피와 살과 뼈를
서슴없이 바쳐주는 감동적인 치료의 나날이기도 하
였습니다. 저는 드디어 몇달후 다리가 완치되어 퇴
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보는것처럼 조
국의 대지를 달릴수 있는 무쇠다리로 되었습니다.》

최종만의 가슴에 불뭉치같은것이 뜨겁게 솟구쳐
올랐다.

《참 꿈같은 일이다. 그렇게 오랜 기간 치료를 받
으면서도 한푼의 치료비도 안냈단 말이지. 오히려
술한 사람들의 뼈와 살과 피를 넘겨받았다니 놀람
을 금할수 없구나. 뼈와 살을 이어붙이는 그 고기능
수술의 치료비가 약차할텐데.》

최종만은 아들의 수술과정을 상상해볼수록 한 인
간을 재생시켜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온몸을 불태웠다.

한뼘 병신자식에 대한 걱정과 몇몇치 못했던 마
음이 금시 가시여지며 몸에 날개라도 돋힌듯 훨훨
날고싶은 심정에 사로잡혔다. 최종만은 은근히 아
들에게 애인이 있는가 묻고싶었고 모처럼 온 기회
에 결혼은 몰라도 약혼이라도 했으면 했다. 그러나
만나자마자 그런 말을 꺼내기가 거북스러웠다. 말
타면 견마잡히고싶다고 조국이 아들을 건강한 사람
으로 만들고 대학공부까지 시켜놓으니 이번에는 또
다른 욕심이 머리를 추켜드는것이였다. 은연중 그
것이 돈을 모아 부자가 되니 한푼이라도 더 굶어모
아 갑부가 돼보려는 자본가의 심리와 비슷하게 느
껴지며 얼굴이 붉어져 입을 꼭 다물어버렸다.

때가 되면 어련히 자기 리상을 실현할것이기때문
이기도 하다.

아들과 나누고싶은 하많은 이야기를 뒤로 미루고
차가 평양에 이르자 최종만은 아쉽지만 아들과 잠
시 헤어져야 했다. 그는 재일동포상공인 조국방문
단의 행동일정대로 움직여야 했기때문이다...

최종만의 조국방문 나날은 빨리도 흘러갔다. 보
는것마다 새로왔고 듣는것마다 놀라왔다. 조국의
이름있는 공장과 농촌 참관, 명승지 탐승, 백두산을
비롯한 혁명전적지와 박물관견학 등 조국에서의
나날은 새로운 웅근 한세기의 체험처럼 거창하게
느껴졌다.

이럴무렵 그는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
들을 접견해주시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요?!)

최종만은 그 말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오매 불
망 그리던 그이를 뵈옵는것이 평생소원이었으면서
도 막상 그 영광의 시각에 접어드니 최종만은 죄의
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조국을 위해 무엇을
했던가. 조국은 지금 나를 어떻게 맞이하고있는가.
최종만일행이 경건한 마음으로 이런 생각에 휩싸인
채 그이께서 계시는곳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현관에서
반겨맞아주시였다.

《원로에 수고로이들 오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품을 떠나 멀리 외지에 가
있던 자식들을 못잊어하는 사려깊은 친아버이심정
그대로 최종만일행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최종만은 걱정과 한없는 행복감에 취해 웅점실로
안내되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수령님께서서는 얼굴에 자못
숭엄한 기색을 띠우시며 정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시
였다.

《우리가 평양에서 다른 나라 대표단들도 자주 만
나지만 이곳에서 조국을 찾아온 동포들을 만나는것
이 제일 기쁩니다. 사람들사이의 혈육의 정이라는
것은 매우 류별한것 같습니다.》

잠시후 수령님께서서는 흥분해있는 상공인들의 마

음을 풀어주려는듯 소탈하게 웃으시며 담배를 권하시였다.

《담배를 피우십시오.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합시다.》

수령님께서는 친근한 눈길로 상공인들에게 일일이 담배팩을 돌리시였다.

《조국방문이 처음이라지요. 조국을 떠난지들 몇해나 되었습니까?》

최종만이가 일행을 둘러보며 삼십년으로부터 오십년까지 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올렸다.

《그러니 반세기를 해외에서 살았군.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자기가 나서 자란 조국강산을 두고 산설고 물설은 이국에서 한생을 보내니말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세계 어디 널려있지 않은데가 거의 없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한순간에 조선의 장구한 역사를 소급해보며 가슴아픈 추억에 잠겼다가 근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펴나가시였다.

《고구려시기와 같이 국력이 강했을 때에는 사대주의도 없었고 해외로 흘러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봉건관료배들의 부패무능한 통치와 을사오적의 매국배족행위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일제의 식민지 통치가 실시되면서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해외 류량의 길을 떠나게 되었지요. 참으로 통분할 노릇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라가 없으니가 살길을 찾아 일본으로 건너갔을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의 큰뜻을 품으시고 포평나루를 건느실 때 압록강가에서 류량하는 민족의 구슬픈 모습을 보며 찢기는 가슴을 달래이던 그날을 회억하시였다. 이역살이 고초의 흔적이 비껴간 상공인들의 마음속 상처를 헤아려보시는지 그이의 안색에는 침통한 빛이 어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기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살든지 자기의 민족성을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약한 민족이 아닙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나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에게 늘 우리 조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반만년의 역사에는 고구려와 같은 동방천년대국이 있었고 뛰어난 인재도 많았습니다. 일찌기 고구려를 비롯한 세나라의 문화와 야금술, 도자기술이 멀리 외국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본 나라현에서 온분이 있습니까?》

수령님께서는 좌중을 둘러보시였다. 키가 성큼하고 얼굴이 길쭉한 한 상공인이 정중히 일어섰다.

그이께서는 한손을 가볍게 들어 흔드시며 앉으라고 하시였다.

《앉아서 이야기하십시오. 거기에 있으니 아스까지 방을 가보았겠군요?》

《그렇습니다, 수령님.》

《그러니 누구보다 동무는 더 잘 알것입니다. 일본력사의 한시대를 구획짓는 아스까문화가 우리나라의 영향하에 이루어졌다는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고구려의 화가 담징이 일본에 건너가 대결작으로 끝히는 법룡사의 금당벽화를 남긴것도 바로 이 시기이고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자수공예작품인 〈천수국수장〉의 원화를 그린것도 고구려사람을 비롯한 세나라 화가들입니다. 고구려가 강할 때는 외국의 사신들도 평양성밖 멀리서부터 주저주저했다고 합니다.》

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안은 그이의 목소리가 우렁우렁하게 울렸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가 대하의 물줄기인양 세계의 한복판으로 소리치며 흘러내리는듯한 장엄한 화폭을 련상케 하는 말씀이시였다.

《제일동포들은 응당히 이런 민족적공지를 가지고 조국을 잊지 말며 조국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동무들도 알다싶이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지만 조국과 민족은 한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국은 민족이고 겨레이며 댕입니다. 조국이 목숨보다 더 귀중하다는것은 민족의 운명이 조국에 달려있기때문입니다. 조국이 없으면 민족의 존엄도 인간의 가치도 없으며 민족의 고유한 얼도 없어집니다.》

돈과 재부는 한갓 인간의 생활수단일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돈과 재부를 늘이는것은 조국을 번영시키고 민족의 존엄을 빛내기 위해서입니다.》

순간 최종만의 가슴을 뭉클하게 때리는게 있었다. 천만지당한 그 말씀속에 쓰라린 망국노의 과거가 추억되었기때문이다. 돈과 조국, 돈과 민족 이것은 사실 상공인들의 사고와 활동에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분기점이였다.

상공인들은 인생의 근본목적은 어디에 두며 《나》라는 사람을 돈과 조국, 돈과 민족 앞에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 애국애족의 길이나, 아니면 황금의 노예로 전락된 개인 향락의 길이나가 결정되기에 때문이었다.

최종만은 한목숨을 살리기 위해 할수 없이 기업을 시작하였지만 그것이 점점 커지고 생활이 궁색하지 않을 정도로 퍼이게 됨에 따라 지난날 너무도 지지리 못살았던것만큼 한번 보란듯이 살아보자는 생각이 움트게 되었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하든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를 이끌어갔던것이다.

최종만은 총련애국사업을 하는 과정에 사람이 돈만으로는 살아갈수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었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참되게 살아야겠다는 자각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의 이러한 자각은 확고부동한것이 못되었다. 더우기 기업활동이 뜻대로 되지않을

때의 심정은 착잡하였다.

돈이 판을 치는 험악한 일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돈의 유혹이 그를 괴롭힐 때 최종만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것은 아직 자신의 운명을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결합시켜볼 줄 아는 투철한 관점에 세우지 못하고 인간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였던 까닭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지만 조국과 민족은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다는 평범하고 생활적인 말씀속에 생활의 확고부동한 신조로 삼아야 할 주체의 인생관, 진리의 해를 밝혀주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였구나!)

최종만은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머리속에서 잡힐듯잡힐듯하면서도 잡히지 않고 스쳐지나던 진리의 섬광이 무엇이었던가를 똑똑히 알았다.

순간 가슴속에서는 자신의 운명에 어떤 거대한 전변의 시각이 도래한것 같은 숭엄한 감정이 세차게 파도쳤다.

《수령님, 저희들이 조국에 와서 환대를 받고보니 정말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한갓 장사군으로서 평생 돈을 굶어모을줄만 알았지 조국에 별로 기여한것이 없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너그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나는 조국을 위해 여러모로 기여하고있는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동포상공인들의 성의를 감사히 생각합니다.》

최종만은 지난날 자본주의사회의 음달진 뒤꼍목에서 때묻은 돈있이나 세던 자신들에게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상공인이라는 평가를 주시자 감격은 한량 없었다.

《일본에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살수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온 우주를 한품에 안아 헤아릴 넓으신 포용력으로 상공인들의 마음속에 개폐있던 한가닥의 불안까지 말끔히 가셔주시였다.

도량과 리해의 깊이와 폭에 한계가 없으신 그이의 말씀은 계속되였다.

《제일동포 상공인들은 원래가 자본가인것이 아니지요. 살아가기 위하여 아득바득하다나니 상공인이 된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당은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상공인들의 상공업활동을 시비하지 않습니다.》

수령님께서서 상기업의 길을 택한 상공인들의 피치 못할 사정을 너그러이 헤아려주시자 최종만은 앞이 탁 트이고 숨이 나가며 마음이 후련해졌다.

《우리는 나라가 통일되기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

에도 동포상공인들의 상기업활동을 장려할것이며 그것이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되기를 희망합니다.》

그이의 말씀은 최종만의 가슴속에 드림없이 뿌리내린 신념의 기둥으로 새겨졌고 애국애족의 길에 쏟아부을 열정의 샘으로 간직되였다.

《동무들은 어떤 기업들을 하고있습니까.》

그이께서는 정색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상공인들의 얼굴을 은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친근한 어조로 물으시였다.

최종만이가 가구생산과 고철업을 비롯하여 직물, 가정용품, 의류, 신발, 건재, 식료품, 잡화류 등 수십종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있다고 말씀올렸다.

《가구생산과 고철업이라, 그래 기업활동이 잘됩니까?》

최종만은 일본을 휩쓸고있는 경제파동과 일본반동들의 민족차별정책으로 인해 가구생산에서 목재가 결렸다는것과 고철상인들인 경우 판로가 막혔다는것을 솔직히 말씀드렸다.

최종만의 말을 주의깊이 들으시며 머리를 끄덕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의자팔걸이에 대고 가볍게 손가락방아를 찢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최종만은 그이께서 너무 허물없이 대하니 무례하게 말씀드린게 아닌가 하여 가슴이 두근거렸다. 방안은 잠시 숨죽은듯 조용해졌다.

《판로난 원료난을 겪고있단 말이지요...》

누구에게라 없이 하시는 수령님의 심려의 말씀과 의자를 다독이시는 소리만이 숭엄한 정적속에 울렸다. 그이께서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이 주책없는것이 실언을 해도 분수가 있지 국사에 바쁘신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할망정 심려를 끼쳐드리다니...)

최종만은 비로소 수령님의 다정하신 인품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공연한 말씀을 올려 근심걱정을 끼치게 한 자신을 마음속으로 질책하였다.

깊은 사색에 잠기셨던 수령님께서서는 이윽고 만면에 밝은 표정을 지으시였다.

《고철상인들이 판로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철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가구공장을 가지고있으면 우리가 목재같은것도 보내주겠습니다.》

수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최종만은 너무도 감격하여 환성을 올리고싶은 심정이였다. 목재는 가구생산을 하고있던 최종만의 기업에서 생명과 같은것이였다. 목재가 없어 가구생산이 중단될 때 빠질빠질 가슴이 타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앞이 캄캄해지는것 같았다. 수령님께서서는 최종만이가 겪고있는 이러한 고충까지 헤아려보시고 그 해결책을 몸소 세워주시는것이다.

《어떻게 해서나 총련산하 상공인들의 기업을 증

진시켜야 합니다. 조국의 원료에 의거하여 상공업 활동을 진행하는것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지금 재일본 조선신용조합의 예금과 대부가 년간 얼마나 됩니까? 2천억원정도라, 대단합니다. 가까운 몇해사이에 급격히 장성했습니다.

이것은 재일동포들의 민족의식을 보여주는것이며 신용조합의 활동이 적극화되어 동포들속에서 인기를 얻고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신용조합의 역할을 더욱 높여 일본정부의 차별과 박해에 의해 파산에 직면한 재일상공인들을 보호해야합니다. 조국이 여러방면으로 재일상공인들의 활동을 적극 돕자고 합니다. 조국이 재일상공인들을 돕는것은 그들의 민족성을 고수하고 우리 민족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민족의 존엄은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권위이고 민족으로써 떳떳이 살아나갈수 있는 생명입니다. 민족의 존엄이 있어야 인간의 존엄이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돈을 용자받으러 갔다가 고리대금업자에게 문전구박을 받고 앞길이 막막해하는 동포상공인들과 파산에 직면한 기업을 부동켜안고 안간힘을 쓰는 동포상공인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한없는 힘과 용기를 부여주시었다.

(고맙습니다. 수령님!)

그이에 대한 감사의 정이 상공인들의 가슴에 가득 차고넘쳤다.

실로 어머니조국은 사람의 운명에서 가장 귀중한 인간의 존엄, 민족의 존엄을 지켜주고 빛내주는 위대한 품이었다.

오랜 세월 헤어졌던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 지내온 인생사를 주고받는것처럼 때로는 침중한 안색을 지으시고 때로는 온 방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호탕하게 웃기도 하시고 활달하고 생동한 몸짓과 손짓으로 선명한 화폭을 그려보이기도 하며 말씀하시는 수령님의 평범하고 생활적인 말씀의 마디마디에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어버이다운 배려와 넓은 포용력, 열화와 같은 사랑의 정이 흘러넘쳤다.

잠시 동안을 두셨던 수령님께서는 화제를 돌리시었다.

《동무들은 조국에 친척들이 있다니 이제 만나들 보십시오. 그리운 혈육들과 만나면 할 얘기도 많을 것입니다. 종만동무는 조국에 아들이 있지요. 만나 보았습니까?》

순간 최종만은 가슴이 뭉클했다.

《예, 만났습니다. 도착하는 날 부두에서... 그애가 조국에 와서 수령님의 각별한 사랑속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아들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렬치없는줄 압니다.》

아들에게 기울어진 수령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감사의 정이 울컥 치밀어오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조국에 귀국한 모든 동포들이 가지고있던 질병들을 고치고 지망대로 공부도 하고 소망하는 직업에서 일하는거야 응당한 일이지요. 그래서 어머니조국이 아닙니까. 나는 펍 후에야 최기석이가 최종만동무의 아들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범상하게 말씀하며 너그러운 웃음이었다. 무변대해와 같은 크나큰 사랑을 베푸시고도 평범히 여기는 그이의 말씀을 듣고 더는 참을수 없어 최종만은 갈리인 음성으로 심중의 이야기를 터놓았다.

《수령님, 단순히 그래서만이 아닙니다.

저는 조국앞에 2중3중으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사실 아들을 귀국시킨것은 조국을 알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불량의를 길을 걸어 가문에 영향을 주자 부득이하여 빼돌린것이었습니다.

조국에 보탬은 고사하고 불효막심한 행위를 한 저를 질책해주시시오.》

머리를 떨구고 오열에 차 하소하듯 고백하는 최종만의 심상치 않은 목소리를 들으시는 수령님의 안색이 침중해지시었다. 상공인들의 얼굴표정도 사뭇 긴장해졌다. 그이께서는 얼굴에 먹장구름을 떠우고있는 최종만을 넋지시 건너다보시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십시오.》

그이의 아량있는 목소리에 안도의 숨을 내쉬며 활기를 얻은 최종만은 아들이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인간질시와 모멸의 사회악으로 가득찬 일본에서 병신자식을 키운다는것이 간단치 않았다. 말로는 다 못할 고통을 겪어야 했다. 세살때 소아마비로 다리병신이 된 기석이가 학교갈 나이가 되면서부터 최종만의 가슴은 더 찢어지는듯했다. 기석이가 그래도 공부를 하겠다고 다리를 절룩거리며 학교에 갈 때면 동네아이들은 무슨 구경거리라도 만난듯 그를 둘러싸고 야단을 치면서 《절름발이》라고 놀려댔고 발길질을 해냈다. 입술을 사러물고 아이들을 노려보다 끝내는 자기의 병신된 신세가 서러워 주먹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는 기석이를 볼 때마다 최종만내외의 가슴에는 한치두치 쓰라린 피눈물이 고이였다.

어느날 기석이는 최종만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기석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다. 다른 애들은 운동장이 좁다하게 공을 차며 뽀박질을 하는데 기석이만은 번두리의 나무그늘밑에 다리를 퍼더버리고 앉아 서글픈 눈매로 아이들의 뛰노는 양을 멀거니 바라보고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날아온 공이 눈물이 그렇게서 하염없이 운동장을 지켜보는 기석이의 등에 맞고 왕청같이 달아났다.

《비키라마야 병신아.》

멍치끝을 허비듯 앙칼지게 튀어나온 목소리였다.

운동장옆을 지나다가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최종만은 눈이 화등잔같이 되어 기석에게 다가서더니 다짜고짜로 팔을 잡아끌었다.

(이역살이의 고달픔만도 참기 어려운데 왜 병신 자식이 되어 이렇게 애비속을 태워준단 말인가. 차라리 방구석에 처박혀있어도 이런 정상을 보는일이 없겠는데 운동회날에 무엇때문에 부득부득나온단 말인가.)

《가자, 여긴 뭘하러 나와 이모양이냐?》

《안갈래요, 싫어요. 다리도 못고쳐주는 아버지.》

기석이는 울면서 그 자그마한 손으로 최종만의 동가슴을 쥐어박는것이였다. 기석이의 눈물어린 눈동자에는 다리도 못고쳐주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빛이 번뜩이고있었다.

《이자식아, 죽어라 죽어, 애비의 속을 그렇게도 말릴 작정이나.》

최종만은 그만 속에서 불이 일어 아들의 등을 마구 두들겼다.

최종만은 아들을 때렸지만 그것은 저러드는 자기 자신의 가슴에 향한 모진 매질이였다. 커갈수록 기석이의 성격은 더욱 우울해지고 이그러졌으며 가정에 서러드는 공기는 무거웠다. 기석이도 자기를 멸시하는 눈초리를 느낄수록 그에 대한 반항심이 커졌고 그 반항심은 인간의 참된 모든것을 부정하는 심리로 변하여 마침내 비행소년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소년기에 자기의 미래와 희망을 짓밟히게 되는 병신아이들은 흔히 인간생활의 일체를 부정하는 비행의 길을 택하는것이 상례로 되어있었다. 바로 기석이도 끝내는 그길로 굴러떨어지고만것이다. 기석이는 고등중학교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이런 편지구절을 남긴채 집을 뛰쳐나고말았다.

《아버지, 더는 저를 찾지 마세요. 제가 사라지면 아버지의 마음고생도 그만큼 덜어질줄로 믿습니다.》

최종만은 눈앞이 캄캄했다.

최종만내외는 허둥지둥 야삼경 별빛을 등불삼아 거리와 골목, 다리밀과 역전 등을 뒤져나갔다. 진창에 넘어지고 담벽에 부딪치고 하며 행적을 몰라 암중모색하던중 어느날 전화가 걸려온것이 경찰서였다. 경찰서에 가보니 기석이는 일본깡패놈들과 몰려다니다 싸움에 끼여들어 돌을 던졌는데 그것이 살인미수가 되어 구류장에 감금되어있었다.

《이 조선포니나 죽여버리겠소.》

경찰은 남의 나라에 와 사는 주제에 제가 딛고사는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란동을 부렸다는것이다.

손이 발이 되도록 밟고 장사밀천으로 잡았던 한몽치의 목돈을 밀어넣고서야 겨우 빼내울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했다. 몇달이 안되어서였다. 또 기석이가 실종되였다가 경찰서의 구류장에 갇히였다.

이번에는 일본불량배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정질을 하다가 불고기판을 뒤집어엎어 화재를 일으켰는데 그것으로 하여 방화미수죄를 지고 잡힌것이다.

《이제는 할수 없소. 가막소에 가 콩밥이나 먹어야겠소.》

이러기를 그 몇번 최종만의 머리는 아들때문에 터질지경으로 복잡했고 가슴은 타 재가 쌓였다. 법기관에 구류된 아들을 빼오는데 소모되는 돈과 란동으로 남의 재산과 기물을 파괴하여 변상처리되는 돈 등으로 가정의 밀천이 드러나고 기업을 폐업해야 할 형편이였다.

어느날 최종만은 안해에게 조용히 귀띔했다.

《여보, 아무래도 저애를 두었다가는 기업은 고사하고 패가할것 같소. 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제자식인데 버릴수도 없구.》

안해 역시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로 하여 이미 그의 가슴은 탈대로 타 재만이 쌓였고 앞날을 생각하면 캄캄하기만했다.

《조국으로 보냅시다.》

최종만은 기석이를 구원하는 길은 오직 일본을 떠나 조국으로 보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기석이를 귀국시키고싶은 마음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변변치 못한 자식을 조국에 맡기는것이 죄스러운 처사라 생각하고 이때까지 미루어왔던것이다.

《뭘요, 조국으로요?》

안해는 아연한 표정으로 놀라며 물었다. 이어 그는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했다.

《무슨 량심으로 조국에 보내겠어요. 신체도 온전치 못한 애를, 조국에서는 저애를 또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가서 란동을 부릴 생각을 해보세요. 건전한 조국에 가서 무슨 소문을 내며 누구를 망신시키겠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영 조국의 버림받는 사람이 될거예요.》

《조국에 가서는 감히 그러지 못할게요.》

《장담 못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샌다구 달라지지 않을거예요.》

《그애가 어디 처음부터 불량아였소. 여기 일본 망나니들속에 섞이면서부터 그랬지. 조국의 풍토는 여기와 판판 다르요. 깡패와 불량배는 물론 거지나 방랑아도 없다질 않소. 물이 없는데 제 아무리 요동을 쳐도 헤엄쳐내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조국에 부담만을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일이에요.》

안해는 자기 양심을 기만하고싶지 않았다.

《자꾸 그렇게만 생각지 마오. 낸들 오죽 안타까우면 제자식을 슬하에서 떼버려야 하겠소. 저애가 무슨 구실하기를 바래서가 아니요. 비행의 구렁텅이에서나마 건져내보자고 해서 그러는거요.》

최종만은 속으로 울었다. 그것은 안해가 까밝혀 말하지 않아도 자기의 처사가 너무나 신성한 조국 앞에 죄스러운 일이라는것을 잘 알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양딸 하나를 데리고 살아 늘 가정의 적적함을 느끼는 동생이 귀국하는편에 꺼물혀 보냈던 것이다.

기석이를 귀국시킨후에도 최종만은 늘 그에 대해 마음을 놓을수가 없었다. 그것은 귀국시켰다기보다 가문을 구하고 기업을 살려 돈을 벌기 위해 쓸모없는 병신자식을 조국에 돌던지듯 해버렸기때문이다. 그래서 기석이의 다리를 고치리라고는 애당초 생각하지도 않았고 다만 그가 비행의 길에서 벗어나 사람다운 길로 걸어가기만해도 큰 행운으로 바랐었다. 그것만으로써도 최종만의 마음속 고통이 말끔히 가서질것 같았다. 그러했던 기석이가 다리를 고치고 대학공부를 하고 어엿한 의료일군으로 된것이다.

진정 수령님께서서는 인류가 도달한 현대 의학기술이나 약제로써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기석이의 다리를 고쳐주시고 참된 인간으로 키워주신것이다. 우리들수록 인자하신 그 모습에 머리숙여지고 생각할수록 고마우신 그 은정에 목이 메었다.

《수령님, 면목이 없습니다. 죄많은 이 인생을 꾸짖어주십시오. 만약 기석이가 일본에 있었다라면 오늘의 행복은 커녕 인간의 참된 모든것을 다 잃은 자본주의사회가 낳은 불량인으로 되어버렸을것입니다. 저의 가정과 기업에도 헤아릴수 없는 재앙이 미쳤을것입니다.》

방안에는 최종만의 흐느낌소리만이 간간이 들릴 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얼굴에 침중하신 빛을 띠우신채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지요. 사회악이 낳는것을 부모인들 어찌겠습니까. 제때에 아들을 조국에 보내어 인생의 참된 길을 걷게한것은 잘한 일입니다.》

순간 최종만은 놀랐다. 자기 귀를 의심했다. 불량배 자식을 조국에 보낸 자신을 엄하게 책할대신 잘한 처신으로 평가해주시니 참으로 무엇이라 말씀드릴수가 없었다.

억만초목을 안아키우는 대지의 도량인들 이보다 더 넓으며 만물을 소생시키는 태양의 은혜로움인들 이보다 더 뜨거울것인가. 이 은덕을 무엇으로 갚는단 말인가.

《수령님, 사실 우리 기석이는 일본에 있을 때 저의 부동산 절반을 경매에 붙이고 다리를 고쳐주면 전액을 주겠다고 광고하였었습니다. 아마 그때 누가 기석이의 다리를 고쳐주었다면 과반수의 부동산이 처리되었을것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아무 보수없이 한 상공인 자식의 다리를 고쳐주고 정신적불구로부터 자주의식을 가진 지식인의사로 키워주었으니 이것은 저의 재산전부를 팔아 갚아야할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가면 부동산전액에 해당하는 돈을 조국에 회사하려고 합니다. 약소한 것이지만 저의 성의로 알고 받아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최종만이 지금까지 조국에 와서 보고 느낀데 대한 총결산이었다.

최종만의 말을 주의깊게 들으시며 잠시 진중한 빛을 보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얼굴에 밝은 빛을 띠우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종만동무가 사회주의조국에 와서도 돈을 가지고 무엇을 계산하려는게 아닙니까. 동무들은 조국을 어머니조국이라고 부르고있는데 어머니가 자식의 병을 고쳐주고 사람으로 키워주었다고 하여 무슨 보수를 받습니까.》

인간의 가치가 교환가치로 전락된 병폐화된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돈이나 물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상에 의하여 평가됩니다. 인간은 바로 사상의식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하여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그 어떤 재부라도 비기지 못할 귀중한 존재로 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불량 길로 가는것이 불가피한 현상으로 되고있다면 우리 사회주의조국에서는 인간을 개조하며 자기의 뼈와 살을 때주어 동지를 구원하는 일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되고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입니다. 돌아가면 그 돈을 가지고 기업활동에 리용하십시오. 일본의 대기업이 팽창하는데 대비하여 상공인들도 기업을 늘이자면 많은 자금이 필요할것입니다. 상기업을 증진시키는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에서 사는 재일공민들의 민족적존엄을 지키고 인간의 가치를 빛내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령님!》

이러나저러나 무엇보다 재부를 귀중히 여기며 아들조차 버리다싶이했던 최종만은 일생 지배하고있던 인생관에 대한 반성으로 오열을 터뜨렸다.

오십여년전 부모를 잃고 십대의 고아로 이집저집 떠돌아다니며 쪽박차고 구걸을 하였고 차디찬 이

슬을 맞으며 허청간에서 자란 그에게 이런 아버지의 다심한 사랑을 잊은지가 오래다. 그래서 부평초마냥 세상을 표류하다가 밋은곳이 일본이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아버지사랑, 그 누가 지금껏 이처럼 친자식의 심정으로 자신과 아들의 생활을 헤아려주시분이 있었던가. 최종만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견잡을수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물질적재부보다 인간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자본이나 재부는 인간이 창조하고 인간을 위해 복무하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지만 인간의 정치적생명과 육체적생명은 한번 잃으면 그것으로 끝날뿐아니라 모든 물질적부의 창조자로서의 역할도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에서 만물의 창조자인 사람을 중시하며 사람을 위주로 사고하고 사람에게 복종시켜 일하는 원칙을 견지하고있습니다.》

그이의 열화와 같은 말씀을 받아안은 최종만의 그윽한 눈에 감동의 눈물이 펴하니 고이었다. 수령님의 말씀의 자자구구가 심장에 새겨졌다. 늘 책장에서 보아오던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가 한순간에 온몸으로 습새어들었다.

이윽하여 수령님께서는 아들문제로 은연중 마음이 응축되어있을상싶은 최종만의 심정을 풀어주시려는듯 화제를 더 심화시키시였다.

《중만동무, 이왕 터놓은 아들문제인데 이번에 오셨던 길에 아들의 애인을 한번 보지 않겠습니까?》

그이의 얼굴에는 만년장살을 녹이는 봄날의 해별과도 같은 미소가 어렸다.

《예?!》

최종만은 아들의 애인이라는 말에 귀가 한껏 넓어졌다. 창황중에 맞닥들린 기쁨을 억제하기 어려울 때처럼 가슴이 울렁거렸다.

《물론 청춘남녀들이 서로 연애를 할수도 있겠지만 중이 게 머리를 못깎는다고 당자도 어찌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더우기 기석이는 이곳에 부모가 없으니 누가 이런 일에 선뜻 나설것 같지 않아 내가 우리 동무들에게 귀띔했더니 마침한 배필감을 선정해왔습니다. 사진을 보니 나도 마음에 들어서 기석에게 상면시켰더니 그도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마음에만 들면 되겠습니다.》

순간 최종만은 온몸을 휩싸안은 기쁨과 환희로 하여 자신을 주체하지 못했다.

수령님께서 아들의 혼사문제까지 아버지를 대신 해주시니 무어라고 감사를 드렸으면 좋을지 알수없었다.

곧 한 일군이 종이에 찢 사진을 들고 들어왔다.

《중만동무에게 보이오.》

《수령님께서 좋은 대상이라는데 제가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최종만은 환송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래도 친부모가 허락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머느리감인데 여려모로 마음에 들어야지요.》

최종만은 떨리는 손으로 일군이 내주는 사진을 받아보았다.

나무랄데 없이 무뎌하고 유순해보이는 처녀다.

결불안이라고 마음 다름바 없고 성품 또한 이룬데 없을듯하다.

그윽한 인간미가 풍기는 처녀가 금시 딸처럼 여겨지며 담썩 안아주고싶은 충동까지 생겼다.

《수령님, 저는 기꺼이 찬성입니다.》

수령님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응낙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기석이의 결혼식까지 하는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참석하셔서 말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최종만이 이번길에 바라고바라던 소원이였다. 그런데 이렇게 쉽사리 그 소원이 이루어지다니 실로 행운이라 하지 않을수 없었다.

최종만은 무아경에 잠겨 정신을 차릴수 없었다. 평범한 재일상공인 부자에게 베풀어주시는 그이의 사랑과 배려를 무슨 말로 다 표현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최종만은 환희와 기쁨에 취하여 마음과 넋을 질정하지 못했다.

《기석이의 결혼식상은 아버지가 차릴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내주겠습니다.》

《수령님!》

최종만은 이 나라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바치는 사랑이 무색할 그이의 뜨거운 사랑앞에 목이 짝 메였다. 모진 세월 송두리채 얼어붙었던 눈물이 따사로운 사랑의 빛발에 녹아 랑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인간의 존엄, 인간의 가치를 최상의 절정에 올려세워주시고 빛내주시는 수령님이시였다.

최종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쳤다.

(수령님, 수령님께서 가장 귀중한 재부가 인간이라 하지만 실로 인류가 수백만년동안 이룩한 재부중의 가장 귀중한 재부는 인간을 모든 재부위에 올려놓으시는 수령님의 그 위대한 사상입니다. 인간사랑, 인간존중, 인간중심, 인간만세의 그 사상이야말로 지구우에 천만산악처럼 솟아 빛을 뿌리는 재부들과 지심깊이 뿌리박고있는 온갖 은금보화에 비기지 못할 재부중의 영원한 재부입니다!)

남석리 장수바위

청진시 송평구역 남석리에 가면 직두천이라는 크지 않은 강이 흐르고있다. 그 강을 끼고 자동차길이 나있는데 이 길을 따라 얼마쯤 올라가면 연두봉기슭에 자그마한 바위산이 솟아있는것을 보게 된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왜놈들이 군사훈련을 하던 련병장 자리가 있다.

바로 그 바위산에 신통히도 사람머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그 바위를 이고장사람들은 장수바위라고 불렀다.

지금은 바위우에 새겨진 발자국자리 하나와 사람의 손자리가 하나 남아있을뿐이고 그 장수바위는 길을 넓히는 공사를 할 때 없어졌다고 한다.

장수바위는 없어졌으나 이고장사람들속에서는 그 바위와 관련한 전설이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자연부원을 약탈해갈 목적으로 해안도시인 청진시에 제철소와 제강소를 세웠다. 그때 사봉벌에 선 제철소를 《일철》이라고 불렀다.

바로 《일철》이 선후에 있는 일이니 아마도1930년대중엽이 아니면 그 이후의 일일것이다. 그때 청진시의 사봉벌에서 장수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났었다.

그 장수는 태어나자마자 걸음마를 떼고 한달만에 뛰여다녔는데 힘이 굉장히 센 장사라고 하였다. 세살이 되자 키가 어른만해졌는데 송아지를 한손으로 버쩍 쳐들었다고 하였다.

다섯살에는 황소를 쳐들었고 열살에는 황소만한 돌을 들었다고 하였다. 열두살이 되자 집채만한 바위를 들어 멀리 바다에 집어던졌는데 그바람에 파도가 세차게 일었다고 하였다.

그 장수에 대해서는 별의별 말이 다 돌았다. 온몸이 돌로 되어있다고도 했고 지어는 무쇠로 되어있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화살이나 총알도 몸에 맞으면 튀어난다고 하였다. 그 장수는 바람이 얼마나 센지 돌도 날린다고 하는 사봉벌에서 일철로동자들과 같이 산다고 하였다.

이 소문은 사봉벌에서 멀지 않은 남석리에도 돌았다. 남석리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희한해하면서 너무도 놀라와서 잘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밤, 남석리사람들은 모두 놀라 잠에서 깨여났다. 갑자기 땅이 쿵쿵 울리는것이였다. 처음엔 지진이 일어났는가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날랜 사람 몇이 밖에 나가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우람한 몸집을 가진 거인이 두벅두벅

연두봉쪽으로 걸어올라가는것이였다.

그 거인의 발걸음소리가 쿵쿵 땅을 울리였다.

희미한 별빛의 여광에 자세히는 볼수 없었으나 거인의 우람한 체구만은 확연히 알리였다.

거인을 보자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집으로 달려가 숨었고 어떤 사람들은 방안에서 문을 방싯 열고 밖을 내다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 몇사람은 거인의 뒤를 따라갔다. 거인은 쿵쿵 땅을 울리며 직두천을 따라 뻗은 길로 걸어올라갔다.

어디로 가는 길일까? 왜 여기로 갈까?

그에 대해서 아는이는 남석리에 한사람도 없었다. 얼마쯤 가더니 거인은 길옆에 바위산이 나지자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더니 바위를 손으로 짚고 《으-옥》하고 힘을 썼다.

그러자 거인은 발부터 점점 바위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잠시후에 거인은 보이지 않고 그저 바위산만 우뚝 솟아있을뿐이였다.

《히야!》

따라왔던 젊은이들은 모두 놀라와 소리를 질렀다. 새벽이 될 때까지 자리를 뜰줄 모르던 마을사람들은 동녘이 밝아오자 그때에야 정신을 차리고 바위산으로 달려올라갔다.

바위산에 거인의 발자국자리가 여러군데 찍혀있었고 손으로 짚었던 자리도 두군데나 나있었다.

《파연 장수는 장수로구나!》

젊은이들은 모두 혀를 차며 놀라와하였다.

그후 이 소문이 마을사람들에게 퍼지자 거인이 왜 바위속에 들어가 숨었을까 하는 의혹이 큰 화제거리로 되였다.

이 의혹은 인차 풀렸는데 사봉벌의 일철로동자들에 갔다는 사람이 이런 소식을 가져왔던것이다.

머칠전이였다고 한다. 그 거인은 바로 사봉벌에 태어난 장수인데 그는 늘 뿔어넘치는 힘을 주책하지 못해 안타까와하였다고 한다.

어느날 장수는 부모들에게서 왜놈들이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갖은 악독한짓을 다하고있다는 사실을 죄다 알게 되자 분을 못새겨 씩씩거렸다. 장수는 제혼자서 왜놈들을 몽땅 때려잡고 나라를 되찾겠다고 욱욕하였다.

울분에 차서 펄펄 뛰는 장수의 기상은 참으로 무서웠다. 누구도 그를 말릴수가 없었다.

왜놈들은 그것을 알고 군대와 경찰, 자위단까지 총동원하여 장수를 잡으려고 날뛰였다.

어떻게 될까? 아무리 힘이 센 장수라 하더라도 왜놈군대의 수가 적지 않은데 어떻게 당해내랴 하여 가슴을 조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장수의 귀에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서라 자중할지어다. 독불장군이라고 혼자힘으로는 대업을 이룰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대장수가 백두산에 내렸으니 저 남석리바위속에 들어가 때를 기다릴지어다. 백두산쪽에서 주라소리가 울리면 장수들이 출전할것인즉 그때 깨어나 함께 싸우면 왜놈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찾을수 있을것이니라.》

그 소리를 듣고 장수는 처음엔 어안이병병했다. 어디에서 누가 하는 말인지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아무것도 눈에 띄우는것이 없었다.

이때 또 같은 목소리가 울렸다.

《아서 바위산속에 들어가 때를 기다릴지어다.》

장수는 이것이 하늘의 계시라고 생각하였다. 그 리하여 장수는 그길로 남석리를 향했던것이다.

그뒤 장수가 들어간 바위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한달, 두달, 한해, 두해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 장수에 대해서 잊은듯 화제에도 올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뿌웅-붕-》

백두산쪽에서 갑자기 주라소리가 울리었다.

《뿌웅-붕-》

주라소리는 온 산천을 깨우는듯싶었다. 그 소리에 숲이 설레이고 강과 바다가 격랑을 일으켰다.

사람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장수가 깨어나지 않을까?》

주라소리가 울린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우르릉 하고 지동이 일더니 바위속에 들어가 잠 들었던 장수가 깨어나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장수가 나온다!-》, 《장수가 나온다!-》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바위산밑으로 달려갔다.

이 소문을 듣고 왜놈들도 허겁지겁 달려들었다.

《우르릉!》 또한번 지동이 일어났다. 바위안에서 장수가 머리부터 밖에 내밀었다.

당황한 왜놈들은 장수의 머리를 향해 마구 총질을 해냈다. 《땅 따당!》

《앗!》 사람들은 너무도 안타까와 차마 볼수가 없어 눈을 꼭 감았다. 한참만에 눈을 떠보니 이게 웬일인가? 총알은 장수의 머리에 맞고 탕탕 튀어나는것이였다.

후-하고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장수는 몸을 점점 더 솟구쳐 어느덧 목이 보이게

되였다.

당황망조한 왜놈들은 더 많은 경찰을 내몰아 장수의 머리를 향하여 연발사격을 하였으나 여전히 총알은 들지 않고 튀어나기만 하였다.

악에 반친 왜놈들은 힘풀이나 쓰는놈들을 한무리 데려왔다. 《빨리빨리 쇠메로 장수의 머리를 쳐라!》 경찰대장의 왜가리청이 뻗 하고 울렸다.

몸집이 우람한놈들이 저마다 떡메만한 쇠메를 하나씩 들고 바위산으로 올라가 장수의 머리를 겨금 내기로 내리치기 시작했다.

《탕! 탕!》 이것을 보는 마을사람들의 가슴은 또 다시 옥죄여들었다.

장수는 더 솟아나지 못했다.

아빨싸! 사정없이 내리치는 쇠메를 맞고 장수가 숨이 진제 아닐까? 그러나 그것은 괜한 걱정이였다. 왜놈들이 솟아나지 못하고있는 장수의 머리를 보고 마음을 놓고있을 때 다른 쪽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장수의 온몸 전체가 땅우로 솟구쳐올라 바위산우에 떡 뺨치고서는것이였다. 《히야!》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깨밑에서 구름이 감도는 장수를 올려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있었다.

장수는 땅속에서 더 커졌던것이다.

왜놈들은 무서워서 줄행랑을 놓았다.

장수는 쿵쿵 땅을 울리며 백두산쪽을 향해 걸어 갔다.

바위산에는 솟아나오지 못하고 돌로 굳어진 장수의 머리가 그대로 있었는데 사람들은 후에 그바위를 장수바위라고 불렀다.

그후 장수는 백두산대장수의 부하가 되어 왜놈들을 쳐부시고 나라를 해방하는 성업에 단단히 한몫 하였다고 한다.

이교장사람들속에서는 오늘도 이 전설이 즐겨 전해지고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곳에서 발견된 구호 나무와 결부시켜 이야기하군한다.

장수바위가 있던 바위산으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최근에 구호문헌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였다. 그 구호문헌들가운데는 《제철로동자 일심단결하라》, 《로동자는 전민항쟁주력》이라는 구호와 함께 합치자는 뜻으로 《합》이라 쓴 구호나무도 나왔다.

전설에서 장수가 백두산쪽에서 울리는 주라소리를 듣고 자기의 힘도 합쳐 왜놈들과 싸우러 갔다는 내용은 구호문헌에서 로동계급과 힘을 합쳐 《전민항쟁》을 하자고 한 사상과 너무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그래 이 이야기는 지금 매우 의미심장한 뜻을 담고있는 가치있는 전설로서 귀중하게 여겨지고있다.

출 발 선

심봉원

1

모란봉의 청류벽이 비껴내린
은구슬 뿌리는 대동강 기슭을 지나
만수대언덕의 대리석층계를
아버지와 아들이 오르고있어라

애젊은 나이에 군복을 입고
아들이 초소로 떠나는 이 아침
마치 자신도 옛군복 다시 입고 입대하는듯
바다처럼 설레는 아버지 윤호의 마음

허나 세월의 준마는 달리고달려
윤호의 머리엔 흰서리 내렸으니...
병사시절 뿔던 피는 변함없이 뿔건만
그가 섰던 어제날의 초소에
오늘은 아들 철수가 서게 되었거니
세대는 이렇게 바뀌는것인가

한생토록 받아온 그 사랑에
의리를 다하지 못한 윤호의 마음
친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전사되어
초소로 떠나는 아들의 어깨우에
없고싶은 부락도 많고많구나

기상나팔 울리면 빨리 일어나
발싸개는 어떻게 감아야 하며
분대의 뒤자리에 서지 않도록
군화끈을 빨리 매는 방법까지도
아들에게 가르치고싶은 그 마음

하지만 언제나 아들의 가슴엔
마음의 기둥이 있어야 하고
한생을 힘껏 떠밀어줄
못잇을 생활의 출발선이 있어야 하리니

윤호는 이 아침 아들의 발걸음
만수대언덕으로 이끌었더라
아버이수령님 동상 우러러
축원의 꽃다발 삼가 드리고

나란히 앉아
윤호는 아들에게 들려주었다
아버이수령님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의 그 이야기

출발선 출발선
윤호가 걸어온 그 길우에
생의 발걸음 말없이 떠밀어준
못잇을 출발선이 새겨져있나니

말하라 출발선 출발선이어!
너는 그 어디에 새겨져있느냐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나
생의 고고성을 울리던
고향집의 포근한 요람가인가

붉은넥타이를 가슴에 날리며
소년단입단선서문을 따라와우던
인민학교시절의 그 지점인가
배움의 창가에서 나래를 키워
사회로 진출하던 출근길인가
군복을 입고 초소로 떠나던
어머니 바래주던 동구길인가

지나온 그 자욱 돌아다보면
윤호의 추억은 가닿았더라
열일곱살 나어린 병사시절에
수령님을 뵈옵던 그 지점으로

...1949년봄
훈련을 마친 공병전사들
소곤소곤 밥상에 마주앉아
방금 수저를 들고있는데
나는듯이 달려온 직일병의 목소리
-동무들 장군님께서 오셨소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셨단말이요!

-아니 장군님께서요?
윤호도 전사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과 흥분속에 어쩔줄 모르는데

어느새 환하게 웃으시며
식당안에 들어서신 장군님
어서 앉아 식사를 하라시며
손을 들어 답례하시여라

기쁨과 환희 흥분과 감격으로
가슴은 한없이 울렁이는데

운호의 밥상앞에 다가오신 장군님
다정한 음성으로 물으시여라
훈련은 힘들지 않는가?
식사는 구미에 맞는가?
생활에서 불편은 없는가?

-아무런 불편도 없습니다
일제히 올리는 전사들의 대답에
웃음을 지으시던 장군님
결에 선 부관에게 이르시여라
-나도 이 동무들과 같이 식사를 하겠소

-아니 장군님께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다니?...
전사들의 두눈엔 놀라움이 어렸는데
운호의 식탁으로 걸어오신 장군님
그의 옆자리에 앉으시여라

이름은 무엇인가?...
고향은 어딘가?...
부모는 있는가?...
따뜻이 물으시던 장군님

어려서 부모를 잃고
지주집 머슴을 산 운호의 이야기
태어난 고향도 모른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잠시 안색을 흐리시여라

-그러니 동문 고아로구만!
고향도 없는...
아니 왜 동무가 고아겠소?
우리 당의 품이 있는데...
그리구 이제부터
동무의 고향을 만경대로 하자구
참 좋은곳이요!...

운호는 뜻밖의 이 말쑥에
너무도 크나큰 행복과 기쁨에
감격의 눈물만 삼키는데
이젠 어서 식사를 같이하자고
수저까지 들려주신 장군님
지휘관을 불러 이르시여라

-이 동무들은 새 조선의 청년들로서
조국을 지키려 총을 메었소
잘 돌보고 이끌어줘야 하오!

아 크나큰 나라일 돌보시느라
그이계신 얼마나 바쁘시랴만
다심한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전사들의 국맛도 보아주시며
생활의 구석구석 보살피시는
아버이장군님의 그 사랑이여

운호는 뜨거운 아버지 그 사랑에
목메여 목메여 머리를 숙이는데
자리에서 일어서신 장군님께서
운호의 어깨를 두드리주시여라
-꼬마공병동무!
꼭 훌륭한 전사가 되라구!

아 크나큰 그 믿음
뜨거운 그 은정에
복받치는 걱정을 참을길 없어
운호는 목청껏 웨치였더라
-**김일성**장군 만세!

아 전사의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만세소리 만세소리여!
너는 아버지 그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할
엄숙한 심장의 맹세였나니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만세소리와 함께
전사의 가슴엔 새겨졌더라
수령님 받들어 한생을 달려갈
참다운 생의 첫출발선
사랑에 보답할 충성의 첫자욱이

2

어둠이 깃든 세갈래 전선길
철의 대오는 거침없이 흐른다
대지를 진감하는 무쇠땅크들
포차에 끌려가는 엄엄한 포신
긴 총창을 달빛아래 번뜩이는
보병들의 군가소리 발걸음소리

멸적의 그 흐름 막아보련듯
밤하늘에 날아든 폭격기편대
등등 락하산에 조명탄 걸고
광광 뚜루룩...악을 쓰누나

그러면 강변에서 산고지에서
탕탕 올리쏘는 고사포탄이
불덩이로 하늘땅을 가득채운다
조선의 기상을 뿔어올리며

마침내
꿈무늬에 불이 달린 《비-29》
놈들의 폭격기 날개를 흔들더니
산마루 벼랑턱에 곤두박힌다
광-불과 연기속에 간곳없구나

세거리 교통정리원처너
출발의 호각소리 다시 울리고
자동차의 경적소리 땅크의 엔진소리
밤하늘 흔들며 울려 퍼지는데

나는듯 달리던 승용차 한대
윤호의 눈앞에 문득 멎는다
차에서 내리는 군관의 눈길
그 누구 찾는듯 사방을 둘러본다
-여기 공병들이 없소?
-예,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윤호는 군관앞에 다가서는데
젊은 군관의 다급한 목소리
-동무 저앞을 좀 보시오
놈들의 시한탄이 꼭 깔렸소!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속에
하나 둘 드러나는 시한탄의 형체들
근심스레 바라보는 군관의 눈길
-빨리 제거하라! -윤호에게 말하는듯

윤호의 눈앞에 떠올라라
어디선가 본듯한 낯익은 그 눈길
어디선가 들은듯한 낯익은 그 음성
아 장군님 중대에 오셨던 그날
그날의 그 부관 틀림없구나

윤호는 한걸음 군관앞에 다가서며
황급히 불렀더라
-부관동지!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아니 동무가 나를 어떻게?
부관도 놀란듯 반색하는데
-제가 부관동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지난봄 장군님께서 공병중대에 오셨을 때...
-아, 그렇지 그때 그 꼬마동무...
지금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전선으로 나가던 길이요

-그럼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렇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잠시후 이곳에 도착하실거요
짙막하게 주고받는 그 대화속에
장군님의 앞길을 열어드릴
전사들의 그 마음 불같이 오고갔다

어이하면 좋으랴 위급한 순간
윤호의 심장은 뛴뛰였더라
장군님 무사히 지나신다면
내 한목숨 바친들 한이 있으랴만
어이하면 그 많은 시한탄을

단숨에 해제할수 있단말인가

오 전쟁의 승리를 마련하시는
위대한 령장의 전선길 전선길
한순간 한초도 지체할수 없는
장군님의 천금같은 그 시간이어

장군님의 그 길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맛받아나갈
윤호의 머리속엔 떠올랐더라
원췌의 시한탄을 일시에 날려버릴
슬기로운 그 지혜 그 용맹이

-부관동지, 잠간만 기다려주십시오
윤호는 목직한 쇠장대 랑끝에
두줄기 길다란 쇠줄을 동여맨 다음
저만큼 시한탄구역을 지나더니
그 쇠줄을 몸에 걸었다

-동무, 위험하오!
부관은 윤호를 소리쳐불렀다
하지만 윤호는 말없이 미소를 보낼뿐
등뒤의 쇠장대를 끌며
앞으로 나갔다 한걸음 또 한걸음

이윽고 윤호의 등뒤에선
쇠장대에 걸려든 시한탄들이
탕탕 튀었어라 불길과 연기
요란한 폭음을 전선길에 터치며

획획-양갈진 파편들이
생명을 희롱하며 머리우에 날고
사나운 폭풍은 온몸을 덮쳐
윤호는 그 몇번 땅우에 쓰러졌던가

모진 상처의 아픔도 잊고
죽음의 공포도 그는 잊었다
다만 윤호는 들었더라
우렁우렁 울려오는 장군님의 그 음성
-꼬마공병동무
꼭 훌륭한 전사가 되라구

죽음은 귀청을 찢는듯 때리고
팔과 다리의 파편상에서
붉은피 흘러내려 군복을 적시건만
장군님의 그 음성 귀가에 들으며
장군님을 위하여, 만경대를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마지막힘을 모아
쇠장대를 끌고끌며 앞으로 나갔거니

무엇이 다르랴 윤호의 그 모습

장군님 만세를 높이 부르며
원췌의 화점을 몸으로 막은
영웅들의 그 모습 다름없구나...

무엇이 다르랴 윤호의 그 모습
기여드는 적땅크의 사슬밑에서
수류탄뭉을 안고 불길로 솟은
영웅들의 그 모습 다름없구나...

시간은 얼마나 흘러갔는가
마지막시한탄의 폭음과 함께
윤호가 강변에 쓰러졌을 때
그의 귀가엔 울려왔더라
희미하게 들리는 출발의 호각소리
전선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경적소리

윤호는 그 소리 들으며들으며
입가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더라
-장군님 부디 안녕히
준엄한 전선길에 부디 안녕히...

3

전선길 굽이굽이
자그마한 풍차 한대 달려여간다
어둠을 무찌르는 전조등 불빛은
예지의 빛발인양 앞길 밝히고
두줄기 뻗어가는 바퀴자국은
싸우는 조선의 역사를 새기는가

마치 이동하는 최고사령부인듯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시고
차중에 계시던 장군님
문득 부관에게 물으시여라
-방금 세갈래초소에서
무슨 폭음소리가 울리지 않았소?

-예! 시한탄을 해제하는 폭음소리였습니다
-시한탄을?
-그렇습니다. 장군님
세갈래초소의 공병전사가
수백개의 시한탄을 밀대식으로 해제하고
마지막시한탄을 강언덕에서...

-참 용감한 전사로구만
그이께선 못내 대견해하시는데
부관은 그이께 아뢰었더라
-전쟁전 공병중대를 찾으셨을 때
장군님께서 친히 만나보신 그 전사였습니다
-아, 그 꼬마공병전사말이요?
-그렇습니다 장군님!
-음 그랬었구만

참 장한 동무요 장한 동무야!
그래 그 윤호동무가
어디 다친데는 없었소?

어느덧 그이의 음성엔
한줄기 근심이 어리였는데
잠간 망설이던 부관
-그건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시간이 너무 급하시기에...

-알아보지 못했?
차안엔 흐른다
그이의 무거운 음성
그이의 심려어린 눈빛

그이의 심증을 헤아린 부관
그 어떤 추궁
그 어떤 가르치심이 계시려나
가슴을 조이는데
-차를 세우시오!
그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부관도 운전사도
웬일인가 영문 모른다

-부관동무!
이제 곧 세갈래초소로 돌아가
그 동무의 형편을 알아보시오
그리고 대책을 세우시오!

-예?
천만뜻밖인듯
잠시 주춤거리던 부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겐 오직 하나
장군님을 호위할 임무만 있습니다

-동무의 심정을 알만하오
하지만 지금 그 동무가 우리때문에
피를 흘리고있다고 생각해봐오
그 동무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내 발길이 떨어질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장군님
저는 장군님결을 떠날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의...

-알만하오 알만해
하지만 전사들이 있구서야
최고사령관도 있는 법이요
그렇게 전사들을 하나 둘 잃어버리면
전쟁은 누가 하겠소?

잠시 말쑥이 없으시던 그이
자책으로 머리 숙인 부관의 어깨 위에
가벼이 손을 얹으시여라

-부관동무!
전사들이 건강해야
조국이 튼튼할수 있소
이 전쟁의 담당자도 전사들이요
승리의 주인도 전사들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하오

아, 길이어 길이어 전선길이어
듣느냐 그이의 뜨거운 그 음성을
높낮은 고지여 불타는 전호여
흐르는 내물이어 말없는 산발들이여
고이 간직하라 그이의 그 말쑥을

하늘의 못벌을 다 합쳐도
태양이 될수 없듯이
이 땅의 천만전사 다 합쳐도
그 어이 장군님을 대신할수 있으랴만

한명의 전사에게서
조국의 운명을 가늠하시고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시는
위대한 령장

그이의 거룩하신 손길이어라
무장중심의 인류전쟁사를
인간중심의 혁명전쟁사로
새로운 장을 펼치신것은

그이의 예지로운 빛발이어라
평범한 병사들의 심장속에서
무한한 힘의 가능성
승리의 영원성을 찾으신것은...

부관의 생각은 똘어오른다
얼마나 행복한 전사들인가
그이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이 나라의 전사들은

평범한 공병전사 하나를 두고
달리던 전선길우에
사랑의 새 전설을 수놓으시는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뜻을 안고
부관은 발걸음 돌려세웠다
세갈래초소로 다시 떠났다

4

소생의 기쁨이 꽃핀

산기슭의 아담한 병동
약냄새 풍기는 침상에서
몇날 몇밤이 흘러갔던가

장군님 보내주신
유능한 의료집단
군 의와 간호원들의 지성속에
해와 달은 달포를 넘어갔건만

피롭다 윤호의 마음
귀에서 잉잉거리는 소음
때없이 머리를 휘젓는 빈혈
들쭉시는 관절의 아픔

이대로 침상에 누워
전승의 그날을 맞는단 말인가
이대로 불구가 되어
장군님의 은덕에 보답하지 못하고 마는가

창밖의 푸르른 백양나무아지에서
지저귀는 새들도 조롱하는듯
푸른 창공에 떠가는 흰구름도
윤호를 굽어보며 한숨쉬는듯

아직도 어깨와 무릎뼈속엔
놈들의 파편이 숨어땀돌며
-움직이지 못한다 누워있어라
윤호의 팔다리를 얹어매건만

외과과장도 담당군의도
부관앞에 가벼이 머리 젓는다
-네번째 수술을 해야겠는데
환자가 너무도 허약합니다!
이 상태로 수술을 하다가
환자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말없이 침대결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던 부관
-알만합니다-대답 남기고
문밖을 나선지 그 얼마던가...

낮모를 할머니 한분
윤호의 침대가에 찾아왔더라
-자네가 박윤호인가?
윤호는 할머니의 그 물음에
의아한 눈길로 마주보는데

할머니는 다정히 손을 잡으며
윤호에게 다시금 이야기했다
-몸이 좀 어떤가
나하고 함께 갈수 없을까?

친히 윤호의 어깨를 받들어주는
인정미 넘치는 그 할머니
마치 윤호는 고향집 어머니를 만난듯
할머니의 뒤를 따라 승용차에 올랐다

병원에서 멀지 않은 산기슭에
수수한 농가집 한채
할머니의 뒤를 따라 방문을 여니
웬일인가 방안엔 부관과
주인집 할아버지 한분

-어서 들어오라구
-날씨가 찬데 고생했겠구만
반가이 맞아주는 주인집 할아버지며
부관의 손길에 이끌려
윤호는 방안에 들어섰더라

어리둥절 방안을 둘러보는 윤호에게
부관이 들려주는 말
-참 윤호동무! 여기가 만경대요!
이 집은 장군님의 숙부님택이요
동무를 데리고 오신 할머니는
장군님의 숙모님이시고
할아버지는 숙부님이시오!

-예?
너무도 크나큰 흥분이 앞서
윤호는 제대로 인사도 못하는데
부관은 자초지종 전해주어라

-동무의 병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
친히 동무를 여기로 불러주셨소!
동무가 고향의 꿈을 느끼며
몸을 빨리 추세우도록 하라고말이요
그래서 숙모님이 동무를 데려오셨소

-장군님 고맙습니다!
감격의 눈물에 젖어
윤호의 음성은 가벼이 떨리고
어깨는 흐느낌에 오르내려라

아, 이 세상에 나라는 많고
령도자는 많다 하여도
장군님 같은신분 어데 있으랴
이름없는 한 전사를 보살피시려
위대한 장군님 탄생하신 만경대

혁명일가분의 따뜻한 아래목을
전사에게 허물없이 내어주시고
숙모님과 숙부님에게
전사의 간호를 맡겨주시는

이런 사랑 이런 은정 어데 있으랴

-자, 이젠 그만하라구!
흐느낌에 들먹이는 윤호의 어깨를
다정히 쓰다듬던 숙모님
큼직한 단지 하나 내놓으신다

-자, 이 사람
이걸 좀 들라구!
함박꽃모양의 사기단지를
숙모님은 윤호앞에 밀어놓는데

부관은 뜨거운 감격에 젖어
말없는 윤호에게 이야기한다
-이건 장군님께서 보내주시는 보약이요

량강도의 어느 한 로인이
장군님께 드린 백년묵은 산삼을
이렇게 동무에게 보내주셨소
그런데 숙모님께서 수고로이
산삼닭곰을 고아주셨소!

-예?
-제가 이걸 어떻게...
윤호는 떨리는 두손으로
사랑의 약단지를 그려안았다

갑자기 눈앞에 안개가 낀듯
윤호의 두눈은 뿌연게 흐려오고
흐려오는 눈동자에 이슬은 맺혀
감격의 눈물은 두볼을 적시여라

받아안은 사랑이 너무도 크면
그 사랑 눈물이 말해주는가
누리는 행복이 너무도 크면
불행했던 과거가 떠오르는가

나라없던 그 세월
두만강기슭의 외진 벽촌에서
지주집 머슴으로 천대받던 몸
꼴배던 낫날에 정갱이를 베여도
빨간약 한방울 쓸수 없었고

눈보라 올던 혹한의 겨울
얼음장같은 머슴방에서
감기의 고열로 신음할 때도
그 누가 윤호에게 준 일 있던가
감기약 한알
따끈한 물 한그릇!

인생의 막바지에서 울며 헤매던
윤호의 어깨에 총을 메워주시고

혁명의 전사로 키워주신 품
그 은혜 하늘처럼 높고높건만
오늘은 사랑우에 사랑을 덧쌓으시며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만년장수 보약까지 안겨주시니
장군님의 그 은정 끝은 어딘가

아, 참된 인생도 고향도 안겨주시고
친어버이사랑을 안겨주신
장군님의 그 은혜
소생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불굴의 넋이 되고 신념이 되고
그 어떤 폭풍도 흔들지 못할
억척같은 의지의 기둥이 되었거니

아침해 떠오른 이른아침
윤호는 길차비 서둘렀어라
장군님의 그 은혜 목숨다해 갚으리라
불타는 충성의 맹세를 다지며

5

푸른 소나무 숲속에서
지저귀는 새들도 축복하는가
산기슭에 흘러가는 맑은 내물도
발걸음 떠받들며 따라서는가

술푸른 만경대언덕을 넘어
활개치며 걸어가는 윤호의 앞으로
마주오던 승용차 한대
문득 길가에 멈추어선다
웬일인가? 길을 비켜선 윤호
승용차의 창문을 지켜보는데
차에서 급히 내린 부관
-윤호동무, 어서 타고
장군님께서 동무를 부르시오!

-예?
영문몰라 서있는 윤호에게
부관이 재촉하는 말
-빨리 타고
장군님께서 기다리고계시는데...

그제사 울렁이는 가슴을 안고
승용차에 몸을 실은 윤호의 마음
꿈인가 생시인가 알길 없는데
부관의 흥분한 목소리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
친히 동무를 만나시겠다고 하시였소

...
흥분과 걱정을 진정 못한채

장군님의 방으로 들어선 윤호
상처입은 다리에 힘을 주어 다가서며
그이께 손을 올려 보고했더라
-최고사령관동지!...

-오 윤호동무가 왔구만!
어서 이리 오라구
붉은 색연필을 손에서 놓으시며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신 장군님
윤호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주셔라

-장하오 잘 싸웠소
정말 훌륭한 공병전사요
그이께선 거듭거듭 치하하시더니
-그래 몸은 어떻소, 한번 보지요
오른다리를 다친것 같구만

그이께선 어느새 보셨는가
약간 저는 윤호의 오른다리를
친히 두손으로 짚어보시더니
-아직 낫지 않았구만!
그이의 음성엔 근심이 어리는데

다른 상처를 좀 보자고
손수 윤호의 바지를 걷어올리신다
윤호는 애들처럼 부끄러운듯
바지를 꼭 쥐고 놓지 않는데

-일없어 얼마나 다쳤나 보자구
아버이십정어린 그 손길로
전사의 상처를 살피시던 장군님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았구만

그이께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지도앞에 서계시여라
그 무슨 작전의 실마리가
그이의 머리속에 떠올랐는가

윤호는 송구하고 웅색했더라
장군님의 천금같은 그 시간
위대한 작전의 그 시간을
한 전사가 럼치없이 방해하는듯

하지만 전사여 웅색해말라!
그이께선 지금 지도앞에서
크나큰 작전을 뒤로 미루시고
그대의 건강을 회복시켜줄
조국땅의 한 지점을 찾고계시여라

푸른 숲 우거지고 새들이 우짖는
그 어느 절경을 고르시는가
억만 구슬이 폭포쳐내리는

그 어느 명승지를 고르시는가
땅속의 은금보화 녹아내리고
산속의 산삼뿌리 씻겨내리어
한모금 마셔도 만병이 낫는다는
그 어느 온천이며 약수터를 고르시는가

이윽고 그이계신 지도의 한점을
지시봉을 높이 들어 가리키신다
-윤호동무, 바로 여기에 가서
료양을 하도록 해야 하겠소!
동무에겐 건강을 회복하는것이
미국놈을 잡는것과 같소!

장군님의 그 말씀 받아안으며
자리에서 일어난 윤호
북받치는 감격과 흥분
타오르는 호모와 감사의 정
참을길 없어 참을길 없어
그이의 넓은 품에 와락 안겼다
-장군님!

-장군님!
뜨거운 눈물에 젖은
전사의 한마디 그 부름속에
장군님을 영원히 따르며 모실
전사의 충성이 어려있었고

-장군님!
목메인 한마디 그 부름속에
장군님을 한생토록 받들어나갈
전사의 의리가 불타고있었나니

마침내 그 충성 꽃피어
윤호의 가슴에선 빛을 뿌렸더라
바쳐온 충성과 보답의 열매인
공화국영웅의 금별메달이...

날을 따라 해를 따라
윤호가 받아온 그 사랑에
바쳐온 충성은 너무 적건만
어느덧 귀밑머리 희여져가는
윤호의 안타까운 그 마음이어
한생을 바쳐 못다한 보답의 길
대를 이어 총잡은 가슴에 이어주며
초소로 떠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윤호의 이야기 다시 흐른다

-철수야 내 한생에 받아안은
수령님의 그 사랑 어이 다 말하랴
내가 못다한 전사의 임무

이젠 네가 맡아 다하여라
비길데 없는 행복의 절정에 우리를 세워준
위대한 사랑의 화신
해와 별 우러러 충성다하여라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김정일장군님 전사로 총을 잡은 저를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셔진
수령님의 동상앞에 세워준
아버지의 그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다, 철수야
내 인생의 첫 출발선은
장군님께서 나의 어깨를 두드리주시며
꼭 훌륭한 전사가 되라고 하신
잊지 못할 병사시절 그날이었다

-알겠어요 아버지
저에겐 여기 만수대언덕이
내 한생 빛내어나갈
충성의 출발선으로 될것입니다

아버이수령님 품속에서
인생의 길 충성으로 빛내여온
아버지세대들처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로
내 삶의 길 끝까지 참되게 빛내여가겠습니다

아직은 군복이 몸에 붙지 않고
군모를 쓰는 법도 익숙치 못했으나
마음속엔 벌써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된 자세
어엿이 자리잡은듯

어느덧 만수대언덕을 내려
초소로 떠나는 아들의 어깨우에
윤호는 다시금 마음없으며
뜨거운 눈길로 아들을 바라였더라

잘 가거라, 나의 아들이
너는 새 세대의 젊은 병사
아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안고
친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그 손길따라
참된 전사로 싸워갈 신념
심장의 선서로 불태우며

잘 가거라 나의 아들이
충성의 길로!
해와 별 빛나는 한하늘아래서
내 마음도 너와 함께 가고가리라!

특색있는 인간관계를 설정하는것은 수령형상작품창작의 중요한 요구

리명숙

문학작품창작에서 인간관계를 옹계 설정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작품의 내용을 예술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구성작업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것만큼 인물관계에서는 모든 인물들이 주인공의 선을 돋구는데 복종되어야 하고 매 인물들은 뚜렷한 형상의 뒀을 가지고 구성에서 자기 위치를 똑바로 차지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인물들이 주제와 사상을 밝히는데로 하나같이 지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물관계설정에서의 기본요구는 수령형상작품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수령형상작품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형상을 중심에 모시고 높은 수준에서 창조하기 위하여 다른 인물들의 형상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은 일정한 사회적계층의 대표자로 전형화하여야 한다는 수령형상작품의 요구로부터 그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수 없다.

수령형상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을 개척하시고 간고하고도 기나긴 로정을 헤쳐오시는 과정에 몸소 찾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신 수많은 실재한 원형들이라는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에서 수령의 형상은 일정한 사회적계층의 지향과 요구를 대변하는 전형적인물과 관계를 맺을 때에만 사회적집단을 통솔하고 인도해나가는 최고뇌수로서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원만히 보여줄수 있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깊은 연고관계를 가지고있는 전형적인 인물,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를 형상으로 확증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인물들을 설정하며 그 인물의 격을 낮추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더욱 높이는 방법으로 형상하여야 한다. 그래야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를 격이 높게 보장할수 있다.

그러므로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는 인물들을 전형화함에 있어서 리상화하여도 안되지만 사실에

충실한다고 하면서 기록주의적으로 형상하여도 안된다.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작품에서는 무엇보다도 수령과 전사들사이의 관계를 지시하고 복종하는 관계, 명령하고 집행하는 관계로 격식화하거나 기정사실화하지 말아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과의 관계는 령도하고 령도를 받는 관계인 동시에 사랑을 주고 받으며 운명을 보살피고 의탁하는 정치적보호자와 전사, 아버지와 자식사이의 혈연적인 관계로 얹혀지고있다.

그러므로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의 인간관계는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숭고한 의리와 동지애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수령형상창조에서 이러한 인간관계의 설정과 형상적해명을 우리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에서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들에서는 우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형상의 중심에 모시고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들 사이의 관계를 숭고한 인간학적 높이에서 전형화하면서 그 호상관계를 혁명적동지애의 관계, 진실한 인간관계로 맺어주고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감명깊게 풀어나가고있다.

다시말하여 수령과 전사와의 관계는 아름답고 고상한 공산주의적인간관계,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의 관계로 맺어지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에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형상될수 있는것은 인간관계설정에서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되어있기때문이다.

시련에 찬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맺어지는 수령과 전사와의 관계는 사령관과 병사의 실무적인 관계나 도덕적인 상하간의 직위관계로 될수 없다.

수령과 전사와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령도를 하고 령도를 받는 관계인 동시에 사랑을 주고받으며 운명을 보살피고 의탁하는 정치적보호자와 전사, 아버지와 자식사이의 혈연적인 관계로 형성되어야 하는것이다.

수령이 전사들과 인민들을 끝없이 사랑하며 그들의 자주적인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하는것은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는 수

령으로서의 고귀한 품모이며 수령단을 믿고 따르려는 전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로 된다.

위대한 우리의 수령님은 전사들과 인민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그들이 성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영생하도록 이끌어주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따듯이 보살피주며 인민들을 굳게 믿고 육친의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신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수령님께서 지니신 위대성이 있고 위대한 인간적품모의 가장 숭고한 높이가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전사와 인민들에 대한 끝도 한계도 없는 위대한 사랑, 크나큰 믿음이 있기에 전사들과 인민들은 운명도 미래도 다 수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것이다.

우리의 수령님과 전사, 인민들사이의 관계는 천 부모와 천자식사이처럼 자그마한 간격도 없이 사랑과 정으로 맺어지고 얹혀지면서 일심동체가 되는 혈연적관계의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은 바로 수령과 전사사이의 이러한 특징적인 관계를 형상으로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그러므로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모든 장편소설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인 동시에 아버지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삶의 진정한 길을 비로소 찾는 곡절많은 인간들의 력사, 위대한 수령과 전사, 인민들 사이의 혈연관계의 산 력사로 되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 《준엄한 전투》에서의 위대한 수령님과 오중흡련대장의 관계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오중흡은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신임과 총애를 받으며 배잠뱅이청년으로부터 유격대의 유능한 지휘관으로 자라난 수령의 충직한 전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오중흡련대장사이의 관계처럼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켜주는 그러한 인간관계는 그리 흔치 못하다.

작품에서는 이 류달리 특징적인 관계를 형상으로 구현하는데 성공하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오중흡을 언제나 자신처럼 믿으시고 가장 어려운 때면 제일 먼저 그를 찾으시고 가장 기쁜일이 생겨도 누구보다 먼저 그를 찾으시며 그가 무슨 일을 조직하였다면 벌써 마음을 놓으시고 자신의 의도대로 다 잘될것이라고 꼭 믿으신다. 하기에 수령님께서서는 돈화원정시에 집요하게 달려드는 적들을 때버릴 위험하고도 어려운 임무를 그에게 주시며 그의 얼굴을 보시고 구체적인 전투조직이 다 되어있음을 직감하시는것이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한가위를 앞두고

소문도 없이 적들을 치고 명절물자를 마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법석 떠들었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 동무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라고 조용히 말씀하시는 집약된 형상을 통하여 혈육의 정으로 얹혀진 수령과 전사사이의 특징적인 관계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단 한마디의 말씀속에는 수백수천마디의 말로써도 다 대신할수 없는 전사에 대한 사령관동지의 믿음과 사랑이 실려있다.

소설에 형상된 위대한 장군님과 오중흡련대장의 호상관계는 눈물없이 읽을수 없는 감동적인 화폭으로 빛나고있다.

10년세월 부모, 처자, 형제들을 혁명에 다 바치고 혈혈단신으로 병사로부터 소대장, 정치지도원, 중대장을 거쳐 련대장으로 자라난 천위전사 오중흡에게 베푸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 오중흡의 충성과 효성의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깊다.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고 적들의 포위속에서 소대를 구출하던 오중흡이 직접 기관총을 잡고 탄피가 발등을 덮도록 적을 싸갈기다가 손에 화상을 당하는 오중흡, 그것을 대뜸 알아보시고 그가 병원으로 가라면 듣지 않을것 같아 자신을 대신하여 성립의 문병을 하게 하심으로써 후방병원에서 치료받게 하시는 사령관동지,

그것으로 하여 가슴속에 더 큰 충성의 불덩어리를 안게 되며 언제나 전투에서는 돌격의 앞장에서는 오중흡.

그때마다 우리 혁명군에 련대장이 몇명이나 된다고 전투때마다 번번이 폭약을 안고 적포대에 뛰어 들며 성벽우에 걸쳐앉아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총을 휘두르는가고 준절하게 타이르시는 위대한 장군님.

수령과 혁명전사의 숭고한 의리를 보여주는 이러한 형상은 오중흡의 희생장면에서 절정을 장식하고 있다.

륙과송전투에서 적들의 지하포대입구에 장약을 하다가 놈들이 올려쪄는 총탄에 오중흡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의 몸마저 지령하지 못하시며 먼저 간 그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시는 사령관동지.

무표정한 전사의 얼굴을 보고 또 보시며 동무를 이렇게 물을줄을... 조국땅도 아니고... 두만강기슭도 아닌... 머나먼 이 북만의 얼음땅밑에 널 한장 깔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물을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하고 하시면서 우리 중흡이는 왜놈들 수백만과도 바꿀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사령관동지.

사령관동지께서는 자신들은 굶으면서도 동지들을 위해 먹을것을 배낭에 지고다닌 동무들, 저는 혈벗으면서도 우리에게 옷을 마련하여준 동무들, 사령부가 어데 있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수 있는 것도 입을 꼭 다물고 기꺼이 교수대에 오른 혁명전사 한사람, 한사람을 가슴뜨겁게 회상하시면서 육과송전투에 이어 오중흡련대장의 복수전으로 불려

일으키신다.

소설은 언제, 어떤 환경속에서도 일편단심 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들어모셨으며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한 충직한 전사, 언제 어디서나 장군님의 명령을 한치의 드립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였으며 사령관동지의 의도를 심장으로 깊이 파악하고 정확히 집행하였을뿐아니라 사령관동지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그대로 따라배워 언제나 대원들의 앞장에 섰고 요구성을 높이면서도 미더운 만형구실을 한 오중흡을 충신의 귀감으로 형상하는데 성공하였다.

소설은 또한 전투에 들어서면 사자같았지만 알뜰한 부대관리 정신으로 대원들을 교양했고 군중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어려운 난관을 뚫고 승리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한 친위전사의 불멸의 형상을 통하여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 수령을 보좌하는 인물의 성격을 잘 형상할데 대한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인 《고난의 행군》, 《두만강지구》에서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형상을 통하여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 수령의 주위에는 수령과 고락을 같이하는 충신의 전형이 서있어야 한다는 수령형상창조의 본성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일찌기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차광수, 김혁을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한 자랑스런 로정은 처음부터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충신의 전형들이 수많은 자라난 충실성의 빛나는 력사였다. 이 영광스러운 력사에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김정숙동지와 같은 충성의 귀감, 빛나는 전형들이 있다.

장편소설 《두만강지구》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조국으로 진군하던 력사적시기 친위전사로서 사령관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품모가 빛나는 형상으로 감동깊게 형상되고있으며 그 불멸의 형상을 통하여 수령과 혁명전사사이의 관계는 믿음과 충성, 사랑과 효성으로 특징지어진다는것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확충하고있다.

작품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지켜 한몸을 서슴없이 방패로 내대시는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비롯하여 장군님의 의도를 그대로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행복, 삶의 보람의 전부로 여기시고 장군님께서 구상하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불멸의 형상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재현한 감동적인 화폭들이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 정갈한 물을 대접해드리기 위해 모든 대원들이 조국땅에 안긴 기쁨과 행복에 겨워 마음껏 덩굴고있을 때에도 남모르게 숙영

지에 우물을 파고 한개, 두개 정성껏 씻은 조약들을 깔아놓으시며 무상의 기쁨을 안으시고 무수해, 청취같은 봄나물을 캐시는 김정숙동지.

후남아주머니의 병을 고쳐주시려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대로 한가슴에 안으시고 귀중한 혁명동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시는 김정숙동지의 형상은 참으로 충신의 귀감으로 빛나는 친위전사의 생동한 모습을 부각한 것으로 하여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소설에서는 또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모범으로 혁명가들과 인민들을 장군님께 충직한 충신으로 이끌고 키워가시는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감동깊게 그리고있다.

대홍단벌전투에서 로획한 물자들을 나를 때 불과 열한명의 유격대원들로써 200명이나 되는 인민들을 갑자기 나타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김정숙동지의 전투지휘는 전투가 끝난 대홍단벌에서 울려오는 총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이 왜놈들끼리 싸움을 붙여놓으신 사령관동지의 기묘한 전술임을 확신한 그 신념에 의해 마련되고있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사이의 맺어진 숭고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수령과 전사사이에 아름답게 피어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의 산 모범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백두산 기슭》에서는 장군님에 대한 항일혁명투사들의 다함없는 충성심이 어떤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친위전사들인 련대장 강세호, 경위중대장 리복철, 정치공작원 리경준의 형상을 통하여 보여주고있으며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는 7련대장 오중흡, 8련대정치위원 리철범, 경위중대장 배정식 등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의 빛나는 형상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키우신 친위전사들의 형상을 통하여 공산주의적인간의 새로운 전형들, 참된 인간들의 빛나는 전형들을 탄생시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인간적위대성에 대하여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다.

여기에 바로 수령형상창작에서 새롭게 시도된 인간관계설정의 특징이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에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맺어진 인간관계들이 고정격식화되어있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활적으로 그리고 개성적으로 맺어지고있으며 그 어떤 실무적인 관계나 사업상의 관계, 상하간의 군률관계로 단순화되어있지 않고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깊이있게 맺어지고 풀려나가는것으로 매우 진실하게 형상되고있다.

인간관계의 이러한 특징으로 하여 총서작품들에서는 위대한 인간생활의 구체적인 측면들에서 발현되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전사들에 대한 크나큰

민음과 배려, 인민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 복무, 고결한 혁명적동지와 숭고한 의리, 대해갈은 포용력과 넓은 도량 등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품모를 훌륭히 형상하고있다.

순수한 군사상의 실무문제나 상하간의 관계, 전투 등의 라렬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이신 장군님의 인간적인 미덕, 인간적인 료리를 밝혀낼수 있는 위대한 인간생활을 깊이있게 탐구하고 형상한 여기에 바로 총서의 작품들이 성공할수 있는 비결의 하나가 있다고 할수 있다.

총서의 장편소설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탁월한 령도자, 위대한 전략가로서만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심장을 안고 가장 열렬한 사랑을 체현한 민음과 사랑의 화신, 이 세상 그 어떤 위인과도 견줄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인간으로 형상하기 위하여 생활적으로 엮혀진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깊이있게 전개해나감으로써 장군님과 전사, 인민들 사이의 가장 숭고한 인간관계를 감동적인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이고 있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에서는 장군님께서 토지개혁이 실시된 유격근거지에서 몸소 발걸이를 하시며 농들의 《토벌》공세를 짓부셔나가는 생활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자신을 언제나 평범한 인민의 아들로 생각하시며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하시려는 장군님과 인민들의 관계를 보여준 기쁨진 장면으로서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오신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라는것을 확증한 불멸의 화폭으로 되고있다.

장편소설 《1932년》에서 가장 감동깊은 장면으로 펼쳐지고있는 소사하집장면의 빛나는 형상도 위대한 인간생활의 전형적인 세부를 탐구하고 위대한 인간들의 가장 숭고한 인간세계를 아주 진실하게 형상한데서 얻어진 귀중한 결실이다.

앓고계시는 어머니께 작별인사를 드렸으나 차마 발걸음을 떼실수 없으시여 집둘레를 몇번이나 도시는 장군님과 그 심정을 짐작하시고 엄하게 꾸짖으시는 강반석어머님,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분연히 경건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를 드리시고 다시는 만나볼수 없는 준엄한 혁명의 길에 오르시는 장군님모습.

이 극치의 예술적화폭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위대한 인간관계, 인간세계에 대한 생동한 재현으로서 우리의 수령형상작품에서 앞으로도 계속 심화시켜야 할 창작의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

그것은 이 실재한 생활의 생동한 예술적재현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효성을 가장 숭고한 높

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그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집약하고있을뿐아니라 혁명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데서 인간의 행복과 삶의 보람을 느끼시는 장군님과 강반석어머님의 숭고한 인간세계가 집중적으로 비껴있기때문이다.

장편소설 《은하수》에서는 옥중생활을 하시는 장군님께서 오빠의 일로 하여 몸이 몹시 축간 경주의 정상을 가슴아파하시며 어머님께로 그를 보내시는 이야기에서 그리고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에서는 장군님께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형직선생님의 유물인 명주바지저고리와 향기가 풍기는 짚팡이를 손수 따서 체포된 김혁에게 보내시는 이야기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간세계를 깊이있게 개방하고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하고 고결한 인간적품모를 깊이있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의 격에 맞게 특색있는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그 진실한 전개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인간세계를 참신하게 개방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총서작품들에서의 인간관계설정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서로 밀접히 련결됨으로써 사건선이 계승되고 따라서 사상주제적과제도 긴밀히 련관되어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매 장편소설들은 인물이 서로 련결되고 사건이 계승되어야 하며 주제적과제도 련결되어야 한다고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을 형상에서 빛나게 구현하고있기때문이다.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총서형식의 작품들에서는 서로 다른 작품들에 같은 인물이 더러 등장하고있지만 사건의 계승성과 사상주제적과제의 련관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총서 《불멸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 특성으로 하여 작품들에서 인물들이 서로 련결되고 사건이 계승되고 사상주제적과제도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에서는 또한 적대관계에 있는 부정인물을 그럴 때에도 그들의 힘을 강하게 보여주어 그것을 타승하는 수령의 위대성이 진실하고 감명깊게 안겨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훌륭히 형상으로 구현하는데서 높은 경지를 개척하고있다.

총서의 장편소설들을 100만의 일본관동군을 상대로 투쟁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로정을 사실 그대로 전형화하면서 부정인물들과의 관계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수령님의 위대성을 진실하게 펼쳐보이는 방향에서 설정되고 전개되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는 우리 당의

력사이고 혁명의 력사이며 그자체가 사람들을 끝없이 격동시키는 생활과 사건으로 엮여지고있는것만큼 력사에 없는 사실을 꾸며낼 필요가 없고 인위적인 인간관계를 추구할 필요도 없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의 중심에 모시고 수령님의 위대성을 사실 그대로 부각할수 있는 인물들과의 호상관계를 립체적으로 설정하고 깊이있게 형상하는데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보다 훌륭한 결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령을 형상한 문학작품은 수령의 위대한 품모와 불멸의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력사문헌적 의

의를 가지는것만큼 그에 맞게 중요인물의 관계와 사건줄거리를 비롯한 작품의 기본대를 력사적사실에 맞게 세우고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특히 수령님의 혁명활동로정과 수령님께서 기억하고계시는 인물과의 관계를 실지 있는 그대로 재현하여 형상의 진실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모든 문학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령 형상작품에서도 인물배치의 빈구석은 형상의 함정으로 되고 쓸데없는 인물의 설정은 형상의 덧으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우리 작가들은 인물관계를 빈틈없이 짜고 립체성을 보장함으로써 수령형상작품의 예술적풍격을 더 한층 높여야 할것이다.

가사

경사로워라 4월의 봄명절 외 1편

송찬웅

푸르른 봄하늘엔 새들이 날고
화창한 이 강산엔 꽃바다 설레네
영광의 자욱자욱 그 력사 새기며
인민들은 수령님께 축복을 드리네

만경대 봄빛홀려 새 세상 밝고
은혜론 해빛넘쳐 내 조국 빛나네
사랑의 자욱자욱 그 은덕 새기며
인민들은 수령님께 큰절을 드리네

산너머 파도너머 세상끝까지
주체의 밝은 태양 누리를 비치네
불멸의 자욱자욱 그 위업 새기며
인민들은 수령님께 축원을 드리네

경사로워라 4월의 봄명절
축원의 노래소리 하늘땅 넘쳐라

하늘같은 그 은덕을 노래부르네

하늘봐도 우리 하늘 해빛넘치고
땅을 봐도 우리 세상 행복넘쳐라
푸른 하늘 밝은 세상 펼치여주신
수령님의 그 은덕을 노래부르네

가난서린 오막살이 설음가시고
인민들을 품에 안아 이끄신 사랑
그 품속에 천년소원 꽃으로 피여
사람마다 세상만복 누리며 사네

설음났던 조상들아 이야기하라
축복받은 후손들아 너도 말하라
사회주의 내 나라에 꽃피는 전설
세상천지 어디 가서 다시 찾으랴

아 수령님 베풀어주신
하늘같은 그 은덕을 노래부르네



《강철도 산화되면 변하는 법이다. 인간은 강철도 아니거니와 그 강철보다 약하고 변이성이 많은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강철보다 훨씬 더 역세다고 말할수 있다. 강철은 자기 힘으로 산화과정을 막을 수 없지만 인간은 자기의 사상속에서 일어나고있는 변화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능력을 가지고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동요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 동요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데 있는것이다. 인간을 만물의 령장이라고 하는것은 바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줄 아는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있기 때문이며 혁명가를 위대하다고 하는것은 바로 그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줄 아는 강의하고 창조적이고 희생적인 인간들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2)중에서

수령님 바다길로 오실줄이야

김병두

우리 어로공들을 만나시려고
동해의 어촌 작은 포구에
수령님 오실줄이야
차마 바다길로 오실줄이야

그날 그 아침 수령님 오신다기에
손에손에 꽃다발 들고
이제나 저제나 영광의 그 시각을
정문에서 기다렸소
곧추 뻗은 큰 길만 바라보며...

그런데 어찌 알았겠소
수령님 바다길로 오실줄이야
그날따라 파도 사나운데
천만뜻밖에도 바다길로 오실줄이야

수령님 모신 이런 경사 처음이라
수천년 바다에 살던 갈매기들도
소소리 나래쳐올랐소
억만년 푸르던 바다도 더욱 푸르리 춤추었소

바다가 험하고 바람이 찬데
위험한 바다길로 오셨다고
송구스러워 어쩔바 모르는 일꾼들과 어로공들에게
수령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소

벌에 사는 농민들의 심정을 알자면
이슬차며 논두렁길 걸어보야 하듯이
바다에 사는 어로공들의 심정을 알자면
사나운 파도를 헤쳐보야 한다고 ...

아 어버이 그 사랑에 목메여
나많은 어로공들도 포구의 아낙네들도
행복의 이슬로 눈굽을 적시었소
수령님 사랑넘친 바다를 알았소

그날의 작은 포구에도
전번의 세월은 흘러
잔교에는 산악같은 먼바다 배들이
풍어기 날리며 닻을 내렸소
바다기슭엔 행복의 창문들이 비끼고
새 방파제가 두팔 벌리며 뻗었소

우리 어로공들의 꽃피는 생활을
수령님께 보여드리고싶어
그날의 저 배길을 바라보면
이 마음도 설레이고 넓은 바다도 설레이오
수령님 바다길로 오실가봐
사나운 파도를 헤치며 또 오실가봐...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헌시

알파두레

김일성 그이는 위대한 수령

그이는 창조와 건설의 빛나는 태양

그이의 탄생일은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명절

그이께 인사를 드리노라

축하를 드리노라

김일성 그이는 위대한 수령

그이는 세계의 중심 인류의 최고뇌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그이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으시라

김일성 그이는 위대한 수령

인간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보시고

인간의 지위를 최상의 높이우에 올려세우신 그이

현명한 그이의 사상에 감사를 드리노라

김일성 그이는 위대한 수령 세계의 령도자

그이따라 나가는 길에

위대한 승리가 있거니

진보적인류는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노라

(필자는 기네**김일성** 농업과학연구소 소장임)

김정일원수

존 나요가 무카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최고사령관

미국놈들 감히 덤벼든다면

탁월한 **원수께서** 철추를 내리시리

그이는 예지와 담력을 지니신 령장

군민이 그이를 따르고

군민이 그이의 두리에 뭉쳤나니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군대

위대한 원수

결출한 령장을 모신 군대

제국주의침략을 걸음마다 짓부시라

김정일 원수따라 전진하는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하리

우리 확신하노나

원수께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필자는 우간다 참보고공업대학 교원들의

주체사상연구소 책임자임)

비는 어떻게 밋었는가

인디아양의 검푸른 물결이 기슭을 치는 탄자니아의 수도 다르 에스 살람에서 서남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무연한 벌과 구름지대를 가로질러 승용차를 타고 8시간가량 달리면 이렇가시어구에 가닿게 된다. 여기로부터 포장도로를 벗어나 왼쪽으로 약 80리 떨어진곳에 마구릴와 농업생산협동조합이 자리잡고 있다. 이 조합은 《아루샤선언》이 발표된후 전국적으로 《우자마야》운동(농업협동체운동)이 벌어지던 1968년 10월초에 처음 25명의 농민들로 조직되었었는데 지금은 850여명의 농민들이 망라된 큰 우자마마올로서 탄자니아에서 모범사회주의촌으로 이름이 높다.

지난날 마구릴와촌은 오랜 세월 버림받아오던 사람 못살고장인 나무가 드물게 자라는 산림초원(싸반나)이었다.

싸반나에는 주로 가시가 많은 떨기나무들과 풀들이 많았고 거기에 바오바브나무와 아카시아나무들이 뒤엉켜져있어 밭조차 들어놓기 힘들었다.

강골짜기에는 전형적인 싸반나숲이 퍼져있었는데 여기에는 사철 푸른 열대숲이 우거져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자를 대고 선을 그은듯 규모있게 정리된 포전들에서 해마다 강냉이와 밀, 해바라기와 남새풍작을 거두고있다.

마구릴와사회주의촌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과전하여주신 조선농업기술자들의 성의있는 협조와 그곳 농민들의 창조적투쟁에 의하여 꾸려진 협동마을이다.

이고장 사람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감정을 안고 그이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하곤 한다.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는 그들은 지금까지 재앙이 생기면 하늘에 대고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빌거나 종족이 섬겨오는 신앞에 제물을 만들어놓고 화를 쫓아내는 의식을 자주 벌리곤 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누구도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재앙은 더 커지기만 했다.

외래침략자들이 이렇가시에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고장에 놈들이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

산불이 일고 큰물이 나고 가물이 계속될 때에도 신앞에 빌기만 하였다.

이처럼 자연앞에 무력했던 그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의 빛을 안겨주신 분은 바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마구릴와사람들에게 삶의 길인 주체사상을 안겨주시었고 친히 농업기술자들을 보내주시여 선진영농기술을 배워주도록 하시였으며 많은 선물까지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푸시였다.

마구릴와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생명의 은인이시며 그들을 구원해주신 구세주이시였다.

하기에 지금 마구릴와마을 사람들속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많은 전설들이 창조되어 전해지고 있다.

몇해전 어느 가을날이었다.

마구릴와사람들은 크나큰 흥분에 휩싸여있었다.

그해에 그들은 마구릴와 땅이 생긴이래 가장 큰 풍작을 이루었는데 이제 며칠후면 그 풍작이 든 한해 결실을 나누는 결산분배를 하기때문이었다.

사실 그해 농사는 놀랄만한 대풍이었다.

개미산의 15리안팎에 펼쳐진 200정보의 강냉이밭과 밀밭, 해바라기밭은 말할것도 없고 《제1호포전》으로 불리우는 네가비의 50정보 강냉이밭과 마구릴와에서 《곡창》으로 소문난 《제5호포전》...그 어디에나 땅이 꺼지게 알찬 열매들이 가득가득 실려있었다.

그들은 성수가 나서 결산분배장을 꾸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품이 많이 드는 일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인 탄자니아 북쪽에 있는 킬리만자로산(5,895m)을 형상한 곡식단가리를 쌓는것이였다.

여기에는 마을의 청장년들은 물론 늙은이와 녀성들까지 저저마다 앞을 다투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백두산처럼 일년내내 눈이 녹지 않아 만년장설을 머리에 띠고있는 킬리만자로산은 탄자니아사람들의 기상과 의지의 상징일뿐아니라 천상과 하계를 이어주는 신령스러운 산으로 여겨오는 성산이였다.

그렇기때문에 탄자니아사람들은 불행한 일이 생기면 킬리만자로산을 향해 행운이 오기를 기원하여 빌었으며 망국노의 처지에서 해매일 때엔 그 산에서 국운이 일어번지기를 고대하였었다.

그러므로 마구릴와촌의 농민들은 이 신성한 산인 킬리만자로산을 자기들이 농사지는 곡식으로 쌓는 일이 래세에 행복이 오기를 기대하는 엄숙한 종교례식과도 같이 생각되어 누구도 그 일에 빠지려고 하지 않았다.

일흔이 넘은 엘리오로인은 손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와서 곡식가마니 하나를 끝내 킬리만자로산을 쌓는 곡식난가리에 올려놓고야 말았다.

얼마나 보람차고 긍지스러운 일인가!

사실 그들은 독립후에도 오래동안 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어떤 해엔 유엔에서 주는 구제미까지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제손으로 농사를 지어 풍년로적가리를 쌓아놓고 결산분배를 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는가?

그들이 킬리만자로산을 형상하여 곡식난가리를 쌓는데는 물론 여러가지 의미가 있었지만 그중에는 자기들이 농사지은 낱알을 다 쌓으면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킬리만자로산만큼이나 크다는 자랑도 있었다.

마구릴와사람들은 농업기술자들을 보내주어 천지개벽을 일으켜 해마다 대풍이 들게 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자기들의 흠모와 감사의 정을 담아 편지를 올리기로 하였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을 골라 밤을 새워가며 한자한자 감사의 편지를 써나갔다. 마침내 편지도 완성되고 분배장에 곡식난가리를 쌓는 일도 끝나가게 되었다.

결산분배날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누구보다 바쁜 사람은 부락위원장 말리바였지만 이번 마구릴와농업생산 협동조합의 결산분배는 탄자니아 혁명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나온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그리고 린접나라들에서 온 손님들과 많은 관광객들까지 초대하여 진행하는것만큼 결산분배행사준비를 도와주려 내려온 농업성의 책임일군인 비알로 역시 짝이 없이 돌아갔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가지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지금까지 모든 일이 다 잘되어 결산분배를 성대히 할수 있는 준비가 끝나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장구름이 덮이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열대철바람기후인 이 지방에서는 년중 한번의 장마철이 있었는데 그것은 11월부터 다음해 4월사이 에 있군 하였다.

더우기 이 지방은 년평균 강수량이 250밀리로서 그리 비가 오지 않는 고장이었다.

그래서 조선기술자들의 협조를 받아 본부락옆에 루피지장으로 흘러가는 자그마한 개울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어 발판개를 함으로써 가물을 모르는 수리안전담으로 만들었던것이다.

그런데 이상기후현상으로 때아닌 10월에 장마때처럼 비가 그칠줄을 몰랐다.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 밖에서 결산분배를 한다는것은 곤란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날자를 뒤로 미루어 비가 멎기를 기다렸다가 진행할수도 없었다. 조합원들끼리 결산분배를 한다면 몰라도 국가적성격을 띠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적인 규모에서 진행된다고 볼수 있는 행사여서 쉽게 결심을 내릴 문제가 아니였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늘만 원망하며 앉아있을수는 없었다.

비가 오거나말거나 농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곡식난가리를 쌓았다.

비닐박막으로 쌓는 족족 낱알가마니를 덮기는 하였으나 짐을 지고 오르는 농민들이 비물에 미끄러져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일이 자주 생겼다. 어떤 때에는 사고가 생길 위험성도 있었다.

그래도 그들은 마냥 좋기만 했다.

엎어지면 오히려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며 좋아하고 떠들어대군하였다.

온몸이 물침봉이 되었으나 얼굴에선 노상 웃음이 가셔지지 않았다.

농민들이일하는 모습을 창밖으로 내다보던 비알로는 저도 모르게 눈곱이 젖어왔다.

(저렇듯 기쁨에 떠있는 농민들에게 결산분배날자를 뒤로 미루자고 하면 과연 저들이 어떻게 나설것인가? 그렇다고 비내리는 속에서 술한 손님들까지 청해놓고 행사를 할수야 없지 않는가?)

비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쨌으면 좋을지 도무지 용단을 내릴수가 없었다.

그러던 비알로의 뇌리에는 번개치듯 한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1983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5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탄자니아 당 및 정부대표단의 한성원으로 조선을 방문한적이 있었다.

방문기간 그는 보는것 듣는것마다가 새롭고 놀라울뿐아니라 더우기 농업전문가로서 억년왕가물도 천년홍수도 척척 다스리며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하는 이 나라를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듯한 심정으로 대하였다.

무슨 힘이 저렇듯 이 나라에 위대하고 거대한 변혁을 이룩하였는가?

그는 조선의 모든것을 이런 눈으로 보았다.

그런데 명절을 사흘 앞두고 때늦은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방송에서 알리는 일기예보에 의하면 조선뿐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린접나라들까지 다 비가 내리는데 그것도 장마비처럼 며칠동안 계속 내린다는것이였다.

조선에서는 자기들의 국경절을 100만 대시위로 성대하게 맞이하기 위하여 오래동안 준비하여왔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내리니 조선사람들은 물론 손님으로 온 외국사람들까지 안타까와하였다.

조선에서 어떻게 행사를 할것인가?

은 세계가 주시하고있었다.

세계5대륙의 116개 나라에서 온 270여개의 대표 단성원들은 명절을 하루 앞둔 전날밤 자기들의 숙소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비가 멎지 않는데 어떻게 행사를 할것인가 하고 걱정어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명절당일날새벽 비는 멎지 않았는데 거리엔 행사장으로 가는 사람들로 붐비고있었다.

비알로는 속으로 비가 와도 행사를 하려고 하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날 아침 안내원의 안내를 받아 광장주석단 초대석에 가앉은 비알로는 눈이 동그해졌다. 그렇게도 지긋게 내리던 비가 멎은것이였다.

더욱 비알로가 놀란것은 정각 9시 광장 주석단에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 나오시자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고 그리로 눈부신 해빛이 쏟아져내리는것이였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인민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서계시였다.

이 어찌 하늘의 조화가 아닌가. 후에 비알로가 안 일이지만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국경절 경축 100만 대시위를 직접 조직지도하시였다.

명절 당일날 비가 멎은것도 그이께서 천기조화를 일으키시여 구름을 밀어내고 해빛을 이끌어오신것이였다.

《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천기를 타고나신분 이시구나, 하늘이 낸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천기조화를 부리실수 있을가.》

비알로는 100만 대군중시위에서 조선의 그 힘의 비결을 가슴으로 느꼈다.

바로 그때 일이 머리에 떠오른 비알로는 흥분에 들떠 사무실문을 나섰다.

그는 우산도 받지 않은채 얼마 멀지 않은곳에 자리잡고있는 독립가옥으로 향했다.

거기엔 조선농업기술협조단이 들어있었다.

그는 결산분배준비를 잘 도와주고있는 조선기술자들과 이 문제를 의논해보고싶었던것이다.

마침 조선기술자들은 모두 한방에 모여있었는데 그들은 마구릴와에서 생산된 여러 품종의 곡식이삭들을 가운데 놓고 한창 무슨 토론인지 벌리고있었다.

조선기술자들은 비를 흠뻑 맞고 들어서는 비알로를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며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비알로선생, 결산분배준비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기술협조단 단장이 먼저 물었다.

비알로는 무심결에 굵은 비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데 밖을 훌끔 내다보고 나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준비는 거의 다 되어가는데 저렇게 비가 자꾸 와서 어쨌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걱정마십시오. 준비가 다 되었으면 계획한대로 래일모레 결산분배를 합시다.》

단장은 생각할 짬도 없이 제격 대답하였다.

비가 오는것 같은것은 별로 개의치도 않는것 같았다.

비알로는 신심에 넘쳐 단장의 말이 우연한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 그의 생각을 알고있는듯 단장이 이렇게 말했다.

《얼마전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저희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으시다가 마구릴와농업생산협동조합에서 풍작을 이룩하고 결산분배를 한다는것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이께서는 매우 기쁜 일이라고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결산분배를 정한 날자에 성대하게 잘하도록 성심껏 도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이께서...》

비알로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나 크나큰 격정이 그를 휩쓸기때문이었다.

그는 마음이 폭 놓이였다.

그이께서 보살피시는 결산분배행사인데 무슨 격정이 있으랴.

드디어 결산분배날이 왔다.

그날 새벽 갑자기 검은구름장들이 개미산쪽으로 몰려가더니 밤까지도 억수로 쏟아져내리던 비가 비발이 점점 가늘어지다가 툇 그치는것이였다.

아침이 되자 어느덧 구름장사이에서 해살이 쏟아져내렸다.

《야!-》

여기저기서 환성이 터져올랐다.

사람들은 웃고떠들며 저저마다 결산분배장으로 달려갔다.

(그이께서 천기조화를 쓰시여 오던 비도 몇게 해주셨구나!)

비알로는 경건한 마음으로 멀리 동쪽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말짱하게 개였다.

비물에 씻기운 정향나무잎들이 밝은 해빛을 받아 설레였다.

마구릴와 농민들은 물론 외국의 손님들과 관광객들도 신기하여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이 파랗게 개이고 백금같은 태양이 눈부신 빛발을 뿌리고있었다.

어느덧 경사로운 결산분배모임이 시작되었다.
분배장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대한 경모의 정
으로 세차게 굽이쳤다.
조합원들은 손에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다.

우리를 구원해주신분은 친애하는 **김정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분도 친애하는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우리의 은인
김정일 김정일 우리의 태양

마구릴와농업생산협동조합의 결산분배는 성대하
게 진행되었다.
그날밤 조합원들의 집집마다에서는 오래동안 불

이 꺼질줄 몰랐다. 그들은 낮에 있던 신기한 일을
두고 밤새워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싫지 않았다.

그후 이날에 있던 일은 날개를 달고 탄자니아는
물론 이웃나라들에까지 파다하게 소문이 퍼져갔다.

이 소문이 퍼진곳마다엔 전설이 생겨났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천문지리에 능통하
시여 천기를 마음대로 조종하신다.》

《큰물이 나가나 왕가물이 들 때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에 대한 노래를 부르거나 그이의 존함을 세번
이상 부르면 비도 멎고 가물도 막을수 있다》고.

그런데 더욱 신기한것은 그후 그것이 죄다 사실
이라는것이 여러번이나 증명되었다는것이다.

위대한 메아리

윤기찬

들으면 또 듣고싶어
다시 또 가슴 설렘며 귀 기울이는
그이의 음성
오늘도 우리 심장에 울려온다
그날의 음성

안도의 수림을 떠나온
무적의 대오
그 영광의 열병식장에 울려퍼지던
최고사령관동지의 찌렁찌렁한 음성이여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열화처럼 폭풍처럼
끝없는 격정의 파도를 일으킨 그 음성
오늘도 울려온다
그이따라 승리로 이어가는
우리의 가슴을 흔들며

하늘땅을 뒤흔들던
그날의 그 음성에서 사람들은 들었다
안도의 수림길을 헤치시며
항일대전을 선포하시던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그 음성을

사람들은 들었다
전승의 광장에 울려퍼지던
영웅조선의 환호소리를!

지구를 진감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 승리의 만세소리를!

그 음성
그 메아리에
인류량심의 환호성은 이어지고
제국주의 군화발굽이 얼어붙었거니

그날의 그 음성 안고
천만대오 발맞추어 나아간다
형형색색의 불먼지
지구우에 휘몰아쳐도
한순간도 흐리우지 못한다
이 땅 이 하늘에

오 그날의 그 음성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위대한 령장의 장엄한 선언!
무적의 장군을 길이 받들어모신
우리 인민의 위력을 담보하는 메아리!

아, 그이의 위대한 그 음성
세월을 넘어 년대를 넘어
오늘도 끝없이 메아리쳐간다
강철의 령장 **김정일** 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의 영원한 신념과 의지의 선언으로!
필승불패의 메아리로!

장 군

신흥국

1

봄우뢰가 울었다!
 기세찬 일만산악을 넘나들며
 백두산호걸 남아들이
 목숨! 목숨! 하면서 지키던 붉은기아래
 그이 첫 고고성을 터뜨리실 때-
 민족해방의 승리가 마련되던
 백두밀영사령부의 프락너머
 밀림을 흔들고 산악을 깨치며 저 멀리 한나에 닿던
 신비의 그 소리!
 순간 쨍! 얼음장들은 갈라터졌다
 소백수 맑은 물은 푸른 봄기운을 싣고 흐르고
 만병초꽃잎은 향기를 날렸다
 부드러운 송라를 날리며
 아지곶까지 푸른 기운이 뻗친 거목들은
 가슴풀고 숨가빠 산천에 외웠더라
 -조선아! 광명성탄생을 알린다
 먼 천리 또 천리 ...
 인민의 마음은 진대를 날아넘으며
 내리는 눈송이에 실려
 어느새 사령부의 이 프락에 와닿고
 달아오른 총가목을 틀어쥐고
 마중오는 희망의 그 봄과
 힘껏 손잡아보는
 우등불가 대원의 뺨은 빨갭게 익고...
 오 백두아들의 첫 고고성소리!
 그것은 하늘이 내린것이던가
 아니면 명령이던가 선언이던가
 백두산을 안고 일어서는 인민의 가슴속에
 웃음을 새겨 승리를 그려
 미래를 향하여 신심높이 정렬시켰으니
 그이는
 탄생, 그 순간부터 장군이시였다.

2

50년대! 불에 불이 튀던 ...
 그때 우리 장군은 편지를 쓰시여 확신하시였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최전선 수안보까지 나가계시는 수령님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 승리하고있다고!
 폭탄자리를 메운 발이랑에서

기어이 익어가는 조이작들을 쓸어보시며
 하루에도 그 몇번 끊어지는 철교우에
 통과! ~푸른 신호등을 어김없이 걸며
 젖고 타는 눈빛들과 함께 계시며
 수령님께 삼가올린 편지
 그것은 미체의 한톤짜리 폭탄도
 이 나라 발이랑 하나 허물수 없고
 가교사로 웃으며 들어서는
 아이들의 글소리를 멈춰세울수 없음을
 굳게 확신하신
 전쟁에 대한 그이의 결론
 바로 인민을 믿고 계신 수령님 이끄시고
 수령님께 충직한 인민이 수행하기에
 우리는 지금 승리하고있어라!
 그이는 전쟁승리를 선포하실수 있었나니!
 오, 누구나 할수 있었던가
 피를 흘리며 싸우던 엄혹한 그때
 세계의 그 어느 위인도 이룩난 력사가도
 내릴수 없었던 중대결론
 패배의 쓴맛을 느끼며
 항복서에 처음으로 도장을 찍던 그때도
 미체의 삼성오성들은 몰랐다.
 왜 졌는지? 그 힘이 무엇인지?
 더우기 그 힘을 안고계신 장군이 있었다는것을-
 죽었으면 혼백들이
 살았으면 늑다리백발들이
 오늘에 그것을 다시 알고 경악질색하며 전율할
 그 백승의 검을 찾아쥐신
 장군의 슬기는 백두에서 받으시였다

3

수목이 움트고있었다
 북극의 얼음산이 꺼져내리듯
 사회주의가 무너졌다고
 랭전이 끝났다고 떠들던 포악한 제국들이
 힘과 전략을 묶어
 동방의 사회주의보루를 쳐엿앨
 싸움을 걸어오던 그 때
 전쟁인가? 아니면 굴복하는가?
 지나는 바람조차 목을 움츠리던 바로 그때
 장군은 밝게 웃으시며
 장원수의 푸른 잎사귀를 만지시고계셨다

따뜻한 해빛이 미끄러지는
그이의 부드러운 손길우에
연록색잎은 몸을 맡기고 무엇인가 속삭이는듯 ...

장군은 가보고싶으셨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키우시는 그 처녀에게도
전우들을 구원하고 웃으며 간 그 전사의 집에도
얼마나 좋은 인민인가
불이 되라면 불이 되고
영웅이 되라면 영웅이 되는 인민
부모없는 아이들이 생기면
순간에 처녀도 어머니가 될줄 아는 ...
오 이렇게 처녀들은 아름답고
이렇게 사나이들은 강한 나라
그이 품어 키우시고도
모르신듯 잊으신듯 말씀하셨다
-그 동무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줍시다
그리고 신문, 방송으로도 널리 소개하시오!
오, 기쁘시여 기쁘시여 하시는 그이의 말씀
봄빛타고 폭음을 누르며
탄약보다 먼저
최전연초소들에 날아갔고
새날의 첫 해살처럼
집집의 창가에 흘러들었다
순간
5백만의 젊은 심장들은
총폭탄이 되어 안전띠를 풀었고
3백만의 소년단원들은
작은 주먹에 붉은넥타이를 풀어쥐었다
두메오지의 할머니도
보위색 배낭을 꾸렸다
인민은 장군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를 똑똑히 깨닫고있었던것이다
드디어 대전이 우리의 승리로 끝났을 때
세계의 안테나들은 이런 말을 날렸다
-장군의 담력으로 지구는 깨지기 시작했다!
허나 그날 장군은 인민을 찾으시여
감사를 주시고
이 봄날이 무성하는 계절로 가고있음을
속삭여주시었다

4

봉쇄! 봉쇄!
우리앞에
절벽이 막혔다고 세계는 생각했다
허나 그것을 작은 발로 딛고섰는가
이마우에 손채양을 한 아이

멀리 앞을 내다보는 거리로
사람들은 즐겁게 웃으며 간다
우리 장군의 사색이 이미 걸어진 길
우리 장군의 의지와 신념이 이미 다져놓은 길
사회주의가 키우는 화원이 반겨웃는
지평의 그 끝을 가깝게 바라보며
인민은 신심높이 나아간다
새벽에서 새벽까지
오늘에서 먼 래일까지
세월이 따르는 그이의 사색의 끝은 어디?!
력사가 흐르는 그이의 사업의 한계는 어디?!
막아서는 난관과 폭풍을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일심의 무기로 부시고
《평양선언》의 불멸할 기치로
인류의 량심을 따라 세운
우리의 장군은
다만 장군이시던가
태양이 떴다!
약한자에게도 선한자에게도
끌고루 빛을 주는 하늘의 태양이 아니다
인민에겐 흘러넘치는 사랑을
원췌에겐 하늘도 찢는 벼락을
그이는 인민을 위해 떠오르신
사회주의 태양!
우리의 앞길엔 태양이 빛난다
그 빛발 따르면 약졸도 어린 마음도 없다
오 그 이름은 백승!
그 누구도 계산할수 없는
그 누구도 계산할수 없는
무궁하고 만능인 힘을
바로 주체로 인간세상을 키운
그이는 장군 **김정일!**
온 세상이 글로 노래로 그 이름을 전하는
그이는 태양 **김정일!**
5천년을 솟아 끄떡없었고
백두산정 백두에서 오시여
백두산조국을 건설하시고
백두산민족을 키우신
바로 그 백두와 같으신
전설의 위인을 높이 모신
민족의 자랑이여 영광이여
그때문에 백두산 하나의 큰 봉우리에
우리 조국의 하늘가에
인민은 새긴것 아니던가
정일봉! 빛나는 태양의 이름을
오호- 불사하라 우리 생명의 빛발
김정일장군 만세!
그 이름으로 빛발치는 사회주의 만세!

투철한 숭배관을 심어주는 심장의 송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삼가 올린 리인모동지의 시와 가사를 읽고-

리동수

놀라운 찬탄과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고있는 리인모동지의 절절한 심장의 송가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숭배심과 신뢰의 감정을 최상의 높이에서 특색있게 노래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올해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전원회의결정관철에 힘있게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총진군운동을 힘있게 고무하여주고 있다.

현시 《나의 운명을 두고》, 《사랑에 대한 생각》, 《신념과 의지의 찬가》, 가사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는 리인모동지가 해방후 새 조국의 품속에서 당과 수령의 은혜로운 새 생활을 시작하던 평화로운 나날과 저주로운 남쪽땅에서 수인의 몸으로 몸서리치는 옥중고초를 겪어가던 나날에 체험한 돌도 없는 인생진리, 피로 얼룩진 생활의 교훈을 주옥같은 시줄로 엮어 세상에 내놓은 력작들이다.

리인모동지의 현시와 가사는 사람들에게 혁명적 수령관 다시 말하여 어떤 자세와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수령을 받들어모시고 따라야 하는가를 숭고한 모범으로 가르쳐주고있다.

참으로 리인모동지가 말로 곡절많은 시련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면서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존경하고 받들어모신 충신이며 효자이다.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투철한 숭배심을 따를 만한 사람은 흔치 않다. 리인모동지가 해방후 우리 당의 교양을 받으며 자란 기간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우리들보다 높은 정신세계를 소유하고있다.

지난 기간 우리 시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한 수많은 시들을 썼지만 아직 리인모동지가 쓴 현시나 가사와 같이 절절한 흠모심과 투철한 숭배심을 고취하는 그렇듯 특색있고 격동적인 시를 쓴 시인은 많지 않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문무총효를 겸비한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입니다. 그는 탁월한 사상리론가, 정치가이고 군사전략가이며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고 효성이 지극한 충신, 효자의 귀감입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비상한 정력과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시대를 빛내여나가는 희세의 걸출한 령도자이실뿐아니라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효성이 지극한 충신, 효자의 귀감이시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 모두의 행복과 미래의 상징이시며 우리 운명의 구세주이시다.

현시작품들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에 대한 충신의 다함없는 칭송의 세계를 철학적으로 웅심깊게 노래하고있다.

시 《나의 운명을 두고》에서 필자는 죽은 자를 산자로, 지옥행을 락원행으로 바꾸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량없는 은정에 대하여 노래하면서 인생과 운명에 대한 심오한 철학을 진실하고 생활적인 서정으로 소박하게 펼치고있다.

하기에 내 오늘

운명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저의 운명은 자애로운 당신

민족과 인류의 운명도 위대한 당신

저는 심장으로 말합니다

거룩하신 **김정일**, 당신은

저의 운명의 《신》이십니다

돌도 없는 우리 운명의 구세주이십니다

진정 개인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 인류공동의 운명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존함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사랑속에 서정적주인공은 시들어버렸던 몸에 인생의 청엽을 되찾아 이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났다.

그는 이런 행운을 두고 신화속의 《운명의 신》이 베풀어준 은총이라고 말하는 남쪽사람들의 말을 부정하면서 그것은 바로 《신》이 아닌 위대한 인간 **김정일** 동지께서 주신것이라고 소리높이 웨치고 있다.

이런 운명적인 체험에서 우리나라의 심장의 교훈을 생활그대로의 진리로 엮어놓은것으로 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운명의 《신》이시며 구세주이시라는 사상, 이 시의 종자가 그렇듯 값높고 진실하게 안겨오는것이다.

시 《사랑에 대한 생각》은 분단선너머 사랑과
담을 쌓은 《악의 세상》에서 사랑이란 말조차 잊
고 《지팽이인생》으로 시들던 몸을 위대한 사랑으
로 겹겹이 감싸안아주고 내세워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사랑의 화신》으로 노래하
면서 그이께서 안겨주시는 사랑에 대한 철학을 응
심깊은 서정으로 펼치고있다.

시에서는 그이께서 베푸시는 위대한 사랑의 힘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눈물이 말라버린 이 늙은 몸도
고마워 울게 하는 사랑이옵니다
조국이 무엇이고 혁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사랑이옵니다
리기도 모르고 깨끗하게 살게 하는 사랑이옵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칼도 이기게 하는 사랑이옵니다

그래서 쉽게 외울수 없는 사랑
그래서 가뭇게 받을수 없는 사랑
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여
열렬한 사랑의 인간 당신은
위대한 사랑의 화신이시옵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체험을 극단과 극단에서 판
이한 양상으로 눈물겹게 겪어본 사람만이 그 참뜻
을 느낄수 있고 표현할수 있는 정서적토로이다.

실로 그 크기와 무게를 가늠할수 없는 무한대한
사랑, 조국과 혁명에 대하여,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하여 알게 하는 사랑은 《칼도 이기게 하는》
무적의 힘을 가진 참으로 위대한 사랑인것이다. 사
랑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이 시의 대답
은 바로 이렇게 주어지고있으며 그런 사랑을 베푸
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야 말로 《위대한 사
랑의 화신》이라는 형상적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
으로 이 시의 논리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있다.

세편의 헌시들은 한결같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를 우리 모두의 《운명의 구세주》로 높이 우러르
고 칭송하는 투철한 숭배관으로 관통되고있다.

시 《나의 운명을 두고》, 《사랑에 대한 생각》
에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운명의 구세주
로, 위대한 사랑의 화신으로 칭송하고 있으며 《신
념과 의지의 찬가》에서는 참된 신념과 의지의 꽃
다발을 친애하는 당신께 드리겠다고 격조높이 구가하
고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념이라 함은
세상에서 가장 굳센 의지라 함은
그것은 위대한 강철의 인간

김정일, 당신의것이옵니다

...

당신의 신념으로 역사가 흐르고
당신의 의지로 지구가 돌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이시여
참된 신념과 의지의 꽃다발을
이 로병은 영명한 당신께 드리옵니다

시에서는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내세워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하해같은 은정과 믿음에 송
구스러움을 금치 못하면서 죽어서도 못버릴 신념,
숨저도 꺾이지 않을 의지는 위대한 **김정일**, 당신께
서 주신것이기에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다름아
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편의 헌시는 다같이 친애하는 지도
자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하면서 그이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심과 숭배심을 심장깊이 간직
하고 끝까지 충성다할데 대한 심오한 사상을 시가
전편에 줄기차게 관통시킴으로써 혁명적 수령관,
투철한 숭배관을 확고히 체현해나가도록 고무해주
고있다.

2

세편의 헌시는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담고있을뿐
아니라 시형상이 완벽하고 예술적형식이 세련되어
있는것으로 하여 이채를 띠고있다.

세편의 헌시는 각기 운명과 사랑, 신념과 의지에
대한 각이한 문제를 취급하고있으나 혁명적수령관,
투철한 숭배관을 간직할데 대한 하나의 공통된 사
상으로 관통되고있다. 그러면서도 매 시편의 종자
들이 모두 새롭고 특색있게 탐구되고있을뿐아니라
철학적인 무게를 가지고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것은 이 헌시들이 이전 시작품들이 포착하지 못
했거나 해결하지 못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있다
는것으로 설명된다.

이전에도 물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리모두
의 운명의 상징으로, 그이께서 베푸시는 위대한 사
랑에 대하여 소리높이 구가한 시들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 헌시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결을 더 나
아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리모두의 운명의
《신》으로, 《구세주》로, 그이를 위대한 《사랑의
화신》으로 격을 높여 우러러 칭송한 시들은 일찌
기 없었다.

이러한 발견적인 시세계는 그이에 대한 숭배심을
절대의 높이에서 심장으로 체득하지 않고서는, 곡
절많은 운명과 빠져린 수난을 실상의 체험으로 겪
어보지 못하고서는, 끊임없는 사색과 진지한 탐구,
불타는 창작적열정을 지니지 않고서는 쉽게 찾아내
기 어렵다. 누구나 생활을 통하여 현실로 체득하고
있으면서도 밝혀내지 못한 삶의 진리를 단순한 원

리로 깨우치는 종자야말로 철학적인 무게를 안고있는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로 된다.

《우리 운명의 구세주》, 《위대한 사랑의 화신》이라는 헌시의 종자야말로 얼마나 새롭고도 웅심깊은 뜻을 함축하고있는가, 천금의 무게로 참된 인생의 가치, 삶의 진로를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주는 이시의 종자를 통하여 사람들은 헌시의 주인공처럼 더 높은 삶의 궤도에 들어서려는 강렬한 충동과 투쟁결의를 가다듬게 되는것이다.

《신념과 의지의 찬가》에 심어진 종자도 독창적으로 탐구되고 무게있게 심어진것으로 하여 깊은 감동을 준다. 시에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신념의 화신, 의지의 화신으로 내세워주신 서정적 주인공-로병의 웅심깊은 체험세계를 통하여 참된 신념과 의지의 화신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라는 심오한 종자를 밝혀내고있다.

시에서는 《당신의 신념으로 력사가 흐르고 당신의 의지로 지구가 돌기에》 《참된 신념과 의지의 꽃다발》》 영명한 당신께 드린다고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숭배심과 존경심을 절대의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 전사-충신의 고결한 량심에서만 울려나올수 있는 심장의 웨침이다. 여기엔 위대한 강철의 인간인 친애하는 그이께 영광의 꽃다발을 올리려는 우리 인민모두의 절절한 소원과 열망이 집적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철학적인 무게를 가지고 감명깊게 안겨오고있다.

세편의 헌시는 시형상이 진실하고 소박하면서도 절절한것으로 이채를 띠고있다. 헌시들에서 형상의 진실성과 소박성은 실재한 생활에 토대하여 현실속에서 우러나오고 사실과 체험에 기초하여 얻어진 생활을 분석함이 없이 그대로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는데서 연원되고있다.

해방된 새 조국에서 꿈같이 흘러간 5년간의 이인상깊은 나날들과 삭막한 남쪽땅에서 무서운 옥고를 치르던 몸서리치는 40여년의 기나긴 세월은 나라의 주인된 자주적인 인간의 참된 삶과 자유를 구속당한 불구의 인간의 저주로운 삶으로 상반되는 대조적인 생활을 통하여 심각한 극적체험속에 서정적주인공을 놓이게 하였다.

40여년세월

좁이 없는 삭막한 남쪽에서

사랑과 담을 쌓은 악의 세상에서

사랑이란 말조차 잊어버린 저였습시다

그러나 분단선에서부터 목이 메었습니다

사랑과 사랑이 저를 품어주었습니다

미처 알지 못한 그 사랑

어디서 오는것인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느꼈습시다

너무도 뜨거워 너무도 고마워

자애로운 **김정일**, 당신의 사랑인줄

인간의 자주적인 본성이 여지없이 짓밟히는 불모의 땅 남조선에서 갖은 옥중고초를 겪으면서도 곱힘없이 정의와 진리를 고수하여온 서정적주인공의 시련에 찬 나날은 참으로 형언할수 없는 고통을 그에게 들썩웠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마음속 기둥으로 의탁하고 죽음의 고비를 자랑스럽게 헤쳐온 귀중한 체험을 간직하고있었기에 그의 시들에 비낀 생활은 어느것이나 절절하고 눈물겹게 안겨오며 꾸밈이 없는 소박하고 진실한 형상으로 감명깊게 전달되고있다. 사랑과 담을 쌓은 악착한 세상에서 사랑이란 말조차 잊고 살던 그가 분단선을 넘는 순간부터 하해같이 밀려드는 사랑을 목메게 받아안으며 뜨겁게 느끼는 체험세계는 심장의 박동을 타고 굵이치는 걱정으로 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세편의 헌시는 또한 시어구사에서도 특색있는 점을 보여주고있다. 시적표현이 한결같이 소박하고 평이하며 간결하면서도 표현력이 풍부할뿐아니라 새롭고 이채로우면서 뜻이 깊게 형상되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시어들은 송가적특성과 양상에 맞게 정중하고 부드러운 색깔로 채색되고있으며 평이하고 소박한 표현들을 경어체형식에 담아 격이 있게 보여줌으로써 시의 품격을 잘 살리고있다. 특히 새롭고 특색있는 표현들을 대담하게 선택리용하면서 뜻이 깊고 표현력이 풍부한 시어들을 폭넓게 구사함으로써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시문체를 개척하고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있다.

《인생의...궤도》, 《숨쉬는 화석》, 《인생의 청엽》, 《시들어버린 고엽》, 《꽃수레》, 《운명의 구세주》, 《지평이인생》, 《좁이 없는 삭막한 남쪽》, 《사랑과 담을 쌓은 악의 세상》, 《칼도 이기게 하는 사랑》, 《강철의 인간》, 《백두산의 아들》, 《당신은 나의 하늘》, 《신념과 의지의 꽃다발》 등 대담하고 특색있는 비유와 상징적표현을 자유분방하게 적중히 구사함으로써 독창적인 시세계를 펼치고있을뿐아니라 시적의미의 철학적심오성과 표현의 풍부성을 훌륭히 담보하고있다.

3

가사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는 오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따라

혁명적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과 강철의 의지를 반영하고있는 신념의 노래, 락관의 노래이다.

가사는 친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철의 신념을 종자로 심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마음의 기둥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를 때 어떤 고난도 역경도 대적도 무서울 것이 없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히고있다. 이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그이의 사상과 의지를 철석같은 신념으로 삼고 그이의 세련된 령도따라 사회주의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보람차고 시련에 찬 투쟁의 길을 헤쳐오는 과정에 우리 인민이 실생활을 통하여 산 현실로 체험한 진리이며 철의 의지이다.

1. 백두의 녀으로 광풍을 부시고
역풍을 길들인 **김정일**장군
당신만 있으면 고난이 무어나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2. 광폭의 정치로 천만을 이끌어
기적을 창조한 **김정일**장군
당신만 있으면 역경이 무어나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3. 일심의 대군단 강철로 다지고
보검을 안겨준 **김정일**장군
당신만 있으면 대적이 무어나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가사의 1절에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원수들의 온갖 발악적인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시련의 고비를 넘고헤치시며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친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그이께서 계시면 고난도 두려울것이 없다고 노래하고있으며 2절에서는 믿음의 정치, 사랑의 정치, 광폭의 정치로 온 나라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이끄시어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신 친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공적을 찬양하면서 그이께서 계시면 역경도 두려울것이 없다고 노래하고있다.

마지막 3절에서는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워 일심단결의 위력한 무기를 마련하신 탁월한 령도적풍모를 높이 칭송하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면 어떤 강적도 무서울것이없다고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그리고 매절의 마지막 줄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사상을 반복형식으로 강조하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가사에는 혁명적 신념과 락관주의가 가요전면에 즐기차게 관통되고있다.

혁명적락관주의는 불굴의 의지와 미래에 대한 락관을 가지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게 하는 사상정신적원동력이다. 혁명적락관은 당과 수령이 이끄는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에 대한 굳은 확신이며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도 추호의 동요없이 웃으며 헤쳐가는 강毅한 혁명정신이다.

가사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기에 어떤 고난도 역경도 대적도 물리치고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줄뿐아니라 혁명적락관에 넘쳐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몸바쳐나서게 한다.

가사는 반복을 많이 주면서 짧고 간결하게 형상하고있으며 《백두의 녀》, 《광풍》, 《역풍》, 《광폭의 정치》, 《일심의 대군단》, 《보검》 등과 같은 상징비유적인 수법을 통하여 시어의 표현성을 높이고 풍부한 내용을 함축하면서도 깊은 뜻을 담아보여주고있다.

가사는 매 절의 3, 4행을 후렴구형식으로 처리하면서 시행반복과 대구적인 수법으로 가요의 사상정서적핵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있다.

가사는 또한 음수율을 3, 3, 3, 3형식으로 탄력있게 조직하면서 6, 6조의 규칙적인 음조를 보장함으로써 전투적이고 량만적인 서정에 맞게 기백있고 박력있는 음률을 창조하고있다. 그리하여 혁명적락관으로 차넘치는 가사의 양상적특성을 운율적으로 담보해주고있다.

리인모동지의 헌시와 가사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해 분발하여 전진하고있는 현시기 그이에 대한 투철한 숭배심을 간직하고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워나가도록 고무하는데 참으로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헌시와 가사는 높은 사상성과 완벽하고 세련된 형상력을 겸비한 격이 있고 품위있는 걸작으로서 오늘 우리 창작가들과 시인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으며 그들의 창작사업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우리는 리인모동지가 내놓은 헌시와 가사가 그의 예술적 재능이나 기교에 의하여 씌여졌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의 시는 한생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하늘처럼 믿고 따르면서 모진 고난과 역경을 헤쳐오는 나날에 불태워온 심장의 붉은 피방울을 신념과 의지의 시줄로 엮어낸 필생의 력작이라고 생각한다.

투사의 마음

1981년 6월 19일, 경성료양소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료양소앞을 흐르는 강에서 레년에 볼수 없었던 큰 산천어떼가 발견된것이다. 자그마한 강줄기에 명태만큼씩한 큰 고기들이 팔죽끓듯 와글거리었다. 사람들은 왁왁 고아대며 모두 제정신들이 없이 물고기를 잡아내기 시작하였다. 그속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배려로 이곳에서 룡양생활을 하고있던 나이 일흔을 넘긴 한 로투사도 끼여있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기운이 되살아난듯 그는 젊은이들과 함께 울리뛰고 내리뛰고 하면서 야단법석을 놓았다.

물고기를 잡아놓고보니 팔죽같은것들이 수백마리를 헤아렸다.

《인젠 들어갑시다.》

로투사를 돌보고있는 일꾼들이 곧 회를 칠 준비를 갖추면서 이렇게 권하였다. 그러나 로투사는 일꾼들이 물고기를 한마리도 못다치게 해놓고서는 곧 나무통을 짜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는 마치 큰 경사라도 난듯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산천어를 비행기에 싣고 떠난다고 장거리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놀라신 음성으로 《거기서 여기가 어디이기에 비행기를 타고 오시겠습니까. 성의는 리해할만한데 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몸도 불편한데...》라고 만류하시였다.

로투사는 막무가내로 떠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놓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이없으신 미소를 지으시며 일꾼들에게 《그 령감이 산천어를 가지고

비행기로 떠났는데 아무래도 차를 내보내주어야 하겠습니까. 성의를 받아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시였다.

약속된 시간에 어김없이 비행기가 도착하였다.

로투사는 자동차에서 큼직한 나무통을 내려놓았다. 들여다보니 새말간 물에 명태보다 더 큰 산천어들이 옥실거리고있었다.

로투사는 룡리사에게 제일 큰 산천어를 특별히 잘 튀겨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올리라고 몇번이고 당부하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모두들 한자리에 모여앉아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속에서 식사를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식사를 하시다가 문득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람을 잘 만났기때문에 승리하였다고 하시면서 백절불굴의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얻기가 그리 쉬운것이 아닙니다.》

그러시고나서 한동안 그윽한 눈매로 로투사쪽을 바라보시였다.

로투사는 옆동무에게 귀속말로 이렇게 말하였다.

《동무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언제나 몸가짜이 모시고있기때문에 나의 심정을 잘 모를수 있습니다. 나는 룡양때문에 14일간이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떨어져있다가 이렇게 만나보오니 해방되었을 때의 기쁨과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실가봐 속으로 은근히 근심하였는데 승인을 해주시니 여간만 기쁘지 않았습니까.》

내 삶의 꽃 외 2편

최인덕

이른 아침
내 사무실에 들어서면
방금 솟아오른 아침해처럼
찬란한 빛을 뿌려주는
김정일 화

황홀함에 이끌려
꽃을 향해 한걸음 다가서면
따사로운 빛발로 이몸 포근히 감싸주고
행복에 겨워 꽃을 우러르니
자애로운 어머니의 미소인듯

세상에 은인은 많아도
어머니는 단 하나이듯
꽃들은 많고 많아도
언제나 피워 안고살 꽃은 오직 하나
내 삶의 꽃 **김정일** 화

뿌려주는 빛발 오리오리
나의 뒤통스에 스며들어
열정의 피를 끓여주고
선홍색 붉고붉은 빛은
당을 따라 변함없는
내 마음의 일편단심

하여 내 때로 힘에 겨워
책상가에 쪽잠든 순간조차
꿈속 갈피갈피에 찾아와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주고
마를줄 모르는 지혜를 주나니

내 가는곳엔 꽃이 있어라
언제나 그윽한 그 향기
인간사랑의 향기 지니라고,
싱싱한 푸른 잎새
청춘의 열정으로 당을 받들라고

꽃이 있어 내 삶 긍지높아라
뿌리의 뒹 마음속에 간직하면
인민의 마음속에 충복으로 살고
어려워도 힘겨워도 꽃을 우러르면
친애하는 그이의 손길
나를 이끌어주는듯

아 언제나 마음속 깊이 안고 살리
내 삶의 꽃 **김정일** 화
꽃처럼 붉은 마음 변심없이
잎새처럼 청춘의 열정 넘쳐
뿌리처럼 흔들림없는 신념안고!

한가닥의 빛이 되고저

-**김정일** 화 배양등, 육성등 발명권을 받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학자도
연구사도 아닌
당일군인 내가 어떻게
김정일 화 배양등, 육성등을
발명할수 있었는가고,

그럴 때면 나는 생각합니다
내 어릴적 첫글을 익힐 때
불의 발견이 인간세상을 만들었다던
력사선생의 말
하여 내 불을 다루는 사람이 되겠다던 생각

내 오늘

소리높이 말하고싶습니다
불멸의 꽃 **김정일** 화의 출현은
수천수만년 인류가 바라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운 태양의 꽃이라고

나는 보았습니다
어릴적 해돋이 맞으러
바다가로 달려가던 그날처럼
김정일 화온실에 달려간 날
잎새에 생긴 작은 반점

내 그날
원예사동무에게 물었습니다
누런 반점 생기는 원인

그것은 해빛 쪼임시간 작은타이라고
마치 제 잘못인듯
안타까워하는 그의 대답

해가 떴다 지는거야
그 무슨 힘으로도 막을수 없고
꽃이 피고 지는것 자연의 리치건만
마음속에 생겨난 상처마냥
발걸음 떨어지지 않았습시다

하여 그날부터 **김정일**화를
백날 천날로 피우고싶은 마음
꽃잎에 없으니
실험 위해 오른 산발 험난해도

힘겨운줄 몰랐습시다

1000도를 넘는 유리로앞에서
실험의 낮과 밤을 지새도
힘겨운줄 몰랐습시다

김정일화 배양등속에 내 기쁨 다 담고
김정일화 육성등속에 내 희망 다 담았기에

정녕 그렇습시다
김정일화는 우리 인민의 삶과 함께
영원히 피고필 행복의 꽃
김정일동지는
인류의 영원한 운명의 태양

나는 생각하네

김정일화 꽃송이 받들어 변함없는
푸르른 잎새 보며 나는 생각하네
전사의 량심은 그 무엇인가
말없이 꽃송이를 받드는 그 마음 닮는것

흙속에 묻히여 보이지 않아도
꽃을 위해 사는 뿌리를 두고 나는 생각하네
전사의 신념은 그 무엇인가
뿌리처럼 말없이 꽃을 피우는 그 한마음

오늘도 래일도 나의 행복인
꽃송이 바라보며 나는 생각하네
영생의 삶이란 그 무엇인가
한번 피면 영원한 꽃의 모습

아 불멸의 꽃 **김정일**화여
내 삶 빛내여주는 꽃이어
량심도 신념도 영생의 삶도
한모습으로 새겨주는 태양의 꽃이어

고향집 설경

전병구

창창한 하늘을 높이 받든
아아한 정일봉도
축탐의 산악으로 솟아오른듯
층층 절벽가에 흰눈 송이송이

지붕은 은비단지붕
기둥은 옥으로 다듬어 세운듯
뜨락의 이깔나무아지에도
은구슬을 꿰여 줄줄이 늘인듯
정갈한 서리꽃, 서리꽃

고향집 설경에 넋을 잃고
승엄히 우리들수록

신비롭고 아름다워
결백한 내 마음도 여기 펼친듯

천만구슬 소백수 물방울들이
수정같이 맑은 박우물가에
설경을 더해주는 룡마바위도
하늘나라에서 날아내린 백마이런가

2월의 고향집을 빛내이러
백두산이 펼친 절승의 설경
아지마다 축원의 꽃을 흔들며
천고밀림이 소리없이 설레인다

전쟁과 사랑에 대한 답시

김송남

무슨 일로 급히 부르셨을가
무슨 임무 이밤에 안겨주실가
울렁이는 마음 가다듬으며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 한사람
친애하는 그이 계신 방으로 들어선다

온 나라는 폭풍전야
엄숙한 준전시상태
《혁명기전과방직조약》 탈퇴성명으로
오만한 제국주의 뺨 또 한번 갈겼으니
전쟁은 이제 오늘인가 래일인가
세계가 조선을 지켜보고있는 때

벌써 며칠을
떠나지 못하시는 집무실인가
금시 보시던 겹쌍인 문건들
놈들의 《팀 스피리트》 작전 일정표며
유엔대표부의 긴급보고서들...
그이의 책상우에 언뜻 벗어나서는
일군의 눈굽은 뜨거워진다

....밤중에 오라고 해서 안됐습니다
급히 지방출장을 좀 다녀와야 하겠습니까
한 특류영예군인이
래일 거기서 잔치를 한답니다

놀라는 그의 심중 헤아리시며
너그럽게 웃으시는 그이
문건 하나를 내밀어 보이신다
영예군인가운데서도
제일 어려운 상대를 골랐다는
이 처녀가 얼마나 기특한가고
마음갈아서는 가서 만나보고싶은데
그렇게 못하는게 유감이라고...

-우리가 이들의 잔치를 크게 차려줍시다!
이 밤으로 어서 떠나서
잔치상도 전하여주고
대신 축하도 해주고 오라시며
목단추 꼭 채운

그의 옷차림에 눈길을 멈추신다

-잔치집인데
제끼옷이 어울릴겁니다...
나는 동무가 흑곤색양복에
푸른줄무늬넥타이를 댔을 때가
제일 젊어보이더구만!

그러시곤 가벼이
그의 등을 두드려주신다
그러시며 환히
해빛처럼 웃으신다
마치 이 순간엔
정국의 엄혹함을 다 잊고계신듯

감격의 흐느낌은 끝내 터지는가
보내시여 안가본고장이 없이
말기시여 세상에 못해본 일도 없이
평생 그이를 모셔왔건만
겹쳐드는 시련속에 다시금 우러르니
정녕 그이 모습은 믿음의 산악
정녕 그이 영상은 운명의 태양

아,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
폭풍 사나운 전투에 서시여
혁명전쟁의 불구름 쳐몰아내시는 그이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한쌍 청춘의 고운 사랑조차
원썬들은 감히 못다치게
고이 지켜주시니

감격에 눈시울 적시며
일군은 떠나갔다
전쟁과 사랑에 대한 시와 같은 이야기
시대의 새 전설을 안고 가는 가슴에
하나의 뜨거운 생각만이 뚫었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또 한차례 우리는 벌써
다 이긴 전쟁을 하고있는것이다!

《생활을 현실에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문학작품에서는 인간의 호상관계와 그 변화발전과정을 보여주는 구성작업에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한다.》

김정일

위대한 업적

한걸음 한걸음 손잡아 이끄시여

영화문학창작에서 작가들은 작품의 구성과 인물들의 운명처리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맞다들어 모대길 때가 많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작가들의 고충을 깊이 헤아리시고 비범한 예지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한 해답을 주시며 따쫓이 이끌어주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을 받들고 한때 소설가들은 영화문학창작사업에 많이 참여하였는데 예술영화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도 소설가들에 의하여 창작된 작품의 하나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70년 10월 23일 이 영화의 작업필름을 보아주시고 작품의 본질적인 결함을 예리하게 밝혀낸데 기초하여 작품의 수정방향과 형상방도들을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품이 죽음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나기때문에 어두운 비감을 주며 따라서 인식교양적의의가 적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비로소 작가들은 창작에서 심한 미학적오류를 범하였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들은 작품의 줄거리를 주인공인 나 어린 간호원이 한 중대장의 영웅적인 희생에서 강한 사상적충격을 받고 당원으로 자라나며 마감에 가서는 그자신도 중대장처럼 영웅적인 최후를 마치는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다보니 죽음에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나는 영화의 줄거리는 전쟁물창작에서 가장 엄격히 경계해야 할 문제의 하나인 비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냈던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것을 보지 못했으며 오히려 중대장의 죽음장면은 아주 잘된것으로서 이것이 작품의 성과를 튼튼히 담보한다고까지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작가들은 작품을 수정하였다.

그런데 지난날의 파오를 시정한다는것이 이번에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되였다.

작가들은 죽음에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나던것

을 방향을 돌려 주인공을 살려내는데로 끌고갔다.

작품이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복잡한 론쟁이 있었고 창작적고충도 적지 않았다.

주인공의 영웅적인 원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의 실마리를 더듬어나가느라 어떤 어느새 앞뒤에 놓인 두 죽음이라는 매듭에 와서 툭 끊어져버리고 반대로 주인공을 살려야 한다는 줄거리를 더듬어나가면 주인공의 성격의 핵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걸려 흐지부지되고마는것이였다.

술한 영화전문가들과 일군들이 작가를 방조하고 한달여에 걸쳐 론쟁에 론쟁을 거듭했으나 론리는 삼거웁처럼 마구 뒤엎길뿐 선명한 해결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종당에는 주인공이 살아나서 축하의 꽃다발에 휩싸이게 되는데까지 이르게 되였다.

창작전투는 끝났으니 작가들은 아무런 기쁨도 느낄수 없었다.

그것은 죽었던 간호원처녀를 살려는 놓았지만 인민들의 추억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원형의 성격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아무런 답변도 줄수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러던 1970년 11월 어느날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들과 연출가들을 친히 불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작품의 개작정형을 료해하신후 제기된 문제가 있으면 함께 토론해보자고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작가들은 주저주저하다가 복잡한 론쟁과 창작적 번민속에 흘러간 영화문학수정작업의 나날에 대하여 두서없이 말씀드리고나서 주인공을 살려내는것으로 일단락지었다고 말씀드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계시다가 그자리에서 수정대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시며 고생들 했다고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부드러운 말씀에 작가들은 저도 모르게 눈곱이 화끈해났다. 자신없는 작품을 내놓은 고충을 그리도 깊이 헤아리시여 하시는 그이의 말씀에 목이 메여울랐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 사이를 두시었다가 앞뒤에 비장한 죽음장면을 설정한 애초의 작품이 비감을 자아내는 결함을 범했다면 주인공이 살아서 꽃다발을 받게 설정한 수정작품은 역사적진실을 외곡한 결함을 범했다고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순간 작가들은 송구한 마음을 견잡을수 없었다. 하나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것이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 그이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몸둘바를 몰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여전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작가들이 주인공을 죽였다 살렸다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근본원인은 종자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고 글을 쓰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종자에서 줄거리가 뻗어나가 형상의 꽃이 피고 주제가 여무는것은 작품의 생리적과정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주인공을 죽이지 않고 작품의 형상을 높일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작가들은 아무런 대답도 올리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작품을 고칠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중대장이 죽는것은 결국 주인공에게 체험을 축적시키자는것인데 그 사상이 간호원이 빨래하는 장면에서 나오지 않는가, 그러니 우선 중대장이 죽는 장면을 달리 가져가보자고 하신다음 작품의 마감에 주인공이 살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신중한 어조로 주인공이 죽어야 작품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죽을 때 당원증과 당비를 당중앙에 바치고 죽은 안영애를 아시지 살아있는 안영애는 모르신다고 하시면서 그렇기때문에 이 작품의 종자는 어디까지나 피묻은 당원증을 당중앙에 바치고 희생된 당원의 숭고한 당성에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작가들과 일군들이 달포나마 고심하던 문제를 순간에 풀어주는 지침이였고 등대였다.

사실 지금까지 작품에는 종자가 없는것이나 다름없었다.

작가들은 제나름으로 작품의 기본사상을 설정하느라고 하였다. 그들은 주인공의 성격적특질이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기때문에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충실성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투쟁하는것이 당원의 참된 삶이라는 사상을 강조하려고한데 불과하였다.

그러다나니 주인공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면서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좌왕우왕하게 되였고 이것은 결국 론쟁만을 거듭하게 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잡아주신 종자야말로 원형의 사적에 충실하게 주인공을 희생되게 하면서도 그의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줄수 있게 하는 작품

의 기초이며 핵이었다.

이로부터 당원이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절실하고도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론의를 거듭하던 문제들이 일시에 풀리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높뛰는 흥분을 가깝스로 억제하고있는 작가를 바라보시면서 장편소설과 영화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영화문학을 써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예술영화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 작업필름에서 여러가지 사상 예술적결합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영화문학을 쓴 작가가 장편소설이 아니라 예술영화를 만든다는 립장에 서서 영화문학을 쓰지 않는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소설가로서 장중편소설을 써온 작가의 창작적특성을 헤아려주시며 장편소설은 사람들이 여러날동안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지만 영화는 대체로 한두시간안에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그런데 영화문학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는 앞뒤에 요란한 죽음장면을 많이 주었기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2시간동안에 작품에 반영된 내용을 다 줄수 없다고 하시였다.

작가들은 영화의 초보적인 특성도 살리지 못한 작품을 내놓은 송구스러움으로 하여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를 이윽히 바라보시다가 물론 장편소설을 써온 작가가 처음으로 영화문학을 쓰자니 고충이 많았겠지만 영화라는 특성을 고려하였더라면 영화문학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를 훌륭히 쓸수 있었을것이라고 고무해주시였다.

그이의 은정깊은 말씀을 받아안으며 작가들은 불타는 창작적의욕과 충성의 결의로 가슴을 들먹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새로운 결의로 넘쳐있는 작가의 심정을 헤아려보신듯 영화문학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를 고치기 힘들겠지만 자신께서 이야기하신 문제를 참작하여 고치면 될수 있을것이라고 고무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작품이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당의 작품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며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것도 결국은 위대한 수령님께 작품을 올리자는것이고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보아야 잘되였는지 잘못되였는지 알수 있지만 그때까지 우리로서는 있는 성의를 다하여 정성껏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한없이 부드럽고 겸허하신 그이의 말씀을 받는

순간 작가들의 가슴에서는 충성의 열정이 더욱 뜨겁게 솟구쳐올랐다.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2일동안 낮에 밤을 이어 창작전투를 벌려 다시금 영화의 수정보충안을 만들어 그이께 올리였다. 이튿날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정보충안을 보시고 또다시 작가들을 불러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대본을 읽어보았는데 아무래도 작가가 힘들어하는것 같아 불렀다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시며 내가 생활을 진실하게 그릴데 대하여 한 말을 작가가 접수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풀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문제는 작가가 생활을 진실하게 그릴데 대한 요구를 심장으로 접수하는가 접수하지 않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작가들이 작품수정에서 범한 소극성과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신 귀중한 가르치심이었다.

작가들은 중대장의 죽음을 들어내고 주인공 연옥이를 영웅적으로 희생시키면 되리라고 외곶으로만 생각하면서 관중의 인상에 남는 그의 진실하고 깊이있는 생활을 탐구하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러다보니 작품의 인상을 근본적으로 뒤집지 못하였다.

특히 영화적인 대를 세울줄 모르는데로부터 일정한 시간과 길이의 제한을 전제로 하는 영화의 특성에 맞게 제시된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을 깊이있게 펼쳐보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첫머리에 틀고앉았던 중대장의 요란한 죽음은 들어냈지만 연옥이의 형상이 종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때문에 여전히 감동을 줄수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은 작품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수술이 없이는 관철할수 없었다. 작가들은 무거운 자책감에 휩싸여 머리를 숙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뜻있는 미소를 지으시고 작가들을 둘러보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글씨는 이미 써놓은것을 지우고 쓰는것보다 새 종이에 써야 한다고 하시며 작품을 창작하는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이번에 예술영화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 수정대본은 이미 써놓은 틀에 구애되지 말고 새 종이에 쓰는 기분으로 한번 대담하게 써보아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나라들과는 달리 인민들을 교양하기 위하여 영화를 만드는것만큼 정 길어지면 1, 2부로 하여도 된다고 하시면서 작가가 쓰고싶은대로 쓰도록 하라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다른 사람들이 영화가 길다 짧다하여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정대본을 대담하게 근본적으로 새롭게 쓰도록 작가들을 힘있게 떠밀어주시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다가 작품속에 나오는 전투장면이 적후인 조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물으시였다.

작가들은 별로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채 그 대목을 썼던 주관적의도를 말씀올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들의 말을 주의깊이 들으신후 그 문제에 대하여서는 말씀을 안하시고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시였다.

그러다보니 그 전투장면의 진실성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까맣게 잊어버리였다.

그런데 이야기의 마감무렵에 가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들이 주관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적후에서는 여러가지 정황이 있을수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할수는 없다고 하시며 그런것만큼 사람들의 머리속에 흔히 떠오르는 그러한 적후를 념두에 두고 써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 영화에 나오는 전투장면이 관중에게 납득되었는가 하는것을 토론하여보아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작가들과 일군들은 그이께서 하시는 한마디한마디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있는가 하는것을 느끼며 크나큰 감동에 휩싸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믿음어린 안광으로 작가들을 바라보시며 자신께서 주신 의견이 접수되는가고 부드럽게 물으시였다.

접수된다고 말씀드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가 접수된다니 자신께서도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며 작가가 접수되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고치는것은 그리 문제될것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높은 창작적안목으로 작가들의 잘못된 견해를 진지하게 일깨워주고 계발시켜주시며 그들스스로가 깨달도록 이끌어주시는것이였다.

그후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지침으로 수정작업을 다그쳐나갔다.

그해 11월하순 어느날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여러편의 작품을 지도하여주시였는데 그중에서 먼저 예술영화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의 수정안을 보여주시였다.

작가가 그이앞에서 길다란 작품을 읽기 시작하였다.

지나친 흥분에 그의 목소리는 떨리였고 가끔 동

강이 났다.

그때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작가를 고무해주시었다.

그리고 수정대안이 괜찮다고 하시며 좀더 완성하면 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계속하여 연옥과 부상병들을 좀더 깊이 그리는것과 제2전선문제에 대하여 작가들이 더 연구해볼데 대하여 따듯이 가르치시었다.

작가들이 영화문학을 빨리 완성할 불타는 마음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에는 벌써 낮 2시가 지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때에야 다른 영화들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영화시사실로 향하시었다.

작가들은 그이께서 자기들때문에 점심식사도 건너치게 된것을 생각하며 송구하고 죄송스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렇듯 세심하고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마침내 세상사람들을 그처럼 감동케 한 예술영화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의 영화문학이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짧은 기간에 영화가 창작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작된 영화에 대하여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영화들가운데서 예술영화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당성을 단련하게 하는데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교시하시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예술영화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아주 좋은 영화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실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이처럼 사상에술성이 높은 영화학과 영화가 창작되었다.

아, 내 심장아! 외 1 편

주광남

용광로여

네 무쇠가슴에 삼켜넣는것은
거칠고 딱딱한 소결광판
꺼멓고 깔깔한 콧수염이더니

열풍을 품고 모대긴 뒤

네 후련히 쏟아떨치는것은

황금빛 눈부신 쇠물! 쇠물!

황홀한 기쁨의 새 세계더라

그러할수 없을가, 아, 내 심장아!

아프고 쓰린것 있다면 다 품어 녹이고

벗들앞에 조국앞엔

밝은 웃음만을 환희만을 펼치는...

쇠물은 무엇이기에

쇠물은 무엇이기에

용해장이 그것만 철철 넘치면

한뼘 불앞에 산 로용해공도

아이들 마음되어 저리 설레일가...

쇠물은 무엇이기에

용해장에 그것만 철철 넘치면

꽃내기 저 젊은 신입공은

오히려 어른스레 듬직해질가...

제땀 들어 끓여보지 않고선

그 진미 다 알수 없는

쇠물은 사랑중의 사랑이라더라

온 냇을 빼앗기는 그것은 또 매혹

온몸의 피끓게 하는 그것은 또 열정

그래선지 쇠물앞에선

제 한몸의 부족점 다 가셔진다더라

나이많은 사람들은 정열을 얻고

신입공의 서툰 일손 빨리도 익혀지고

아, 그때문에 그때문에

용해장에 쇠물만 철철 넘치면

뛰어도 한모습으로 편다더라

끓어도 한숨결로 끓는다더라

명제해설

《사회주의문학의 창작과 건설 과정은 문학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요소를 뿌리뽑고 밖으로부터 침투하는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를 반대하는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사회주의문학을 건설하는데서 문학분야에서 이색적인 사상조류의 침습을 막을데 대한 문제를 중요한 원칙적요구의 하나로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문학의 창작과 건설과정은 문학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요소를 뿌리뽑고 밖으로부터 침투하는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를 반대하는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한다.

원래 착취사회의 낡은 문화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사회주의적민족문학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문학분야에서 이색적인 사상조류의 침습을 막는 것은 오늘 사회주의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도전이 전례없이 악랄해지고있는 침예한 정세하에서 매우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적인 세력균형이 파괴된 복잡한 정세를 기회로 《반공》소동을 더욱 미친듯이 벌리고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공세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이에 보조를 맞추어 혁명의 배신자들이 사회주의문학을 말살하고 반동적인 부르조아문학을 부활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의 침습을 막고 우리 문학의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는것은 문학부문에나서는 절박한 과업이다.

오늘의 정세는 우리에게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를 반대하는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도 건결히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부르조아문예사조는 착취계급의 반동적인 사상조류이다. 부르조아문예사조는 착취계급의 반동사상을 퍼뜨리는데 주되는 목적을 두고 인간과 생활에 대한 진실한 반영을 거부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류포되고있는 부르조아문예사조는 각양각색이지만 그것은 레외없이 착취계급의 반동적세계관에 기초하고있으며 생활에서 본질적인것을 외면하거나 외곡하며 비본질적인것을 과장하고 미화분석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문학분야에서 이색적인 사상조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데서 주되는 대상의 하나는 자연주의이다.

자연주의는 우연적이며 비본질적인것을 기계적

으로 묘사함으로써 생활의 진실을 외곡하는 부르조아문예사조의 주되는 조류이다.

물론 사회주의문학에서 자연주의적경향은 부르조아문학에서처럼 의도적으로 현실의 본질을 외곡하거나 인간의 생물학적본능을 그리는 식으로 하여 나타나는것은 아니다.

작가가 좋은 의도에서 출발하면서도 자연주의적인 파오를 저지르게 되는것은 세계관이 확고하지 못하고 생활에 대한 철학적사색이 부족하며 특히는 사실주의의 외피를 쓴 자연주의에 대한 각성이 무딘것과 관련되어있다.

지난 기간 일부 시와 가사들에서 형상적비유를 잘하지 못하여 자연주의를 범하게 된것은 작가들이 자연주의에 대한 각성이 무딘데서 초래되는 후과인것이다.

작품에서 비록 부분적으로 나타난것이라 하여도 그 하나의 자연주의적요소가 작품전체를 본래의 창작의도에 배치되게 만든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부르조아문학에서 나타나는 자연주의와 사회주의문학에서 나타나는 자연주의적요소는 그 형태와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서로 같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회주의문학에서는 자연주의의 자그만 요소도 절대로 용납하여서는 안된다.

형식주의도 부르조아문예사조의 주되는 조류의 하나이다. 형식주의는 형식을 내용과 분리시키고 내용을 형식에 복종시킴으로써 문학작품의 사상성을 떨어뜨릴뿐아니라 예술성자체도 손상시킨다.

우리 문학분야에는 문학조류로서의 형식주의는 없지만 창작실천에서 형식주의적요소가 이러저러한 형태로 나타날수 있다.

창작에서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생활의 법칙에 맞게 풀지 못하고 내용보다 형식부터 먼저 생각하면서 틀거리를 크게 하여 규모로 한몫 보려는 대작주의경향도 형식주의의 한 표현이다. 내용이 공허한 작품은 아무리 형식이 요란하여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작품의 종자와 주제, 사상, 인간성격을 깊이있게 파고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재치있는 구성과 미사려구로 형상을 곱때는 현상, 현실을 미화분식하고 주인공을 리상화하는 현상은 다

형식주의적인 창작경향의 표현이다.

우리는 창작실천에서 형식주의적경향이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그 자그마한 표현에 대하여서도 절대로 용화묵과하지 말고 투쟁을 벌려야 한다.

문학분야에서 이색적인 사상조류의 침습을 반대하는 투쟁의 예봉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짓부시는데 돌려져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사상문화적침투를 해외침략을 위한 주되는 수법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문학예술을 그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사기와 협잡, 살인과 강탈, 패륜패덕을 레찬하며 인종주의와 인간증오사상을 고취하는 반동적인 부르조야문학예술을 우리 나라에 침투시키려고 같은 부르조야사상문화가 뿌리내릴 사소한 틈도 주지 말아야 한다.

문학부문에서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강하게 벌려야 한다.

오늘 수정주의가 각양각색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것은 다 부르조야 사상의 변종에 지나지 않으며 제국주의의 머슴군으로서 사상문화적침투의 길을

열어주고 그 대변자노릇을 한다는 점에서는 조금도 다를것이 없다.

수정주의문학은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타락시키고 있으며 사회에 각종 범죄가 성행하게 만들고 썩어빠진 부르조야생활양식과 패륜패덕이 판을 치게 하고있다.

이것이 현대수정주의자들이 《개편》 놀음을 벌려 놓고 부르조야 반동문화를 마구 끌어들인 결과에 빚어진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는 수정주의의 침습을 경계하고 반수정주의 투쟁을 한순간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문학예술분야에서 이색적인 사상조류의 침습을 성과적으로 막아내자면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막아내자면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문학분야에서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의 침습을 철저히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공세를 짓부시고 사회주의문학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해나가야 한다.

《소조원동무, 나 좀 봅시다!》

하루에도 그 몇번을
나는 듣는가
대발과 서두르는 막장에서
용접불꽃 날리는 제관장에서
사람들 스스럼없이 나를 찾는 소리
《소조원동무, 나 좀 봅시다!》

마을의 수도가를 지날 때에도
해저문 공원길 걸을 때도
나를 기다린듯
만나니 생각난듯
허물없이 나를 부르는 소리
《소조원동무, 나 좀 봅시다!》

만나면 말하더라
어떤 젊은이는 자기의 꿈을
어떤 아버지는 자기의 경험을
무슨 좋은수가 없겠는가고
제 생각이 마음에 드는가고
나라앞에 지닌 크고큰 의무만이라

스쳐보낼수 있는 작은 일감을 놓고도
제나름의 속생각을 털어놓는 사람들
그 얼마던가

한걸음 옮겨도
한가지 일을 해도
오로지 당의 뜻을 따르고 싶어
나를 찾으며 나를 부르며
3대혁명의 할길로 달려가는 그들의 마음이어

아 그 마음으로 수령을 받들고
그 마음으로 사회주의를 지켜가는 사람들
나에게 또한 힘을 주며
혁신의 불꽃을 함께 피워가자는 그 부름
그 목소리

하기에 내 오늘도
반겨 듣는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찾는 소리 나를 부르는 소리
《소조원동무, 나 좀 봅시다!》

생일선물

신경애

어느날 퇴근길에서 있던 일이다.

퇴근길에 오른 나는 거리랑컨으로 준비하게 늘어진 상점에 들어가 딸애에게 꼭맞을 옷이랑 생일기념품들을 한가득 사들고 흐뭇한 마음으로 궤도전차에 몸을 실었다.

전차에 오른 나의 눈앞엔 딸애의 모습만이 얼른 거렸다.

내가 짐문을 열고 들어서기 바쁘게 《엄마-》하고 뽀르르 달려나와 치마폭에 동동 매달릴 귀여운 딸, 그러는 그에게 생일선물옷을 안겨주면 그것을 입고 거울앞에서 온갖 재주를 다부릴 딸애의 재롱스런 모습, 그런가 하며 성의껏 차려놓은 푸짐한 식탁앞에서 북스럽게 입을 놀려댈 사랑하는 딸애의 귀여운 모습을 그려보느라니 저도 모르게 입가엔 웃음꽃이 피어났다.

한초라도 빨리 가서 딸애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기쁨을 나누고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앞서서인지 사람들을 싣고 수도의 큰거리들을 누비며 고속으로 달리는 궤도전차가 무척 더딘것만 같았다.

이때 전차방송에서 귀익은 노래선물이 은은하게 울려왔다. 고향에 대한 추억과 한없는 사랑을 안겨주는 송엄하면서 유정 한 《사랑가》의 노래선물에 전차안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나름의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듯했다.

뒤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랑독하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전류를 타고 들려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거리를 한바퀴 돌아본 아버지는 뜻밖에도 내 손을 잡고 상점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예상을 뒤집어엮는 놀라운 나들이였다. 무엇하려고 이 상점에 나를 데리고 들어 왔을까,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 진렬장을 덩덤히 바라보고 있을 때 아버지는 나더러 마음에 드는 회중시계를 하나 고르라고 하였다. ...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어조로 나에게 말했다.

〈너도 이제는 시계를 잘 때가 되었다. 나라를 찾는 싸움에 나선 사람이 아껴야 할것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동지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다. 시

간을 귀중히 여기라는 뜻으로 주는 생일선물이니 잘 간수해라.〉》

이미전에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몇번이나 읽으며 위대한 인간세계에 매혹되며 눈물도 만이 흘린 나였건만 전차안에서 방송원이 랑독하는것을 들으니 또다시 가슴이 뭉클 젖어들고 새로운 감동에 휩싸임을 어쩔수 없었다.

그토록 내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겼던 회중시계 이야기,

1926년 4월 15일,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 선생님께서서는 바깥출입을 거의 못하시던 몸으로 무송의 어느한 거리에 있는 상점에 들리시여 위대한 수령님께 회중시계를 생일선물로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만경봉에 오르시여 《지원》의 애국사상을 심어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문제를 위해 무인지경의 머나먼 천리길도 떠나보내시면서 열두살 어리신 아드님의 심장속에 조선의 녀를 안겨주시고 혁명실천속에서 혁명적 의지와 담력을 키워주신 김형직선생님, 그러시면서도 어려서부터 돈맛을 모르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엄하게 단속하고 통제하시던 김형직선생님,

그렇게 엄격하시던 김형직선생님께서 사랑하는 아드님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생일선물로 주신 회중시계에는 단순히 선친의 육친적사랑만이 담겨져 있는것이 아니였다.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예감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이 회중시계와 함께 한생을 다 바쳐 쌓아올리신 독립위업을 넘겨주시였던것이다.

방송원의 절절한 목소리를 안고 궤도전차는 경쾌한 동음속에 네온장식등들의 불빛이 령롱한 수도의 거리로 쏜살같이 달리였다.

한시바삐 집으로만 내닫던 나의 마음은 차츰 느그러지고 그 어떤 불만감과 자책감으로 좀처럼 진정할수 없었다. 전차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딸애의 생일선물준비로 바빠 돌아치던 나에게로만 쏠리는듯싶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심장은 후두둑 뛴뛰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하나의 생일선물을 주시여도 애국의 사상, 조선의 녀를 심어주시였는데 나는 어머니로서 자식들에게 무엇을 넘겨주려 했던가.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하듯이 나는 자식들의 생일날에 새롭고 맵시나는 옷과 기념품을 많이 안겨주고 류다른 음식상을 차려주는것으로 어머니된 긍지를 느끼고있지 않았던가.

한평생 다바쳐 이룩하신 독립위업이 갖든 회중시계, 그것은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숨결이 이어진 심장의 순결한 박동이였고 만경대혈통을 이어시간을 아껴 하루빨리 조국을 광복하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어린 혁명의 시계였다.

실로 뜻깊은 생일선물이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형직선생님의 그념원이 갖든 회중시계의 초침따라 우리의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고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여가고 계신다.

회중시계를 소중히 간직하신 첫 걸음으로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조직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의 토양에 씨를 뿌리고 키워오신 주체사상을 하나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여 온 사회에 무성한 숲으로 가꾸어 풍만한 열매를 이룩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날의 시계의 초침에 맞춰, 주체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은 얼마나 자랑찬 승리의 로정을 걸어 왔던가,

1932년 4월 25일 안도에서 조선인민의 첫 혁명무력의 창건, 한세대에 미일 두제국주의 타승, 14년이란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완수, 자주, 자립, 자위의 부강한 사회주의강국의 창설, 온나라 방방곡곡에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할 만년대계의 불멸의 기념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단 몇해동안 인민대학습당, 광복거리, 통일거리 등 현대적이고 립체감이 나는 인민적인 건축물이 세워져 평양시가 세계적으로 손꼽힐만한 웅장화려한 수도로 변모되지 않았던가.

탁월한 예지와 강철의 의지, 무비의 담력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시며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도전책동으로부터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하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실 성스러운 역사적사명을 지니시고 백두광명성으로 솟아오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 50돐에 즈음하여 친히 지으신 《광명성찬가》.

만민의 축복을 받으시기전에 자신의 탄생일에 온 나라 가정들에 똑같은 사랑의 선물시계를 안겨주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세계 그 어느 나라 력사에 이렇듯 생일선물을 부모와 자식간의 순수한 사랑을 초월하여 혁명동지의 믿음과 사랑으로, 수령과 그 후계자의 혁명위업계승으로 승화시켜 대를 이어 빛내온 나라가 있었던가.

력사는 끊임없이 흐르고 세대는 여러번 바뀌었다. 그러나 주체혁명위업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를 따라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한다.

계속혁명의 숨결로 이어진 시계의 초침은 이 시각 나의 심장의 박동을 더 세차게 울려준다.

나만이 아니 퇴근길에 오른 저 사람들의 심장마다에도 쿵 쿵...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동안 궤도전차는 대동교 한복판을 벗어나고 있었다.

대동강반에 거연히 솟아 평양의 밤하늘가에 타오르는 주체사상탑의 봉화!

주체, 이는 조선의 녀이며 세계자주화위업의 숨결이다.

지금 세계를 둘러보면 지구촌의 어떤곳에서는 혁명의 대를 순결하게 계승하지 못한탓에 민족의 녀이 뿌리뽑히고 근 반세기이상 자랑해오던 사회주의 혁명의 전취물이 룡락당하며 인민들은 빈궁의 처지에서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슴터지는 비극적사태가 벌어지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 가장 걸출한 인민의 수령들을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받들어모시고 있기에 그 무엇으로써도 우리의 신성한 사회주의공기를 오염시킬수도, 사회주의 맑은 하늘을 흐릴수도 없었고 주체로 뿌리내려진 사회주의는 모진 시련을 이겨내고 아름답리 거목으로, 사회주의보루로 더더욱 빛나고있는것이다.

그렇다!

혁명의 위대한 태양을 우리러 받드는것은 한세기를 줄기차게 이어왔고 앞으로도 우리들이 대를 이어 변함없이 이어가야 할 백두의 녀, 마음의 기둥이며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 딸애에게 넘겨주어야 할 생일선물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모신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성다할 일편단심의 꽃향기를 안겨주리라.

나는 위대한 태양을 따르는 새 세대들의 대오속에 서있을 딸애의 모습을 그려본다.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창창한가.

사랑이야기

권강일

저만치 앞서가는 청년은 리철이란 영예군인이었다.

유보도의 세멘돌을 푹-걱 푹-걱 성한 사람처럼 빨리도 걸었다.

나는 그와 시로 사귀었는데 얼마전에도 한편 써 들고 찾아왔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는데 비해서는 시들이 썩 다감하였다. 지내볼수록 아이들처럼 순진하고 솔직한데가 있어 마음에 들었다.

《어딜 또 이렇게 부지런을 피우나?》

불편한 몸인데도 안가는데 없이 다니는 그의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고무해주고 싶은 심정을 나는 연중 이렇게 내비쳤다.

리철은 돌아보며 반색을 했다.

《잔치구경을 갔겠습니까.》

《그럼 〈용해공거리국수집〉에?》

《예.》

그것은 오늘 제일 큰 식당인 국수집에서 있었던 잔치를 말한다. 멀리 서해기슭에 있는 한 처녀가 이곳 철의 도시에 사는 영예군인총각에게 시집을 왔는데 말그대로 온 시가 펼쳐나서 그를 맞이했던 것이다.

《정말 대단하더군.》

《그럼 선생님도 거기 가셨겠습니까?》

《색시를 보고 싶어 들렀었지. 참 생기기도 잘 생겼는데》

《마음이 고우니 더 고와보입니다.》

《리철동문 장가를 갔겠지?》

《예, 아이가 돌이나 되는데요..》

《그래?!》

우리는 잠시 말없이 걸어갔다.

나는 리철에 대해 생각하였다. (이 친구는 어떤 안해를 얻었을까, 어떤 훌륭한 여성이 이 영예군인에게 시집왔을까.)

새살림거리로 올라가는 큰길에 접어들자 량옆에 푸른 잔디밭이 웅단처럼 깔린 밋밋한 등성이가 나타났다.

《좀 쉬었다 가지 않겠소?》

내가 이렇게 말하자 리철은 성큼 유보도에서 벗어나 화강석돌층계로 올라섰다.

우리는 잔디밭에 앉았다. 멀리 용광로가 산처럼 우뚝 솟은 제철소의 하늘은 저녁노을인지 쇠물빛인지 온통 빨갛고 거리의 무수한 창유리에도 그 빛이

물들어 붉게 타는듯 늘썩 보아도 좋은 철의도시 저녁풍경이다. 한무리의 처녀들이 우리가 방금 올라온 유보도로 떠들며 지나갔다. 잔치요, 영예군인이요 하는것을 보니 역시 방금 있는 그 결혼식이 화제거리인 모양이었다.

《이야기나 좀 하지.》

나의 말에 리철은 취한듯 바라보던 용광로쪽을 일별하며 몸을 돌렸다.

《저야 뭐 이야기거리가 있어야지요.》

《왜, 색시얼던 이야기두 좋구...》

《저는 경우가 다릅니다. 오늘 장가든 동무는 영예군인으로 제대되었지만 저는 건강한 몸으로 만기 제대되었습니다.》

《그럼 몸은?》

《몸이 이렇게 된건 사회에 나와섭니다. 군대에서 복무할 때 근무수행중 허리를 부상당한적이 있는데 몇년이 지난후에 그게 끝내 말썽을 일으켰지요.》

《그렇게 됐구만.》

오늘 잔치에서 받은 감동을 역시 영예군인인 리철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 그리고 더 깊이 새겨두려던 생각도 이렇게 싱겁게 끝이 ...나는가

리철은 나의 이런 섭섭한 심정을 헤아린 모양 입을 열었다.

《하지만 사랑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그럼 리철동무의 사랑이야기를 좀 듣지요.》

《허허... 정 들으시겠다면 제가 제대되어용해공으로 일할때 제철소병원에 입원한적이 있는데 그때 한 녀의사에게 반했던 이야기부터 해야겠군요》

《허 자기를 치료해주는 녀의사에게 반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사실 그때 건강체였구 제대군인에 용해공, 그만하면 짝 지지 ...않았건만》

리철은 나의 룡말을 이렇게 받아넘기며 빙긋 웃었다.

첫사랑은 말그대로 아무런 경험도 없는 인생의 첫사랑이라는데서 실수도 있고 오해도 많고 지나치게 감상적인 유치한데도 있지만 그대신 자신을 짝그리 불태우는 정신적이라는데서 두번째가 있을수 없는 귀중한 사랑인것이다.

이 허우대가 큰 솔직하고 진실한 사나이의 가슴에 과연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새겨져있을까.

그날 리철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여기 그대로 적으려고 한다.

나는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듯 아파서 소생차에 실려 입원을 했는데 신정희라는 녀의사가 담당치료를 했지요.

어디가 어떻게 곱고 무엇이 마음에 드는지는 딱히 표현할수가 없습니다. 얼굴은 가름하고 키는 날씬하고 눈길은 온화하고 이마는 부드럽고 그저 이러루한데 말한마디 차림새 하나하나 모든것이 아름답고 고상했습니다.

입원한 며칠어간에 나의 마음은 온통 그에게 쏠리고 말았습니다. 녀의사가 회진을 하려고 병실에 들어오면 해살이 비껴든듯 마음이 맑아지곤했지요.

그러면서도 말한마디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제밤엔 일없었어요?》. 《식사는 다 했어요?》라고 물으면서 녀의사가 진찰을 할 때면 나는 선생앞에 선 학생처럼 《예.》, 《예.》외마디 대답을 했지요. 몸가짐도 굳어지고 눈길도 바로 들지 못했습니다. 담당한 의사에게 환자가 다른 감정을 품는것은 학생이 선생을 사모하는것처럼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디 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눈앞에는 진종일 녀의사의 모습이 얼른거렸습니다.

하루는 호실에 함께 있는 림풍선이-그는 고등중학교 동창생인데 해탄로로체공으로 일하는 딱친구지요.

내가 입원하니 부목을 댄 팔을 둘려면 그가 이미 입원해있더군요-그가 나를 정원으로 끌고나가 버드나무가 늘어진 긴의자에 앉히고 말하더군요.

《자네 요즘 속을 태우지?》

《무슨 똥판지같은 소릴...》

나는 속이 뜨끔하면서도 아닌보살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게. 나는 못속여. 소개라도 하겠나?》

《소개? 아니 난 그렇게는 못해. 조언을 주지.》

《홍,자네가 뭐 나보다 인생을 더 안다고, 하기가 장가를 갔으니...》

내가 이렇게 빈정거리자 풍선은 열을 올리더군요.

《공연히 속을 썩이지 말게. 내 생각엔 어렵없어. 신정희로 말하면 일류급 의학대학을 졸업했구 인물 또한 절색이지. 전망도 대단하네. 웬만해서 말을 하지 않는 외과과장도 신정희가 집도한 수술을 보구는 내놓고 말했다는거야. 보배가 굴러왔다고.》

《...》

《거기다 가정은 또 어떤가, 프르르하지, 아버지는 연료연구소의 유명한 박사, 어머니는 시병원안과과장, 고급지식인 가정의 외동딸, 귀동딸, 그래 자넨 뭐가, 학력은 고등중학교 졸업, 직업은 용해공...》

《용해공이 어떻다는거야.》

《어랍쇼 용해공! 공대를 나온 기사님들보다 아무럼 용해공이 낫지, 놀구말구.》

《그만두게》

나는 참다못해 화를 벌컥 냈습니다.

《물론 우리야 귀중한 청춘시절에 조국보위초소에 쏘이니 당당하지. 그러나 제대군인기사, 제대군인 초급일군이 수두룩하네. 내 보기엔 저 녀선생이 눈이 높아, 친절하고 성실한건 사실이지만 어디 동무가 쓰는 그 원심을 알은체나 하던가.》

이때 공교롭게도 신정희녀의사가 외래로 가는 길가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누구예요, 거기서 담배를 피우는게.》 우리는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멀어져가는 녀의사의 미끈한 다리와 구김살 하나 없는 흰 의사복과 굵실러내린 머리모양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도 《거기서 무슨 쓸데 없는 말을 하고있어요.》라고 말하고 간것처럼 생각되어 우습더군요.

《보라구, 저 녀의사의 눈에는 자네나 나나 쪽 못혀있는 술한 병력서의 어느 하나일뿐이야. 말하자면 짜르구 붙이는 외과의의 대상이란 말이지. 자네대 피우자구.》

풍선이 이렇게 나를 휘둘러뒀지만 나는 한마디도 반박할수가 없었습니다. 성공할수 있다는 어떤 위안도 찾을수 없었습니다. 성공할수 있다는 어떤 위안도 찾을수 없는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나는 그가 주는 담배를 본척도 않고 일어섰습니다.

허리병은 차차 나아갔지만 가슴은 점점 꺼멥게 타들었습니다. 사랑하면 세상이 온통 밝고 생기넘친다고 하지만 그건 서로 사랑을 할 때이고 짝사랑을 하면 반대인것 같습니다.

나는 안착을 못하고 호실을 들락날락하고 녀의사를 한번이라도 더 만날가 해서 의사실앞을 공연히 왔다갔다했지요.

거기다 면회를 왔던 어머니가 붙는 불에 키질을 했답니다.

《담당의사선생님이 참 곱게두 생겼구나. 아직 나이는 어려보이는데 어쩌면 그리 침착하고 인사성도 밝고 상냥할가.》

물론 나이 찬 아들을 둔 어머니라 젊은 녀자들을 보면 남다른 관심을 가지는건 웅당하지만 그토록 첫눈에 들어하시는데 나는 놀랐습니다.

풍선은 나의 어머니의 그 파찬의 말에 코살을 찡그렸습니다.

《그렇가요?》

《왜 그렇지 않던가?》

《글쎄 딱히는 몰라도 저런 녀자는 눈이 높은게 탈이예요.》

《눈이 높은거야 아는게 많고 큰일을 하면 자연 그렇게 되는거지. 그게 어디 흠인가, 그건 잘못이 아닐세. 저 선생은 성격이랑도 좋아보여, 선하고 깨끗하고 자기가 고운것을 뽑내는 기색도 아니고...》

《글쎄요 ... 그런데 어머니, 우리 집사람은 어떤가요.》

풍선이 갑자기 왕창같은데로 화제를 돌리며 바싹 다가 앉아 어머니는 웃으시더군요.

《내가 뭐 관상쟁인가.》

《자네 색시는 천사야. 생기기두 잘 생기구 그보다 마음은 더 곱지. 자네 괜히 든것도 없어 가지구 우둘쩍거리거든. 내보기엔 자네쪽이 기울여.》

풍선은 펄쩍 놀라는 시늉을 하면서도 입이 합치 박만해지더군요.

《어머니, 철이 국수 빨리 먹자요.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다니지 않아도 될것 아니예요.》

《그랬으면 작히나 좋겠나. 저렇게 몸까지 변변치를 못하니, 원, 옆에서들 도와주게나.》

《어머닌 별말을 다.》

내가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풍선은 남의 기분 따위는 생각도 않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철이가 한 처녀를...》

나는 풍선의 말허리를 꺾었습니다.

《또 또 허튼소리. 자 어서 도마도나 들라구.》

어머니는 더 말이 없으셔도 무엇인가 아들에게 심상찮은 일이 생겼구나 하고 불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약, 물리치료, 진찰, 촬영 ...너의사는 언제보나 진지하고 성실하고 친절했습니다. 물론 나에게 특별히 대한다고는 전혀 생각할수 없는 환자모두에게 베푸는 친절이었지요.

나는 점점 주눅이 들었습니다. 제기랄, 이놈의 환자복이 사람을 병신 만드는모양이야. 용해장에서 저 너의사를 만나기만 해두 대답하게 다 말하는건데...

나는 편지 쓸 생각을 해냈습니다. 마주 서서 말은 못해도 글을 써주면 좋든싫든 읽어볼것이다.

풍선이 소풍을 하자해도 침대에 불박혀 마음속으로 글줄을 짚 써나가곤했지요.

《...난생 처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이 글을 보고 웃던지 얼굴을 붉히던지 그건 동무의 자유입니다. 저는 지금 가슴속에 끓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라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수가 없습니다. 제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피로워하는것은 억울합니다. 공정치 못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동무때문에 생긴 부담입니다. 저는 동무를 보는 순간부터 안정을 잃었습니다. 군대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훌륭한 너군의들을 보았고 사회에 나와서도 얼마든지 성실하고 아

름다운 녀성들을 대하여왔지만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동무의 무엇에 끌렸는지 오직 한 자밖에 모르는 성실한 마음에 반했는지, 아름답고 고상하다는 표현은 동무가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정신의 높이에 비기면 너무도 흔한 보통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허나 그보다 저는 동무의 그 모습 속에 숨겨져있는 마음, 지니고있으면서도 동무자신이 알지 못하는 진주보석을 꿰뚫어본건 같습니다. 누구보다먼저, 그리고 정확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의 이 진정을 받아주고 안받아주는것도 동무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동무에 대한 이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렵니다. 설사 이 사랑으로 하여 상처를 입는다 해도, 이 사랑의 노예가 된다 해도 행복할것입니다...》

흥분도 되고 가슴이 후련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좀처럼 종이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그런 편지나 쓰는것이 께께하게 생각되더군요, 너의사가 받아보면 비웃을것 같았습니다. 시시하게 침대에서 이따위짓을 했다고말입니다.

끝내 다 걸어 치웠지요. 그리고 남자답게 결심을 했지요. 만날테다. 만나서 대답하게 다 털어놓을테다. 이렇게 생각을 굳히니 모든것이 단순했습니다.

리철은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멈추었다.

《선생님, 제가 쓸데없는 말을 길게 늘어놓는게 아닙니다까?》

나는 대답을 하지 않고 담배를 꺼냈다.

《자 한대 피우자구.》

《여기 있습니다.》

《난 담배를 삼가하네. 심장에 결정적으로 나쁘니까. 그렇지만 이런 때는 어쩔수 없이 한대 피우거든.》

나의 말에 리철은 웃었다.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웃으시면서.》

《리철동무, 그 <련애편지> 를 너의사에게 줄걸 그러지 않았소?》

아닙니다 쓰지 않길 천만번 잘했지요. 글쎄 제말을 마저 들어보십시오.》

리철의 이야기는 다시 이어졌다.

마침 기회가 생겼습니다. 신정희가 수직을 서는 날이었지요. 모두 퇴근하고 의사실에는 그가 혼자 있었습니다. 밤이 이숙해지자 병실들에 불이 꺼지고 간호원실에서도 누구인가 주사를 맞는지 두런두런 말소리, 금속성의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것도 조용해지더군요. 나는 풍선이 눈치챈가 조심히 일어나 복도에 나갔습니다.

수직등만 한중간에 켜있는 복도는 좀 어두웠습니다. 나는 아직도 딱히 결심을 내리지 못하는 내 마음에 용기를 북돋으면서 의사실앞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비스듬히 열린문으로 피끗 보니 신정희의사가 책상앞에 앉아서 무슨 책인지 열심히 보고있더군요. 복도끝에 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다시 의사실앞에 와서 멈춰섰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못나게도 또 망설였습니다. 그만둘까 가서 잠이나 자고말까, 이러고섰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너의사가 나오는것이 아닙니까. 인기척을 느낀 모양입니다. 나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모닥불을 들 쓴듯 온몸이 달아 올라 엉거주춤 서있었지요.

《왜 그래요. 더 아파요?》

나의 낯색을 살피며 묻는 그 말은 다행히도 별다른것 없이 친절했습니다. 나는 열결에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예, 그저 좀...》

《들어오세요.》

나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은 눈이 부실정도로 밝았습니다. 꽃봉오리를 소북이 쳐든 만수국화분이 어쩐지 내 마음을 정화시켜주는듯하였습니다.

너의사는 나에게 자리를 권하고 자기도 앉으면서 흔히 환자들을 마주하면 묻는듯한 시선으로 바라보듯 그렇게 보더군요, 어서 말을 하라는거지요. 나는 인차 입을 열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으니 너의사는 일어서더군요. 병력서가 있는 장앞에 가더니 나의것을 찾아들고 다시 자라에 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장한장 처음부터 들치며 우리 말과 라틴글로 된것을 찬찬히 보더군요.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가슴이 가라앉았습니다. 너무도 실무적인, 의사의 그 직업으로만 대하는 너의사의 태도에 다시금 놀라지 않을수 없었지요. 그래도 얼마간은 나를 다르게 보리라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던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이렇게 찾아왔으니 하다못해 생활적인 이야기라도 하리라고 믿었지요.

내가 품고온 생각이 너무도 어리석다는것을 깨닫는 순간 자격지심이 들고 반발심이 생기더군요.

그래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가겠습니다.》

의사는 내 척추를 짚은 필름을 불빛에 비쳐보다가 나에게 눈길을 돌리는데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된다는 의혹과 놀라움이 실린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문계로 향하려던 걸음을 돌리고 너의사의 얼굴을 똑바로, 처음으로 그렇게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으면서 마주 바라보며 말했지요.

《나는 선생처럼 공부를 많이 못해 아는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제 다겠습니까?》

《아이 참 리철동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입원해서 환자복을 입고있으니 사람이 우습게 보이지요?》

이제 생각하면 별 우스운 강짜지만 그땐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게 씨원하더군요.

너의사는 당황하여 어쩔줄 몰라했습니다. 나가는 나를 붙잡을듯 일어서면서 찾았습니다. 나는 멈춰섰지요.

《리철동무...미안해요. 요즘 수술이 많이 제기돼서 동무들을 잘 돌봐드리지 못했어요. 약이랑 치료랑... 래일 촬영도 다시 하고 물리치료실에도 들려보겠어요.》

다른 때 같으면 너의사의 이런 말에 백번 미안한감이 들었겠지요. 그러나 나는 속이 뒤틀려 의사실을 나섰습니다.

《됐습니다.》

그 무슨 선언처럼 이 말을 뒤에 남기고 ...

호실에 와서 모포를 뒤집어쓰고 누웠는데 인차 간호원이 뒤따라와서 진정제알약을 주고갔습니다.

나의 행동을 환자들에게 흔히 보는 신경증세로 이해했던게지요.

그래 진정을 하자. 가슴을 가라앉히자. 영영 잊어버리자.

나는 고뿌에 찬물을 쭉르르 따라 진정제를 먹었습니다. 다음날 림풍선이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림풍선이 그 다음날 저녁에 나를 찾아왔더군요. 정원에 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풍선은 나에게 담배를 권하면서 경계하는 눈초리를 여기저기 돌렸습니다. 너의사에게 말을 들던 그 자리였으니까요.

《무슨 생각이 나서 또 왔나.》

풍선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아 나는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풍선은 바싹 다가앉으며 저어하듯 말했습니다.

《퇴원하자 그를 만났네.》

《누굴?》

《누구긴 신정희말이지. 집에도 찾아갔뎌네.》

나는 너무도 뜻밖의 일에 놀랐습니다. 울컥 화가 났지만 동무를 위하려는 마음이 리해되어 참았지요.

《다 갈구갈아.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딸이지, 코가 높아, 신정희는 내 말도 다 듣지 않구 뭐 자기는 방금 대학을 나왔는데 힘껏 일을 해야겠단나. 그래 우리는 놀아도 될사람인가. 그리구 자기는 아직 그런 생각이 없다는거야. 그래 스물다섯살이 적어, 상투적인 수법이지 싫으면 그런 식으로 말하거던.》

《...》

고운 녀자 마음 고운거 못봤다니까. 건방진 녀자야. 날보구두 뭐 이런 시간이 있으면 일을 더 해서 혁신자가 되면서 웃지 않겠나. 제가 그러지 않은들 내 할일 모를가. 쳇, 신정희, 신정희하니까 잔뜩 눈이 이마에 올라붙어가지고, 어디 얼마나 시집 잘가나 보자구. 틀림없어. 저런 녀자는 이제 홀애비한테 가기 십상이지.》

나는 웃고말았습니다. 풍선이 공연히 죄도 없는 신정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것도 우습고 그날밤에 단념을 하고서도 상기 먼빛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있던것이 너무도 어리석어 우스웠습니다.

다음날에 녀의사는 내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캐러 갔다고들 하더군요.

그후에 나는 퇴원했습니다. 결국 육체의 병은 고쳤지만 마음에는 상처를 입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리철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나의 눈앞에는 영화가 끝나도 영사막에 계속 주인공의 얼굴이 세워지지 않을 때처럼 그 미모의 신정희얼굴이 선하게 보였다.

그래 리철에게 실례가 될것도 생각못하고 불쑥 말했다.

《저 녀의사를 한번 보고싶은걸. 이제 시집을 갖겠지.》

《예》

리철의 대답은 시들했다.

그간 시간이 퍼그나 흐른듯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고 창문의 불빛들은 더 환히 빛났다. 우리는 잔디밭에서 일어섰다.

《선생님, 저기 보이는 첫호동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들렀다. 가십시오.》

《아니, 다음에 들리지, 오늘은 일이 있어서.》

나는 사실 아무일도 없었다. 다만 리철의 이야기를 방금 듣고 그의 안해를 만난다는것이 미안해서였다. 평범한 보통 가정이라해도 모르겠는데 영예군인과 일생을 함께 하는 훌륭한 여성을 어떻게 리철의 첫사랑의 이야기를 생생히 기억하면서 만만단 말인가, 녀석 그집 문턱을 넘어서면서 아닌 보살 인사를 하고 말을 하고 웃을것이 죄송했다.

《자 다음에 들림세.》

《아, 이거 너무합니다. 문턱에까지 다 오셨다가 ... 마침 오늘 시원한 맥주를 갖다놓았습니다.》

나는 끝내 그의 간청을 물리칠수가 없었다.

그의 집은 훌륭했다. 복도가 따로 있고 전실이 넓적하고 아래우 두칸에 복도를 사이두고 따로 한칸이 또 있었다. 목욕탕, 세면장, 위생실 ... 가장집물도 그췌었다. 채붕기, 이불장, 옷장, 텔레비죤수상기 ... 책상앞에는 리철이 편히 앉을수 있게 만든 리발의자 비슷한 의자가 놓였다.

《아직 부인은 안들어왔나?》

《글쎄 오늘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

집구경을 시켜준 리철은 이렇게 중얼대며 부엌에 들어가 랭동고안에서 맥주병을 들고 나왔다. 번들 번들 물고랑이 지는 맥주병에서는 찬기운이 풍겼다. 고뿌, 양념장, 껌질벗긴 명태를 간단히 상우에 차려놓은 리철은 큰고뿌에 거품이 이는 맥주를 부어 나에게 먼저 권했다.

《시원할겁니다. 우리 영예군인공장에서 가끔 이렇게 공급하는데 맛이 괜찮습니다.》

《영예군인것을 축내서 미안한걸.》

《값을 받아야지요. 시를 한편 봐주셔야 합니다.》

《하, 그거 너무 비싸다.》

우리는 웃고나서 한잔씩 쪽 들이켰다. 쟁-한게 가슴에 흘러내렸다. 맥주는 정말 이런 맛에 마신다.

《자, 어서 들라구. 안주인이 오기전에 제격 마시자구. 녀자들은 이런 맛을 몰라 공연히 안주요 뭐요 하면서 미안해하거든. 편안치 않게 ...》

물론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리철의 안해가 들어서기전에 맥주맛이나 보고 어서 갈 생각이였다.

하지만 인차 복도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아이들이 방에 들어왔다.

《아버지!》

달래뽕지를 한 대여섯살 처녀애와 그보다 좀 작은 사내애가 무작정 뛰어들다가 무춤 섰다.

《선생님에게 인사해야지.》

리철이 이렇게 말하자 아이들은 굵적굵적 절을했다. 나는 아이들의 인사를 받으면서도 뒤따라 들어서고있는 부인에게 눈길을 돌렸다.

30대 전후한 녀성들에게서 흔히 보는 틀잡힌 건강미가 풍기는 녀인이였다. 류행의 파도형머리, 보기 좋은 키, 눈에 띄게 고운 얼굴, 아래우 연한 계란색 짧은 소매양복을 몸에 맞게 입은 차림새는 첫눈에도 몹시 세련되어보였다.

리철이 나를 소개하자 녀인은 반갑게 인사를 했다.

(잘됐어. 참 일이 멋지게 됐어. 그 녀의사가 이 집에 한번 와보면 시샘이 나겠는걸...)

녀인이 조용히 물러나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리철의 어깨를 슬그니 끌어당기며 속삭이듯 말했다.

《어떤가. 그 녀의사보다 ...》

묻는 말이 아니였다. 오히려 모든 면에서 일이 썩잘된것 같은 나의 소감을 말하고 싶은 심정이였다.

리철은 빙긋이 웃으며 나의 빈 고뿌에 맥주를 가득 부었다.

《사실은 저 ...》

《그래 어떻다는건가.》

《아까 죄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 같아서 … 저사람이 바로…그 잘난 신정희녀의 사람입니다.》

《응! 뭐라구? 차 이젠 또 무슨놈의 감투끈인가!》

나는 지금까지 낮추었던 목소리를 탁 터치며 상체를 뒤로 젖혔다.

《이젠 너무 엉큼한걸. 도대체 어떻게 된거요.》

리철은 담배통에서 한대 집어 나에게 권하고 자기도 불을 붙였다.

《퇴원한지 몇달만에 다시 그 허리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척추에 갑자기 생리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반신마비가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불구가 됐지요. 완전히 침대에 묶이우고 말았습니다.》

《…》

《내가 입원했던 군대병원에서 군의들도 찾아오고 … 당에서는 정말 많은 배려를 돌려주었습니다. 영예군인으로도 해주고.》

리철은 부엌쪽을 한번 바라보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질색을 합니다… 봄날이었지요. 정말 시샘이 나게 창밖에는 봄빛이 차넘치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딘가 나가시고 나는 침대에 혼자 있었는데 문두드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대답을 안했지요. 출입문쪽에 등을 돌려만채 가만히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손가락소리가 또 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방문자가 반갑지 않았습니다. 불구가 되어본 사람이나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은 이해할겁니다. 찾아와서 동정을 하는것도 싫어지고 일부러 혼연한 안색을 짓고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애쓰는것도 부담이 됩니다. 방문객이 없으면 고적에 시달리고 또 오면 시답지 않고 … 그래서 아마 이날도 웅대를 안한것 같습니다. 문이 슬며시 열리더군요. 나는 방문객의 일거일동을 뒤등으로 느꼈습니다. 가만히 서있다가 침대곁으로 다가오는것 같았어요. 누굴까 짐작을 해보면 한동안 있는데 글썸 흑- 하고 느껴우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놀랐지요.》

돌아누우며 올려다보니 아, 글썸 …애써 지워버리려 하였지만 의지와는 달리 하루도 잊어본적이 없는 너의사가 서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얼굴을 감싼 그의 손가락들 째모로 눈물방울이 흘러나와 손등으로 흐르고 어깨는 가볍게 물결쳤지요.

이때의 나의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할지. 어머니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고 누이동생도 그렇게 울었더랬지요. 너의사의 그 눈물은 불구가 된 저에 대한 연민, 저의 피로움을 자기것으로 사무치게 느끼는

육친적인 정이였습니다. 나는 목구멍이 꼭 메여올라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감동되었습니다.》

안해가 알뜰히 다듬어 짜른 풋마늘접시와 고추장을 상우에 놓고 나가자 끊어졌던 이야기를 다시 이었다.

《너의사는 날마다 찾아왔지요. 말하자면 또다시 〈담당의사〉가 된 셈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가정을 이루기까지는 사연이 많았습니다. 너의사의 마음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사랑하기때문에 더 그랬지요. 그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행복을 결코 바라지도 않았고 허용할수가 없었습니다.》

리철은 이렇게 말하며 책상서랍에서 편지봉투를 꺼내가지고 왔다.

《그러나 이 편지는 굳게 다진 나의 결심을 흔들여 놓았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색갈이 날지 않은 봉투에는 진달래꽃이 떨기지어 피여 웃었다. 나의 눈은 어느덧 알뜰하고 정갈하게 쓴 글줄을 따라가고 있었다.

《…마주 앉아서서는 저의 심정을 그대로 전할것 같지 않아 펜을 들었습니다.》

리철동무, 솔직히 말씀하세요. 혹시 제가 싫어진 건 아니예요, 아니예요. 동무는 지금 저를 위해서. 저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있어요. 동무는 어쩌면 혼자생각만 하세요. 혼자생각만 하는가 말입니다.

동무는 제가 아직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는 그때 저의 고요한 가슴을 흔들어놓았지요? 그리고도 이제와서는 너무도 단순하게 모든것을 단념하고 물러서고있습니다.

그러나 동무는 그전처럼 그 어떤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할수 없는 처지라는걸 아셔야 합니다. 용서하세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회적복무기간이 짧은 저에게 사랑을 고백했기때문에 저자신에게 그 어떤 의무감도 없다고 말할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잔잔한 호수가에 던져진 돌이 파문을 일으키듯 한 처녀의 가슴을 흔들어놓은 량심은 속일수 없을것입니다.

저 역시 동무를 두고 그 어떤 의무감으로만 생각했다면 저의 량심은 비쳐지지도 않았을거예요.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결국 동무는 저를 위한 다지만 그것이 더욱 혹독하게 제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는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의 량심은 동무가 아닌 그 누구에게서도 그늘 없는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나라의 모든 처녀들이 그러하지만 저는 동무를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권리는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베풀어주신거랍니다. 그래 동무는 군사복무를

하다가 젊은 나이에 영예군인이 된 전사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신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뜨거운 심리의 말씀을 모르고산단말입니까? 우리 사회주의제도가 동무를 일생 독신으로 살게 내버려둘것 같습니다까?

결국 동무는 리기적인 인간이에요. 혁명동지와 집단도 안중에 없는... 저는 더이상 동무를 그대로 내버려 둘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발 부탁이니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축축히 젖어드는 눈길을 들어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철의 도시에 노래가락마냥 울려퍼지는 전기로의 동음소리, 가로수에 날아들며 우짖는 새무리들, 서로 정답게 인사를 주고받으며 오가는 사람들... 모든것이 아름다운 시대의 화폭으로 가슴에 안겨왔다.

끝 끝한 제대군인총각, 건강한 용해공일 때는 받아들이수 없던 사람이 불구가 되었을 때는 열화처럼 견잡을수 없었던말이지! 리철의 몸이 제하나만이 아닌 전체를 위한 일. 녀의사자신도 포함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한것에 바쳐졌다는것을 알았을때는 사랑을 의무로가 아니라 권리로 받아들인 처녀!

이것을 어찌 인간의 범속한 사랑으로 설명할수 있으랴. 매 개인의 운명이 전체와 하나로 융합된 그런 사회에서만 있는 참다운 사랑이 아니겠는가.

나는 한없는 경모와 감사에 젖은 눈길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초상화를 오래도록 우러르었다.

《옥심이 아버지 있나?》

누구인가 복도에서부터 리철을 찾으며 들어섰다. 우둥통하고 눈이 서글서글한 청년이었다.

《풍선동무가 아니요?》

리철이보다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저를 어떻게?》

《다 아는 법이 있지요. 림동무가 이 집에는 오지 못할줄 알았는데...》

《아니 제가요? 그건...》

풍선은 의아해서 리철을 바라보더니 모든것을 짐작한듯 그의 어깨를 철썩 때리며 성을 내는체 했다.

리철의 안해가 맥주고뿌를 하나 더들고 들어왔다그것을 받아들며 풍선이 흰목을 뽑았다.

《보십시오. 제격 환대하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나는 아주머니편입니다. 리철이 이 친구를 설복하는데는 내 공로가 컸습니다. 그렇지요? 아주머니.》

리철의 안해는 그저 웃으며 맥주를 부었다.

내가 그의 말을 받았다.

《내 알기엔 녀의사의 뒤욕을 많이 한것 같은데... 아마 아주머니가 대단히 환대한 모양인걸.》

우리는 모두 즐겁게 웃었다. 좌석은 더 흥성이었다.

밤이 깊어서야 나는 리철의 집을 나섰다. 문밖에 까지 따라 나서는 리철과 안해에게 《잘 놀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

좀 더 다른 말을 해줄수도 있었으련만 나는 영예군인 리철이와 그의 안해 신정희, 그리고 오늘 잔치를 치른 서해기슭의 한 처녀와 철의 도시의 영예군인총각을 두고 하많은 생각에 잠겼던것이다.

이나라 녀성들의 깨כות 량심으로부리 진심으로 흘러나오는 고상한 사회도덕적의리를 두고...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꽃피날수 있는 공산주의적률리를 두고...

하늘의 못별들은 그 많은 이야기를 속삭이듯 수없이 반짝이었다. 나는 정다운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속에 걸음발을 옮겼다.

가사

혁명의 붓으로 우리당을 지키리

신지락

당기에 금빛으로 새겨진 우리의 붓

영원한 동행자의 신념으로 빛나네

혁명의 붓으로 우리 당을 지켜가리

주체의 붓으로 사회주의 지켜가리

마치와 낫과 함께 새겨진 우리의 붓

충실한 방조자의 모습으로 빛나네

혁명의 붓으로 우리 당을 지켜가리

주체의 붓으로 사회주의 지켜가리

위대한 당의 사상 받드는 우리의 붓

훌륭한 조연자의 목소리로 빛나네

혁명의 붓으로 우리 당을 지켜가리

해빛넘치는 초소

조수희

태양은 대지를 포근하게 감싸안았다. 해별이 부드러워지고 바람도 새침한 맛이 없어졌다. 낮은산에 빼곡이 들어찬 송림들에는 초록색 물기가 올랐고 해묵은 풀뿌리에서는 새싹이 움돋았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몸소 다녀가신 2중3대혁명붉은기 변순녀동무소속구분대를 찾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봄바람에 실린듯 텔레비존에 소개되었던 병사들이 이번에는 고사총사격훈련에서 《우》를 쟁취하여 이름을 날렸다니 어서 축하해주고 싶었다.

저기 술밭속 양지쪽에 아담히 자리잡은 병실이 보인다. 예술소조경연준비를 하는지 손풍금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녀성군인들의 노래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울려온다.

맑은 시내가에 버들꽃피는
화창한 이른봄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초소에 오셨네
...

고사총수 처녀들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영원히 받들어 모시려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부르는 노래소리를 들이니 새삼스럽게 1975년 3월 13일 몸소 이곳 중대에 찾아오셨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인자하신 영상이 떠올랐다.

그날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몸소 고지우에 있는 고사총진지에까지 오시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숭고한 모범으로 병사들을 이끌어주시면서 군인들의 심장속에 이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신념의 역센 기둥을 심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고자 하는 인민군대를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당의 가장 큰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우리가 중대병실앞에 들어서니 구호 하나, 속보한장에서도 일당백 초병들의 불타는 충성심을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부분대장 하사 김영실동무, 소대장의 임무를 수행할수 있게 준비!》

《신입병사 전사 리성란, 구대원의 수준돌파! 열렬히 축하한다.》

우리가 전투소보를 써붙이는 중대정치지도원 현금회동무와 인사를 나누며 모두가 이렇게 한등급씩 높은 직무를 감당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었는가고 물으니 지금은 한등급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표를 실

현하기 위하여 비등된 열의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눈으로 직접 보는것이 어떤가고 반문하였다.

생긋이 웃음을 짓는 그의 동실한 얼굴에는 자신감이 어려 있었다.

《우선 중대장동무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중대장동무는 지금 중대사무실에 서 새로운 전술훈련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치지도원 현금회동무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우리를 이끌었다. 우리는 그를 따라 아늑한 가정적 정서를 느끼며 병실에 들어섰다. 티 한점 없이 하얀 벽과 대리석을 깔것처럼 반들거리는 복도,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첫 입구에는 방음장치가 되어있는 커다란 짝문이 있었다.

《무슨 방입니까?》

《침실입니다.》

현금회동무가 열른 문을 열었다. 좌우에 온돌식으로 된 길다란 침대가 첫눈에 안겨왔다. 감빛색갈의 보드라운 모포가 자를 대고 그은것처럼 가지런히 정돈되었는데 해빛이 쏟아지는 창문가에 놓인 싱싱한 꽃화분들로 하여 침실은 더한층 가정적분위기를 느끼게 하였다.

《병실이 전사들의 포근한 보금 자리로 손색이 없게 잘 꾸려졌구만요. 막 기름이 잘잘 도는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으기 감동되었다. 현금회동무는 이병실을 꾸리는데도 중대장 변순녀동무의 노력이 많이 깃들어 있다면서 중대부로 먼저 발걸음을 옮기었다.

마침 중대장 변순녀동무가 인기척을 듣고 문을 열었다가 우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원산에서 입대한 후 이곳 중대에서 전사배낭을 풀었는데 군관학교기간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계속 중대에 있었다고 한다. 얼굴은 복스럽고 가름한데 익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한 뺨이 대번에 모든것을 꿰뚫어볼것 같은 어글거리는 눈과 잘 융합되어서 이악하겠다는 느낌을 주었다.

《중대의 전투력강화에서 군부대의 단연 앞장에 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허두를 떼자 변순녀동무는 펄쩍 뛰며 얼굴을 붉혔다. 자기는 한 일이 없다는것이였다. 정치지도원동무가 군인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중대가 단합된 집단으로 되었고 그것이 곧 전투력강화로 이어졌다는것이다.

그러자 정치지도원 현금회동무가 한수 더 뻗다.

《중대장동무두 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중대에 다시한번 모시자면서 밤낮으로 뛰면서두 그렇게 시치미를 떼면 됩니까?》

우리는 저도 모르게 두 지휘관의 아름다운 싱계에 끌려들었다.

《정치지도원동무, 그게 어떻게 나혼자의 생각이 나요. 배우가 되겠다던 꿈을 버리고 군인들을 위해 애쓰는 정치지도원동무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가동지들, 우리 정치지도원동무는 11살때부터 여섯번이나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에 참가했는데 몇년전에 열린 전국학생독연때에는 2등을 하여 파문을 일으켰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무장으로 보위하는 것이 첫째가는 임무라면서 손에 총을 잡고 정치일군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소개하려면 이런 동무를 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한두마디 말속에서도 우리는 중대의 전투력이 강화된 비결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이렇게 두 지휘관의 마음이 꼭 같이 아를 다울까! 이들은 외형은 물론이요 성격 또한 판이하다. 중대장은 남성적이고 직통배기라면 정치지도원은 얌전하면서도 사근사근한 녀성의 전형이다.

그러나 조국의 하늘을 철벽으로 지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된 본분을 다하겠다는 불같은 마음으로 심장의 박동을 맞추기때문에 중대를 이렇듯 모범전투단위로 꾸려 놓지 않았겠는가.

《잊을수 없는 그 날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 초소를 찾아주신 것처럼 이제라도 문득 다시 오실것만 같아 우리들을 항상 영접준비자세로 군무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변순녀동무는 그렇지 않는가고 묻기라도 하듯이 정치지도원을 바로 보았다.

이때 갑자기 중대부벽에 설치된 신호등이 깜빡거리면서 야무진 총소리가 울렸다. 지금까지 생각깊은 얼굴들이던 두 지휘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겨났다.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두 지휘관은 번개같이 문을 열고나서자 진지로 치달아올랐다. 교양실에서 울리던 노래소리도 똑그치고 병사들은 각기 좌지를 차지하였다. 초소에는 팽팽하게 긴장이 어리었다.

《제1좌지 전투준비 끝!》

《제3좌지 전투준비 끝!》

《...》

야무지고 담찬 보고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중대 주의!》

방금전까지 다감한 정서에 잠겨있던 녀성군인들의 얼굴에는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적기를 소멸할 단호한 결심과 불굴의 투지만이 비껴있었다.

중대장이 높이 든 붉은기를 따라 소대장들과 분대장들의 기발이 함께 들렸고 탄갑에서 시누런 탄피를 꺼낸 장탄수들이 기관실에 절벽 물리는 소리가 울렸다.

우리는 분대장 리금주동무가 지휘하는 8분대에로 향했다. 날씬한 몸에 혁띠를 꼭 조인 리금주동무는 중대장의 구령을 짚싸게 되받으면서 사격체원을 하달한다.

요즘 더욱 로골화되는 비무장지역에서의 미제와 남조선피괴도당들의 북침공중전쟁연습은 이들에게 끝없는 분노를 야기시켰고 언제 조국의 하늘로 날아들지 모르는 놈들에게 즉시 반격태세를 갖추게 했다.

전사들모두의 얼굴에는 분별없이 날뛰는 원수놈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가 한결같이 어리었고 매개수행동작들에서는 투지와 자신만만함이 느껴졌다.

그렇수록 중대장 변순녀동무는 요구성을 더욱 높였다.

《모든 전투원들이 기준시간을 절반으로 줄이자!- 이것이 우리의 당면목표입니다.》

정황이 해제되자 변순녀동무는 얼굴의 땀을 훔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전쟁연습에 날뛰는 원수들이 언제 어떻게 비행기기수를 돌려 덤벼들지 모르는 조건에서 그 어떤 정황에도 대처할수 있는 무적의 준비태세를 갖추는것은 이들이 스스로 정한 전투목표였던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탄복하였다. 군관과 병사, 구대원과 신대원모두가 그 어떤 임무, 그 어떤 정황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만능고사기관총수로 자라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현지도 하신 영광의 초소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자면 응당 그에 맞게 전투준비정도가 최상의 수준으로 높아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들은 밤과 낮이 따로없이 훈련을 하고 숙련을 쌓아가면서 충성의 구슬땀을 흘리고있는것이다.

충성의 땀방울에 병사의 량심을 비쳐보며 군무생활의 나날을 빛내이는 일당백의 병사들, 이들과 맞설 적들이 어데 있는가. 바로 이런 병사들이 조국의 하늘을 지켜서있기에 우리 인민은 미제와 그 추종자들이 제 아무리 발광을 하지만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힘차게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비록 정황에 따르는 훈련이었지만 준엄한 시각에는 그 충성의 땀방울이 무자비한 불벼락으로 원수들을 전멸케 할것이다. 하여 태양의 따사로움속에서 봄별이 무르녹듯이 충성의 마음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우리 식 사회주의락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울것이다.

봄, 만물이 소생하는 봄!

우리의 마음도 이좋은 봄날에 영광의 초소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또다시 모실 간절한 소원으로 끓어 올랐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 눈앞에 박두했음을 심장으로 느끼며 우리는 초소동무들의 손저음속에 귀로에 올랐다.

기다리는 고향

김준혁

중대에서 얼마 멀지 않은 농장마을의 시내를 건너 지나던 윤철은 다급히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다. 사방을 둘러보니 저아래쪽에서 두명의 어린이가 소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는 혼자였다. 옷도 벗을 사이가 없이 퐁당 물에 뛰어들었다. 윤철은 아이들을 기어이 구원해내고야 말았다.

만기복무를 눈앞에 둔 윤철이가 표창휴가를 받게 된 사연은 이러하다.

이 일로 하여 그는 부대장의 감사를 받았고 며칠 후에는 이렇게 표창휴가로 고향으로 향한 열차에 몸을 싣게까지 된 것이다.

윤철은 고향으로 간다. 이제 한시간정도 더 가게 되면 열차는 한적한 간이역에 잠시 멎어서고 거기서 윤철은 배낭을 들고 역홀에 내려설 것이다.

빨간 모자를 쓴 운전지휘원이 전철기열에 서있을 것이고 안내원이 꾸물거리는 손님들을 재촉할 것이다.

윤철이가 몇년전 군복을 입고 고향을 떠날 때 바로 그랬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근심어린 얼굴로 윤철을 바래주며 이렇게 말했다.

《윤철아, 기다리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너라.》

바로 그런 절절한 당부를 하였던 어머니에게 윤철은 이제 기쁜 소식을 안겨주게 된 것이다.

《어머니, 전 군관학교에 가게 될것입니다.》

윤철은 주름깊은 얼굴에 대견한 미소를 짓고있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보았다.

바로 그렇다. 표창휴가를 떠나는 그의 배낭에 도중식사를 넣어주며 과묵한 정치지도원이 그렇게 귀뜸해준 것이다.

《윤철이, 이번에 가서 부모님들과 잘 토의해보라구. 중대에서는 동무를 군관학교에 추천하려고 초보적으로 토론이 있었소.》

윤철은 몇몇이 고향집의 사립문을 열어제낄수 있게 된것으로 하여 기뻐다.

열차는 윤철의 이런 기쁨과 그리움, 초조감을 싣고 고향으로, 줄기차게 달렸다.

차창으로 가물거리는 불빛들이 희희 지나쳤다.

이윽해서 열차가 낮익은 역에 멎어서자 윤철은 역홀에 내려섰다. 모든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말없

이 손을 내미는 안내원에게 차표를 넘겨준 그가 배낭을 어깨에 메고 역을 빠져나왔을 때 어디선가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윤철은 머리를 수긋하고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겼다.

베어놓은 버단들이 드문드문 쌓여져있는 논벌들이 환한 달빛에 드러났다. 저 멀리서 버단을 실어들이는 트랙터의 발동소리가 귀맛 좋게 들려왔다.

사람의 손이 간지 오랜 물땅크가 있는 높지 않은 억덕을 넘어 사과나무, 배나무들이 섞여있는 과수원을 지나자 곧 고향마을이 나타났다.

개들이 킁킁 짖어댔다. 윤철은 발을 세게 쿵쿵 굴렀다. 그러자 강냉이단뒤에서 짖어대던 고양이 보다 조금 큰 개가 후다닥 놀라며 달아나버렸다.

멀리 집이 보였다. 울밖의 터밭과 대문, 높이 솟은 텔레비존안테나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변함없이 있었다.

윤철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얼마나 와보고싶던 고향집인가.

조용한 근무의 여가시간에는 물론이고 무거운 장구류가 사정없이 어깨를 내려누르던 강행군의 겨를 없는 때에도 그의 가슴에 짝 차있곤하던 정든 고향집이다. 바로 그 고향집이 눈앞에 있는 것이다.

윤철은 오푸러질듯 달려가 대문앞에 섰다. 교묘한 달빛이 어슴푸레하게 윤철의 앞을 밝혔다.

울렁거리는 마음을 안고 배낭을 추슬러올리며 윤철은 푹푹 소리나게 대문을 두드렸다. 편뜻하고 불이 켜졌다. 마당안이 흰해지는것이 알렸다.

《게 누구요?》

어머니의 목소리이다. 이제는 퍼그나 석싹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찌릿하게 윤철의 가슴속으로 흘러들어왔다.

《걸지 않았수다. 밀고 들어오슈.》

윤철은 어머니가 시키는대로 하였다. 그는 문을 안으로 들이밀었다.

짤랑짤랑 문에 종을 매달았는지 소리가 울렸다. 그가 고향을 떠날 때에는 이 딸랭이가 없었다. 그저 찌쿵- 하는 소리만이 나곤하였다.

문을 열고 구멍이 송송난 깨진 벽돌장들을 촘촘히 깐 마당으로 척 들어서선 윤철은 마당안을 얼핏 둘러보며 크게 소리쳤다.

《윤철이가 왔습니다.》

《뭐라구?》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의 놀라움에 찬 목소리가 일시에 터져나왔다.

《정말 윤철이냐? 어디 보자.》

윤철은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다. 아니, 어머니가 그를 뜨겁게 열렬하게 한가슴에 껴안았다.

《어머니!》

아버지가 달려나오고 동생들인 상희와 성철이가 뛰어나왔다. 마당안은 삼시에 떠들썩하여졌다.

내뻗친 앞다리에 턱을 박고 자고있던 개가 새끼들을 뒤에 달고 헛간옆으로 사라졌다.

《자, 어서 들어가자꾸나.》

《오빠! 배낭 이리줘요.》

방에 들어선 윤철은 모자를 벗어 옷걸이에 걸어놓았다.

《방이 꽤 넓어보입니다. 꼭 작업반선전실같은요.》

윤철은 구석쪽을 보며 본의아니게 멀뚱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허허, 자 앉아라. 힘들겠는데.》

시간가는줄 모르고 이야기들을 하였다. 이야기들 하면서 윤철은 집식구들의 모습을 자세히 여겨 보았다.

농장 탁아소 보육원으로 일하는 어머니는 썩 늙으셨다. 이마와 눈가에 주름살이 열기설기 얹혔다. 보육원이 아니라 농장원모습 그대로였다.

윤철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거칠은 손등이며 마디불거진 손가락들을 쓸어만졌다.

소박한 어머니가 자신의 꿈을 적어보내던 그 손이다. 어머니는 언젠가 이렇게 편지를 썼다.

《윤철아, 오늘은 날씨가 나빠서인지 아이들이 몹시 울었다. 건너집 손자애는 영 울보여서 아무리 달래어도 어디 말을 듣니. 게다가 배나무집애와 박우물집애들은 어찌나 갈개는지 화가 다 나더구나.

네 어릴 때 생각을 했다. 어떻게 할지. 넌 영울보도 아니었지만 또 순한 애도 아니었지.

걱정이 된다. 군무생활을 잘해라. 동무들의 짐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버지와 이 어머니가 그리고 동생들이 기다린다는걸 언제나 명심해라.

가슴가득히 누런 훈장들을 달고온 너를 데리고 온 마을을 다니며 자랑할 그날을 어머니는 학수고대한다...》

어머니의 편지는 늘 이 비슷하게 끝나곤하였다.

정말 고마운 어머니였다. 웅심깊고 인자한 어머니의 기쁨을 보며 윤철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머니, 제 걱정으로 머리가 다 세였군요.》

《네 에민 그저 네 생각뿐이다. 우리 윤철이, 우리 윤철이, 어떤 때는 막 듣기 싫을 정도였으니까.》

아버지가 썰어놓은 담배를 대통에 다져넣으며 대답했다.

상희가 사과를 가득 담은 다반을 들고 들어왔다.

《오빠, 사과 들라요.》

윤철은 제일 큰 사과 한알을 덩석 들이 크게 한입 베어물었다.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것이다.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이고 동생들까지 그 모양을 보고 좋아했다.

《우리가 모기에 뜯기우며 밤새 초소근무를 설편 말이다. 상의야, 제일 먹고싶은것이 고향의 이 사과였다.》

향긋한 사과향기가 방안에 퍼졌다. 시간이 흘렀지만 이야기는 도무지 끝이 있을상싶지 않았다.

어머니가 시계를 보고는 윤철의 군복단추를 끌러주며 말했다.

《장밤 이러구있겠느냐? 상희야, 오빠가 힘들겠는데 쉬도록 해야지.》

그제야 상희는 윤철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며 일어섰다.

《어서 오빠방으로 가자요.》

《내 방이라니?》

윤철은 놀랐다. 무슨 소린지 알수 없었다.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앉아있었다.

《네 방을 하나 꾸렸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윤철은 일어섰다. 그러나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집도 그 집 그대로인데 어디에 방을 꾸렸을가?

상희와 성철이가 윤철이를 그전에 담배자루며 나무판자를 넣어두던 헛간이 있던쪽으로 데려갔다. 윤철은 아까 집으로 들어설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또하나의 방이 거기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방은 좀 작아보이기는 하였지만 썩 깨끗하고 아늑하였다. 파란 뽕끼칠을 한 문을 열고 드어서니 정돈된 방안의 가구들이 한눈에 안겨들었다. 이불장, 책상, 의자, 옷걸이들이 전부 처음보는것이였다.

성철이가 바닥을 짚어보더니 불을 조금 때야겠다고 하며 밖으로 나갔다.

상희는 윤철에게 방이 어떻게고 물었다. 상희는 간절한 빛이 진하게 어린 눈으로 윤철을 지켜보았다. 윤철은 알고싶은것이 더 많았다. 작은 방에 랑쪽으로 창문을 두개씩이나 낸것도 이상했지만 그보다는 이방을 꾸리게 된 사연이 더욱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인차 바닥이 더워졌다. 작은 방이니 불이 잘드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윤철은 물었다.

《이 방은 어떻게 되거나 상희야.》

상희는 어느사이에 바뀌긴 머리빈침이 어떠냐고 윤철에게 대답을 조르다가 곧 정색해졌다.

《어머니다고요. 참, 그때가 언제더라... 응 오빠가 군대에 나간 그 이듬해 겨울이었는데...》

상희는 이렇게 생각을 더듬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

《그때 겨울은 류달리 추웠어요. 얼마 내리지 않은 눈이 미처 녹을 수어도 없이 바람이 세게 불곤 했어요. 뒤울안의 돼지도 글썽 물을 먹고는 내내 북대기속에 틀어박혀있었으니까요. 나도 여느때보다는 내의도 하나 더 입고 양말도 하나 더 신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날이었어요.

모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글썽 어머니가 없는게 아니예요. 부엌에도 없었고 돼지우리에도 없었어요, 옆집에도 가보았어요. 그리고 그날 낮에 책을 빌려간 성모네 집에두 뛰어갔었지요. 참 야단이 아니예요, 아무래두 어머니는 없으니말이에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를 찾아나섰고 나도 성철이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나와 성철이는 솜옷을 입었는데도 어찌나 추웠던지 지금두 생각나요. 우들우들 떨건게말이에요. 우린 어머니를 소리쳐부르며 여기저기로 다녔어요. 우리가 미심결에 마을동구밖으로 가보았는데 글썽 어머니가 거기 서있는것이 아니예요. 참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추워하시면서도 솜옷도 입지 않은채 그냥 배나무아래 서서 한곳을 주시하는게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보고계시는 그곳에서는 눈보라가 사납게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훑날리는 눈보라가 모든것을 사정없이 일쿠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손을 비비며 그냥 서있었지요 뭐.

더 생각할게 있나요. 우린 막 달려갔어요. 성철이가 〈어머니!〉 하고 부르자 어머니는 우리쪽으로 돌아서는데 추위로 하여 입술이 다 퍼렇게 질려있었어요.

난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혹시 실성이라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썼던 목도리를 풀어 어머니를 감싸드리며 물었어요.

〈어머니, 추운데 솜옷도 없이 왜 여기 나와 계시나요?〉

그러나 어머니는 〈됐다, 이젠 집으로 가자.〉 하는것이지요.

영문을 알수가 없었어요. 여하튼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금후에 아버지도 왔구요.

아버지는 대뜸 성을 내셨어요.

〈철부지도 아닌 사람이 그게 뭐요? 그래 어딜 갔됐소?〉

아버지는 화가 나서 담배를 피워물며 대답을 재촉했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녹지 않은 찬 손을 깔고 앉으며 웃었어요.

〈뜨뜻한 방안에 앉아 있자니 윤철이 생각이 났수다. 윤철이가 이밤에도 추운 밖에서 초소근무를 서느라구 수고를 하겠는데 내 그래서 그애가 얼마나 춥겠는지 알자구 밖에 좀 서있어 봤수다.〉

순간 아버지는 피우던 담배를 손에 든채 그냥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당신두 참...〉

우린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됐지요 뭐.

오빠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그러더니 어머니는 말했어요.

〈밤이 정말 춥수다. 여보, 윤철이 방을 하나 잘 꾸려놓읍시다. 그애가 제대되어 돌아오면 돌게말이유. 불도 잘 들게 구들을 놓구. 그리구 여름에는 덥지 않게 창문을 량쪽으로 댈시다.

그애를 위해서라문야 뭇인들 못하겠수.〉

아버지는 무달알고 승낙했어요.

그 겨울이 지나간 다음 우린 공사를 벌렸어요.

그리구 이렇게 바람이 잘통하랴구 창문은 둘을 댔지요 뭐.

이 구들도 두번씩이나 고쳐서 댔어요. 첩엔 불이 잘 들지 않아서 뜯어냈구 두번째는 방이 빨리 더워지지 않아서 또 뜯어냈구 두번째는 방이 빨리 더워지지 않아서 또 뜯어냈지요 뭐. 어머니는 이불도 두툼하게 꾸며놓았어요. 오빠가 아무때든 와도 뜨뜻한 방에서 푹 쉴수있게 하려구. 어머니 정말 많은 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이방이 생겨난거예요.》

윤철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윤철은 다시 방바닥을 정히 쓸어만졌다. 후덥게 느껴지는 온기가 윤철의 가슴을 찌릿하게 해주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 그토록 지성을 기울이는 어머니를 난 늘 자랑하곤하였습니다.)

상희와 성철이가 돌아가자 윤철이는 군복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잠자리에 누웠다. 누웠지만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이룰할수 없는 크나큰 그 무엇이 가슴에 짝 차올랐다.

흰한 달빛이 창문으로 흘러들었다. 밤은 그냥 깊어만 갔다.

다음날 아침 세수수건을 들고 트랙에 나선 윤철의 눈에 제일 먼저 뛰인것은 꽃밭이었다. 그전에는 강냉이나 감자같은것을 심던 터밭이었는데 거기에 꽃을 심었던것이다.

윤철은 아직도 피어있는 금잔화를 상쾌한 기분으로 들여다 보았다.

아버지가 한쪽에서 낫을 갈고있다가 윤철이를 보자 물었다.

《잘 잤냐?》

《예, 아버지 잘 잤어요.》

아버지는 솥돌에 불을 추기고 낮날에 손을 대보 더니 다시 일손을 잡았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말했다.

《그 꽃밭이 마음에 드냐?》

《예 정말...》

《이제는 철이 지나서 꽃이 다 졌다. 그게 한창일 때는 정말 볼만했다. 마을사람들이 모두 희한해서 구경을 왔댔다. 우리 집이 아주 신식이라구 말하는 축들두 있었지.》

《정말 그랬겠어요. 여기야 원래 강냉이를 심지 않았나요.》

《그렇다. 상희가 거기다 꽃밭을 만들었다.》

《상희가요?》

《그래. 그게 어느해 봄이던지...》

겨울이 물러가자 해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땅이 시꺼매지고 물렁물렁 해졌지. 봄이라는 바쁜 계절이 닥쳐온것이었다. 네 에미도 그렇구 나돈코뜰새 없이 종일 바빠 돌아쳤다.

그런데 하루는 상희가 한몽큼이나 되는 무엇을 종이에 싸들고 집에 왔구나. 뭐냐 물었더니 꽃씨라는거지. 백일홍, 금잔화, 코스모스, 나팔꽃, 뭐 여러가지였다.

꽃을 키웠다가 네가 오면 기쁘게 해주겠다면서 상희가 극성을 부렸다. 강냉이나 감자는 좀 못심어두 꽃만은 무조건 심어야 한다구하면서 어머니를 들볶았지. 만일 자기 의사를 배반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위협도 하면서 말이다. 네 어머니가 글썽 반대를 할 사람이나? 어머니 상희가 엄마보다두 낫다구 그애를 취했지. 상희는 우쭐해가지구 꽃씨를 뿌렸다. 싹을 튀우구 꽃포기들도 속아내구 김두 매구 물도 주면서... 온 여름 상희의 정신은 거기 가있었다.

꽃농사는 다음해두 그다음해두 계속 됐다. 그래서 이제는 의례히 꽃을 심어야 되는것처럼 되어 버렸구나.

참 상희가 용타. 과수반에서도 그애 칭찬이 자자하지.)

운철은 생각이 깊어졌다.

운철에게 상희는 아직도 고등중학교에 다니며 머리태를 달싸이며 뛰어다니던 소녀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상희가 이제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몸도 마음도 다 자란 상희다. 운철은 그토록 생각깊은 동생을 가지고 있는것이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다.

고향집으로 들어서는 이 오빠에게 커다란 꽃다발을 가슴 가득히 안겨주며 상봉의 기쁨을 나눌그날을 위해 온 여름 긴긴날들을 꽃을 가꾸며 기다려온 상희, 그런데 나는 왜 여직껏 그를 어린애로만 치부해왔을까?

상희가 이제는 어린 소녀가 아니다. 아름다운 꽃을 엮어 고향의 인사를 군복입은 오빠에게 안겨주기 위해 기다리고기다려온 그를 어찌 어린애라고 보랴.

운철은 이번에 상희를 위해 해줄수 있는 일이 뭘겠는지 생각해보았다. 인차 생각되는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 무엇을 꼭 해주리라 마음다졌다.

운철은 그날 책도 읽고 동무들도 만나보았다.

누구나 운철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말을 했다.

《운철이, 자넨 정말 훌륭한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어.》

《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라구. 얼마나 동무를 기다리고있는지 알거나 하나?》

운철은 점점 난처해졌다.

이번에 운철은 군관학교에 가게 될수도 있다고 부모님들께 말해야 한다. 아직은 정확한것이 못되어서 말을 할가말가 망설이고있는 운철이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다고 말을 꺼낸단말인가.

고향은 나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운철에게는 정갈한 방이며 꽃밭이 생각되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머칠이 지났다.

그날 운철은 어머니와 함께 가을한 콩마당질을 하고있었다.

바삭 마른 콩단들을 장대기로 내려치자 그것들은 툭툭툭 소리를 내며 먼지를 피워 올렸다. 콩꼬투리들이 짹짹 벌어지며 노란 콩알들이 튀어나왔다. 운철은 흥이 나서 장대기를 휘둘러댔다.

지붕우에 앉은 참새가 짹짹거리고 병아리들을 한무리 거느린 암탉이 콩단주위를 뱅뱅 돌아쳤다.

콩을 털어낸 콩단들은 뽕나무들을 넣어두는 창고로 날라갔다. 그리고는 지붕에서 잘 마른 콩단을 또 하나 끌어내렸다.

어머니는 푹푹 일자리를 내는 운철을 대견하게 지켜보았다.

《어머니, 힘들지요?》

《별소링 다 하는구나. 좀 쉬고 해라.》

《힘들거예요. 나도 언제면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 어머니의 실손을 도와드리게 될가요?》

《원...넌보고 누가 그런 걱정을 하라더냐...》

《아니예요. 우린 농촌지원을 하면서 늘 이야기하곤 했어요. 농사일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라구 말이예요.》

운철은 어머니가 내미는 수건을 받아 목덜미의 땀을 훔쳤다. 그리고는 수건을 걸데가 없나해서 두리를 살폈다. 그러던 운철은 대문안쪽에 매단 딸랭이를 보게 되었다.

팔랭이는 두꺼운 철판을 둥그랗게 말아서 만든 것이었는데 점점이 녹이 쓸어있었다. 보기에는 탐탐치 않았는데 그래도 문이 여닫길 때마다 잘그랑 잘그랑 곧잘 소리를 내었다.

대문의 안쪽 가름대에 매단 종을 유심히 살펴보고 난 윤철은 손을 뻗쳐 그것을 건드려보았다.

《잘그랑-》 여운을 남기며 맑은 소리가 울렸다.

《종이 소리가 잘 나는군요 어머니.》

《그래.》

윤철의 어머니는 사발에 시원한 뎡수를 떠가지고 부엌에서 나오며 대답했다. 어머니는 낮은 나무의자를 꺼내놓고 종이를 깔아주었다. 윤철은 어머니의 곁에 앉았다.

《그 종은 성철이가 어디서 가져다가 매달았다. 저길 보렴, 못이 구부러진채 그냥 있지 않니.》

《그래요? 성철이가 제법이예요. 내가 군대에 나갈 때엔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던 철부지였는데...》

생각나요? 어머니! 성철이가 학습장이라는 글자를 몰라서 내가 나무여필이라고 거짓으로 대주니까 한글자가 남는다고 하면서 성화를 먹이던 일말이예요...》

어머니는 그때 일이 생각나는지 웃음을 지었다.

《생각난다. 생각나구말구. 그런데 그애가 이젠 다 컸구나.》

저종을 매달 때 말이다.

그게 제작된 여름이었던지. 그럴게다.

하루는 성철이가 어디서 보구왔는지 대문에다 종을 매달자구 불쑥 말하더구나.

〈좋은 또 무슨 종이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 말구 공부나 잘해라.〉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었다.

좀 줌춥해지길래 그러는가부다 했지. 그런데 그애가 글씨 창고에 있던 새 자전거다이야를 주고 누구와 종을 바꿔오지 않았겠니.

너무도 기가 막혀 난 할말을 찾지 못했더랬다.

그런데두 그애는 그걸 제손으로 저렇게 박아놓구야 말았다. 그리구서는 한다는 소리가 글씨 〈이 제형님이 문을 척 열기만 해두 난 보지 않구 알아맞힐수 있어. 매 사람마다 문을 열 때 종소리는 다르게 나니까.〉 하지 않겠나.

집에서 형님을 끔찍이두 생각한다는걸 그애두 알았지 뭐냐. 그러니 집에서 자전거다이야를 몰래 내가구서두 배짱이 든든해있었던거란다.

그앤 듣구두 누가 오는지 척척 알아맞힌단다.

팔-랑 하구 소리가 나면 상희가 오는것이구 팔랑-하구 소리나면 내가 오는것이구 또 팔랑팔랑 하면 누가 오구 하여튼 그앤 박사다.

네가 집에 들어올 때두 성철이가 제일 먼저 알아맞혔다.

〈이건 처음 듣는 소리데... 혹시 형님이 아니야?...〉 하더구나.》

윤철은 동생의 가름한 마음이 깃든 종을 다시 눈여겨 보았다. 윤철은 그러고 나서 생각했다.

(나의 부모들은 그리고 동생들은 얼마나 다심한가. 눈물겹도록 정답고 뜨겁게 포옹하고싶도록 살뜰한 나의 고향집, 얼마나 아름다운곳인가.)

땀에 젖은 군복을 입고 고지를 치달아오르면서 자기가 어찌하여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수 있었는지, 몰아치는 비바람속에서 홀로 긴긴밤을 지새우면서도 왜 외롭지 않았는지 윤철은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바로 이런 고향집이 나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었기에 군무생활의 나날을 충성으로 빛내여올수 있었다.)하고 윤철은 생각했다.

정말 보이는것 그 어느것에나 군복입은 아들을 생각하는 부모형제들의 깨끗한 마음이 깃들지 않은 것이란 하나도 없었다. 그 어느것에나 군공을 세우고 고향으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는 고향의 절절한 심정이 뜨겁게 숨배여있었다.

윤철은 말했다.

《어머니, 이제는 저도 제대될 때가 되었습니 다.》

어머니는 그저 듣고만있었다. 윤철은 말을 이었다.

《이번에 와서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동생들도 저를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잘 알고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부모형제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군사복무를 잘하고 앞가슴에 훈장을 번쩍이며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윤철은 자기의 군복주머니에 군관 학교에 가게 될것 같다고 어느 친구에게 써두었던 부치지 못한 편지가 있다는것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자기가 잠든 밤에 군복을 손질하다가 그 편지를 읽어보았다는것도 알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그저 웃고있었다.

《그래,...》

윤철은 갈피를 잡을수가 없어졌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다리는 이고 향으로 돌아올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고향을 떠나 군관으로 복무할것인가.)

아직은 확고한 결심을 내릴수가 없었다.

쉬는날이여서 윤철이는 동생 성철이를 데리고 이웃 마을의 동무들을 만나보고 돌아오고있었다.

벼그루터기들이 병사들마냥 멈춰늘어선 물을뻔 논밭을 지날 때 성철이가 손에 든 회초리로 길옆의 풀잎을 소리나게 내리치며 물었다.

《이제 가면 형은 언제 또 오나?》

《글쎄말이다.》

운철은 성철이가 짚을수 있게 길복판의 고인돌 가운데 돌을 놓아 주며 대답했다. 성철이는 형이 내민 손을 잡고 흘쩍 물을 건너뛰며 말했다.

《나도 군대에 나갈래.》

《그래라. 옳다, 군대에 나가야 하지. 손에 총을 잡고 조국을 지키는것보다 더 영예로운 일이 어디 또 있겠니.》

《나도 다 알아,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씀하군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아버지가 그랬어.》

운철은 군모를 벗어 성철이에게 씌워주었다. 줍겼다.

《아버지는 군대나간 형한테 부끄럽지 않게 공부도 잘하구 일도 잘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셔. 그래야 형이 군사복무를 더 잘하구 떼떈하게 고향으로 돌아올수 있구나.》

《그렇다. 아버지 말씀이 옳다.》

《참 아버지는 표창장까지 받았어. 그때 정말 굉장했어.》

성철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엮어댔다.

《언젠지 가을 분배때엔 관리위원장이저씨가 연설을 했지뭐. 그러구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성철이는 아버지 이름을 동무라는 말을 붙여 부르기가 멋했는지 뒤더수기를 쑥쑥 굽으며 계속했다. 《〈아버지동무를 표창한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하구 표창장을 읽었지뭐. 고성기로 아버지 이름이 광광 나가서 난 막 신바람이 났댔어. 나두 박수를 쳤지뭐.》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표창장을 척 내놓으며 이렇게 말씀했어.

《이제는 운철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됐다.》 하구 말이야.

어머니는 특식을 차렸구 누난 기타를 타면서 노렐 부르구. 그러구 난 ... 까짓거. 난 혼자서 또 박수를 쳤지뭐.》

이야기는 집대문앞에 이르러서야 끝이 났다.

운철은 마음이 든든해졌다.

(아버지는 군관학교에 갈 나의 결심을 지지해줄수도 있을거야. 어머니들보다는 아버지들이 더 원칙적이니까.)하고 운철은 생각했다.

방에 들어서자 누가 꺼내놓았는지 두툽한 편지묵음이 책상우에 놓여있는것이 눈에 띄웠다.

운철이 자신이 째째이 쓴 편지들인데 편지묵음에서 째째한 상회의 손길이 느껴졌다.

운철은 감회도 새로 왔다. 편지의 글줄들은 운철로 하여금 추억의 노를 저어가게 하였다. 운철은 군

사복무의 나날들이 축소되어있는 자서전이라고도 할수 있는 편지묵음을 들고 한장한장 번져나갔다.

《...제가 고향의 바래움을 받으며 렬차에 오르면 것이 어제같은데 벌써 상등병의 군사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나 자신도 믿어지지 않아 남몰래령장을 만져보군합니다.》

며칠전에 진행된 사격에서 <우>를 맞고 상등병의 군사칭호를 수여받은거예요.

그날은 바람이 몹시 물었습니다. 난 가슴이 막 두근거렸습니다.

총을 잡고 화선에 었드리니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학살한 원쑤미제놈들을 기어이 쓸어버리는것이 나의 임무라고 하던 어머니의 말씀이말예요. 나는 어머니의 그 당부를 가슴에 안고 침착하게 목표를 겨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세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저는 사격에서 강한 <우>의 성적을 쟁취하였습니다...》

《...하사의 군사칭호를 수여받은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강행군에서 구대원의 기준을 돌파하고 난 금방 하사의 군사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나는 동지들과 함께 끝내 극복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고향이 나를 지켜보고 조국이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하니 참아낼수 있었습니다. 매일 매 시각 이 군복입은 아들에게 지칠줄 모르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고향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은 한없이 설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향에서도 알고계시겠지요. 우리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우러러모시였습니다.

이 영광, 이 기쁨을 저 혼자서는 도저히 묵새길수가 없어 펜을 들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 이보다 더 큰 영예가 세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듣고있습니다. 온 나라에 뿜어넘치는 감격의 환호소리들!

우리 부모들과 정든 고향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려오는듯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잠들수 없는 밤입니다.》

《...오늘 우리 분대장동지가 체대되어 중대를 떠나갔습니다. 그러구 내가 이제는 분대장으로 되었습니다.》

이밤에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루지 못한 병사의 의무를 두고 그리도 안타까와하면서 발길을 떼지 못하던 분대장동지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전 영원히 군복을 벗지 않겠습니다.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손에서 총을 놓지 않으려는 이 아들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편지들은 읽고 또 읽어서 네귀가 닳고 보풀까지 인것도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총전 병사의 임무를 수행하기전에는 혁명의 군복을 벗을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참된 군인의 심장의 목소리가 력력히 깃들어있었다.

(그렇다. 달리 살수는 없다. 내 영원히 조국의 병사로, 군인으로 살리라!)

운철의 결심은 확고해졌다. 그러나 너무나도 기다리고기다려온 고향의 부모형제들앞에서 그 말을 아직은 쉽게 꺼낼수가 없었다.

그렇게 날이 흘러 휴가기간도 끝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두 모여앉았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들도 말이 없었다. 방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이윽해서야 어머니가 침묵을 깨뜨렸다.

《뭐 길게 생각할것 없다. 벌써 아버지와는 다 토론이 됐다. 군관학교에 가도록 해라. 운철아, 내 결심이 옳은거다.…」

뜻밖의 말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저는 이번 휴가기간에 이 아들을 기다린 고향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그 말을 꺼낼수가 없었는데 벌써 다 알고계셨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치지도원이 제 의향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 가겠다고 대답했겠지?》

아버지의 눈빛은 절절하였다. 동생들은 바스락소리도 내지 않고 운철의 입만 지켜보고있었다.

《…》

《대답해봐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생각해보겠다고…》

《뭐라구? 가겠다고 했어야지. 네가 이번에 부모형제들의 마음을 알았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그래 어떤거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준절하였다.

《우릴 생각해서 그런다는것은 잘 안다. 그러나 생각 좀 해봐라.》

우리가 바라는것이 뭐구 기다리는것이 도대체 뭐겠니?…

네가 더럽혀진 이름을 가지고 몸성히 왔다문야 그걸 누가 좋다겠니. 고향은 그런 너에게 침을 뱉을 거다.

뭐라드라 그런걸 뉘이라고 하던지… 여하튼 그런

것을 우린 더 기다리는거다.》

그렇다.

고향은 기다린다. 자기의 아들들이 조국이라는 크나큰 고향을 위해 용감히 싸우다 영영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고향은 기다릴것이다. 병사의 방을 꾸려놓고 꽃밭을 가꾸며 딸랭이 소리가 울릴 그날을 고향은 기다릴것이다.

조국앞에 뿔뿔이 살던 부모형제들에게 부끄럼없는것이고 기다리는 고향으로 가는것이다.

운철은 뜨거운것을 삼켰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다 알겠습니다. 저를 용서 해주십시오.》

《알았으면 됐다.》

《아버지, 어머니, 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로서 영원히 군복을 벗지 않겠습니다. 손에서 총을 놓지 않겠습니다.》

운철은 존경어린 눈길로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떠나는 운철을 배래우며 모두가 따라나섰다. 상회와 성철이는 배낭을 맞들고 앞서갔다. 아버지는 뒤에서, 어머니는 운철의 곁에서 곁었다.

몇년전 고향을 떠나던 그때처럼 절절한 당부가 운철의 귀가에 울렸다.

《군사복무를 잘해라.》

《기다리겠다.》

이렇게 병사는 또다시 고향을 떠나가는것이다. 그리고 고향은 또다시 언제까지라도 아들을 기다릴것이다.

새로 꾸린 방이며 꽃밭, 딸랭이며 아버지의 표창장이 더욱 강렬한 지향을 병사의 가슴속에 부어넣어주었다. 병사는 사연많은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고향의 모습과 함께 언제나 가슴속 소중한곳에 간직하고있으리라.

과연 이 땅의 고향들은 얼마나 크나큰 기대를 안고 아들들을 기다리고있는것인가.

운철은 힘있게 걸음을 내짚었다. 끝없는 자각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뇌리를 파고드는것은 고향의 기다림이다.

《고향이 기다린다!》

바로 고향의 이 기다림이 운철을 더욱 성장시킬것이며 원썬들의 불구멍앞에도 주저없이 한몸을 내밀수 있게 하리라!

운철은 떠나간다.

아! 이 땅의 병사들은 얼마나 크나큰 고향을 가슴에 안고사는것인가!

너의 그늘아래 땀들이며 섰노라니 외 1편

리정택

흐르는 맑은 물에 시원히 머리감고
실실이 늘어진 아지 물결우에 드리우고
여름날 대동강유보도에 그늘 던지고 선
버드나무아

아 너를 보니
언뜻 스치는 생각이 있어라
어려운 시련의 그 나날에 이어
저 나무같이 나도 자라온것처럼...

너의 그늘아래 땀들이며 섰노라니
너를 두고 하게 되는 내 생각 있어라
심고 가꾸어준 그 손길이 고마워
무더운 여름날 그늘지우며 할일을 찾듯

하기에 저 나무처럼 온몸다해
이 땅에 깊은 뿌리 내리우고
저 나무같이 언제나
보답할 한생각 아지치며 살았는가

나는 몰랐네

비라도 봄비는 아름다운 서정
꿈속같은 하늘에서 조용히 내리면
땅우엔 새싹이 방긋이 웃음짓고
나무아지엔 새움이 빠끔히 눈뜨네

달도 비온 뒤에 솟는 달은
말끔히 세수한 너인의 고운 얼굴
바라보면 가슴은 환히 트이고
희망은 달빛타고 줄줄이 흐르네

아, 비는 좋아 봄비는 더 좋아
내 노래 불렀어도
아 달이 좋아 비온뒤 달은 더 좋아
내 시에 자주 담았어도

나는 몰랐네
남의 나라 땅에서 내가 맞은 봄비
낮선 동산에서 떠오르는 달은
그리도 가슴 사무치게
고향생각, 조국생각 불러내는줄

오, 그렇구나 그대
사랑하는 내 조국을 떠나선
내리는 봄비의 정다움
떠오르는 달의 밝은 서정도
내 가슴엔 깃들지 못하는구나
오직 간절한 그리움 이 하나뿐인것을...

《인민군지휘성원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소유하며 모든 군인들이 높은 계급적자각과 열렬한 애국심을 가지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일

실화문학

인민을 위해 생을 바친 참된 정치일군

김동호

자서전

○○○군부대의 정치일군이었던 오화용동무의 자서전은 불과 너줄 안팎이었다.

1946년 2월 24일에 함경북도 은덕군 태양리에서 출생, 17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대에 입대, 무선분대장의 직무를 맡아 수행하다 단기정치군관 학교에 추천됨, 졸업후 중대정치지도원을 거쳐 구분대 정치지도원으로 사업, 김일성정치대학졸업후 체계적으로 군부대 정치일군으로 사업.

그의 가정

사람들은 흔히 매우 다정한 부부를 가리켜 한쌍의 원앙새같다고 한다.

오화용의 부부를 두고 그 어데 가든 마을사람들은 《원앙새부부》라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곤 했다.

중대정치지도원으로 있던 오화용은 서른살이 잡혀 중학교교원인 박금순을 안해로 맞아들였다. 결혼식날밤 화용은 금순이 보고 이렇게 말했다.

《결혼식기념으로 무엇을 남겼으면 좋겠소?》

《뜨락에 나무를 심자요.》

급살하게 생긴 금순이는 쌍까풀진 까만 두눈에 미소를 담고 살짝 불우물을 지으며 말했다.

《찬성이요. 그런데 무슨 나무를 심으면 좋겠소?》

사랑하는 사람의 그 물음에 금순은 복숭아나무를 두그루 심자고 했다.

화용은 복숭아나무보다 키가 크고 보기도 좋은 배나무를 심을 생각을 해보았으나 자기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안해의 의사를 존중해서 복숭아나무를 심었다.

결혼한 이듬해에 만딸이 태어났을 때에도 금순이가 딸애의 이름을 은정이라고 지었다.

두달만에 훈련길에서 돌아온 화용은 집에 들어서자바람으로 딸애를 뉘큼 들어올리며

《은정아, 네 이름을 정말 잘 지었구나.》 하고 만족해하였다.

그후 련이어 딸 셋이 태어났을 때에는 부부가 토론해서 은실, 은희, 순희라고 이름을 지었다.

딸애들만 넷이나 본 금순은 아들을 낳지 못한 죄책감이 늘 가슴에 서려있었지만 화용은 언제 한번 아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딸도 잘 키우면 아들보다 더 나을수 있소.》

이렇게 금순이를 위안하며 따뜻이 그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이애들을 훌륭히 키워 모두 군대에 내보내자구. 아버지와 딸 넷이 조국보위초소에 함께 서있게 하잔말이요.》

화용은 결혼한지 20여년이 가까와왔지만 언제한번 집에 들어와서 큰소리 쳐본 일이 없었고 안해를 노엽힌 일은 더더욱 없었다. 금순이 역시 것처럼 잘 리해해주는 남편을 온갖 성의를 다해 공대하였다.

단지 한번 안해앞에서 성을 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하루밤 출장길에서 돌아온 화용이가 몹시 열을 내며 신음소리를 하자 이튿날 썰렁에 부대에 나가 진상을 이야기하고 집에서 쉬도록 동정을 바란 일때문이었다.

《내가 몸이 좀 아프다구 집에 드러누워있으면 되겠소! 난 인민군대의 지휘관이구 정치일군이란말이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군관들에게 직업적인 혁명가라는 높은 신임을 베풀어주시었소. 그러니 당신은 직업적인 혁명가의 안해란말이요. 그런데 내가 집에 드러누워있을걸 바라면 되겠소. 설사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야 군인들속에 서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처럼 화용은 집에서 앓은 일도 없었고 더더욱 다문 하루라도 집에서 편안히 휴식해본 일도 없었다.

실로 오화용동무는 그 어떤 폭우나 설한풍에도 끄떡없는 산정의 소나무처럼 억세었고 그의 안해 박금순동무 역시 야산에 피어난 한떨기의 들꽃처럼 늘 그를 반겨주었다.

네 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힘을 주고 집안에 노상 웃음이 피어나게 하는 꽃송이들이었다.

동지들이 들려준 이야기

군부대 정치일군 상좌 장문걸

내가 인민군대에 입대해서 신병훈련을 마치고 구 분대에 배치되어 가는 날 분대장 오화용동무가 나를 포함한 세 동무를 자기 분대에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사회에서 일하다가 21살에 입대했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입대한 김현철이라는 동무는 18살이 났더랬습니다.

3명의 신대원들을 데리고 자그마한 야산을 넘어서던 분대장동문 좀 쉬고 가자면서 이제부터 호주머니 검사할 하겠다던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 호주머니에 휴지밖에 없었지만 현철의 호주머니에선 라이타와 피우던 러과담배 한갑이 나왔습니다.

그걸 본 오화용분대장은 현철이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문걸동문 동무보다 세살이나 우인데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나왔지만 아직 담배를 안피우지 않소. 그런데 동문... 스무살전에 담배를 피우면 사고가 든해지구 기억력도 상실되구 호흡기도 나빠져. 앞으로 동문 무전수로 활동해야 하니만큼 머리가 좋아야 하지 않겠소...이 라이타와 담배는 회수하겠소.》

그날부터 화용동무의 분대에는 담배를 피우는 전사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화용동무는 신입대원들이 분대에 소속된 이틀날부터 훈련강도를 높이였고 규정과 교범대로 생활하면서 원칙적인 요구를 강하게 들이댔습니다. 그리하여 불과 1년 사이에 모든 분대원들을 1급 무전수로 키웠고 분대는 모범분대로 되었습니다.

체육과 씨클에서도 언제나 모범이었습니다.

화용동문 매우 승벽이 강한 분대장이었습니다.

체육이나 씨클에서뿐만아니라 무슨 일이든 자기 분대가 다른 분대에 뒤지면 그날밤부터 잠을 자지 않고 분대원들을 훈련시켜 끝내 이기고야 마음놓는 그런 성미였습니다.

내가 분대에 온지 2년째되는 어느날이었습니다.

나와 한날한시에 입대한 세 동무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무엇때문에 분대장이 찾는가고 서로 눈치를 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분대장동문 2년전에 회수한 현철동무의 라이타와 물주리담배를 도로 현철이한테 내맡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무살이 지났으니 인젠 담배를 피우라구. 동무들은 앞으로 모두 군관이 되라구!》

그대까지도 우리는 분대장이 갑작스레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고있었습니다.

그날밤에 분대장동문 정치군관학교로 떠나갔습니다. 학교에 갔어도 오화용동문 여전히 분대장의 자세에서 한달이 멀다하게 때 분대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오곤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곤했습니다.

훌륭한 병사로 자라날것을 바란다는 분대장의 기대대로 현철이를 비롯한 분대원들모두가 군관이 되어 하나같이 자기초소를 굳건히 지키고있습니다.

군부대 정치일군 대좌 김명을

오화용동무하고 군관학교에도 같이 다녔고 군부대 정치부에서도 같이 생활했습니다. 내가 부부장으로 있을 때 화용동무가 책임지도원을 했지만 이 동무처럼 사업욕이 강하고 열정적인 동무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화용동문 언제 한번 말은 임무를 앞당겨 수행하지 못한 때가 없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것을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동무였습니다.

산하 군부대에 지도사업을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11경하류막장에서 지하수가 터져 전사들이 물속에 잠긴다는 통보를 받자마자 통나무를 메고 앞장서 갭에 뛰어들어가 물구멍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갭속에서 끼니를 넘기며 이틀간 전투를 벌려 전사들을 모두 구원했습니다.

부대의 한 전사가 심히 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해에게 쓰러던 록용주사를 맞도록 하고 닭곰을 해다가 직접 먹여준 일도 있습니다.

한부서에서 일하던 김시호동무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산비둘기가 특효약이라고 하여 감감한 밤중에 바줄을 메고 아아한 칼벼랑을 뚫아가며 20여마리의 산비둘기를 잡느라고 심여일밤을 이어댄 뜨거운 동무입니다.

설밀에 제가 식중독에 걸렸을 때에도 오금을 치는 눈길을 헤치고 덕원온실에 가서 도마도를 한배낭이나 가져다주어 그걸 먹고 일어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행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았습니다.

군부대 정치일군 상좌 우상욱

제가 군부대 정치부에 있을 때 오화용동무가 정치군관학교에 추천되었습니다.

그때 올라온 자료도 그렇고 화용동무와 같이 이해보면 그에게 특징적인것은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을 기쁨으로 자랑으로 여기는 동무입니다.

지난해 여름에 있는 한가지 실례만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일관을 서고왔는데 성북리농장에서 왔다는 중년나이의 한 아주머니가 큼직한 보따리를 들

고 부대에 찾아와서 이런 사연을 말해주었습니다.

일곱살에 난 딸애를 군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밤중에 몰래 병원에서 뛰쳐나와 집으로 가다가 길을 몰라 길가에서 목놓아 울며 헤매는것을 웬 군관이 집어까지 업어다주었다는것이였습니다.

《글쎄 십리도 넘는 길을 아이보고 집을 물으면서 밤새 이집저집 헤매다가 자정이 넘어서야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녁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어데 계신가고 물어도 대주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집을 나섰습니다. 부대에 가서 할일이 있다는겁니다. 떠나보내고 꼼꼼히 생각해 보니 여기 부대에 제신분이라고 짚어저 이렇게 찾아왔는데 꼭 찾아주십시오.》

아주머니는 그의 얼굴 생김새며 체구와 목소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이 소행을 놓고 지휘부에서 토론하던 끝에 오화용 동무일수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어 겨우 주인공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무슨 큰일이라구... 내 눈에 띄었으니 내가 나섰을뿐이지 다른 사람도 그런 일에 맞다들리면 웅당 몸을 적실겁니다.》

오화용동무는 이렇게 말하며 좀처럼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로 오화용동무는 남을 위해서라면 심장마저 서슴없이 바칠 훌륭한 동무입니다.

장렬한 최후

희뽁히 밝아오는 새벽빛을 밟으며 상좌령장을 단 한 군관이 바삐 걸어가고있었다. 그가 바로 오화용 동무였다.

그의 눈빛은 청신한 새벽빛에 어울리어 더욱 빛났고 가슴은 이름할수 없는 걱정으로 마냥 설레이었다.

조선인민군창건 60돐을 성대히 기념하고난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감격이 그대로 가슴에 한가득 차있은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 대원수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공화국 원수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진행한 성대한 열병식장이 잠시도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 얼마나 강대한 우리의 무장력인가.

아무리 오만무례한 적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군대, 이런 인민은 절대로 이길수 없는것이다.

화용은 자기를 인민군정치일군으로 키워준 당에 무한한 감사를 울리며 인민군정치일군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느끼였다.

(부대를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으로 신념화 된

일심단결의 강철같은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리자.)

이런 생각으로 산하 구분대들을 돌아보려고 어둡셀녁에 사무실을 나섰던것이다.

소대에 이르기까지 군인들의 생활정형을 일일이 료해하고난 화용은 후방부가 위치라고있는 역방향으로 향했다. 동녘썩언저리가 불그레 물들자 별로나가는 농장원들이 여기저기 보였고 노래를 부르며 줄지어 학교로 가는 어린이들이 시야에 비끼였다.

어느덧 문수리를 지나 신하리의 초입에 들어섰을때였다.

앞에 소고삐 한기장만한 개울이 나졌다. 어림짐작에도 물은 그리 깊어보이지 않았다. 기껏해서 오금을 칠 정도였다.

그런데 개울가에서 대어섯살에 났을직한 총각애가 여라문살때보이는 처녀해보고 칭얼대며 서성거리였다. 업고 건느라는것이였다.

바지가랭이를 무릎까지 걸어올린 화용은 두 아이를 다정히 겨드랑에 끼고 철썩철썩 물을 차며 강을 건넜다. 두 아이를 길가에 내려놓은 그는 그달음으로 개울가에서 망썩같은 돌을 일여넉개 들어다 징검다리를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궁굴어보았다. 끄떡없었다.

(됐어. 인젠 유치원애들도 밭을 적시지 않고 건너다닐수 있게 됐어.)

그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뇌이며 다시 걸음을 옮기였다.

후방부에 도착한 오화용은 후방부책임일군과 함께 군관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웅근 한나절에 걸쳐 군인들의 식생활을 높일데 대한 협의회를 가지였다. 협의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군부대지휘부에서 온 전화를 후방부려단장 홍성환동무가 받았다.

오화용동무의 고향인 함경북도 은덕군 태양리에서 70고령인 어머니가 기차로 집을 떠난지 사흘만인 오늘 아침에 아들집에 도착했다는것이였다.

어머니가 오셨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리려고 사무실에 찾아가니 후방부에 나갔다고 해서 전화를 건다며 아침식사도 하지 않았다는것을 아신 어머니는 아들이 들어와서 같이 밥상에 마주앉기전에는 자기도 아침밥을 먹지 않겠노라며 기다리고있다는 절절한 이야기를 전해왔다.

협의회가 끝나기바쁘게 성환은 전화받은 사연을 급히 전하며 여기 일은 걱정말고 어서 집에 들어가보라고 권했다.

《하긴 가봐야지. 어머니가 금년에 일흔두살 나시는데 생일 70돐때도 공사장에 나가있다고보니 가보지 못했소. 10년전에 고향쪽으로 출장갔던 길에 집에 얼핏 들러서 어머니를 찾아뵈은 후로는 오늘까지 만나보지 못했소. 솔직히 말해서 난 만아들구실도 못하는 불효막심한 자식이요. 집에 올라가서 어

머니보고 나하구 영영 같이 있자구 하겠소. 이제 어머니가 앉으시면 몇해나 더 앉겠소. 돌아가신 다음에 제상에 황소를 잡아올리기보다 생전에 더운물 한그릇 떠올리는것이 더 낫다는 말이 있지 않소.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있어야 하다못해 더운물 한그릇이라도 집사람이 따끈히 대접해올릴게 아니요.》

가슴을 치는 화용의 그 말에 성환동무는 나래를 달아 말했다.

《생각을 잘했습니다.》

후방부책임일군은 화용에게 자기차를 타고 가라고 일켰다.

《휘발유가 긴장한데 편제도 없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니... 그 휘발유면 화물자동차에다 군인들의 후방물자라도 한차 싣고 가겠소.》

그가 이렇게 우기는바람에 성환은 화물자동차 한대를 내어 후방물자를 싣게 하였다.

후방부에서 려단지휘부와 전사들이 생활하고있는 대대병실까지는 50여리나 되었다. 그런만큼 어머니를 빨리 만나게 하자면 걸어보낼수 없었던것이다.

후방물자를 만재한 화물자동차를 지휘부가 위치하고있는 대대로 올라가도록 조직한 성환은 화용이 보고 어서 운전칸에 올라타라고 일켰다.

화용이 승강대에 한쪽 발을 올려놓았을 때였다.

《불이야!》 하는 소리가 퇴성처럼 터졌다. 이어 《불이야- 불이야-》 하고 고래고래 웨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귀전에 날아왔다.

화용은 화물차에 오르다말고 소리나는쪽으로 돌아섰다.

역전앞 3층짜리 살림집꼭대기에서 삼단같은 불길이 하늘로 솟구쳐올랐다.

한순간에 그 광경을 목격한 화용은 급히 비상소집구령을 내렸다.

그를 바래워주려고 뒤따라서던 성환이 그앞을 막아서며 부르짖듯 말했다.

《내가 전사들을 데리고 불을 끄러 가겠으니 부장동문 어서 집으로 올라가십시오. 10년만에 아들집에 찾아오신 어머니가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어서 떠나십시오.》

《우리 인민들의 집에 화재가 났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소. 우리 인민들을 구원해야 할게 아니요. 어머니 모든걸 리해하실거요. 빨리 불을 끄기 위한 전투를 벌립시다!》

그 말에 성환은 《폭풍》 신호가 울리자마자 뛰쳐나온 대오앞에 나섰다.

《경비소대는 초상화를 보위할것, 운수소대는 생명구조대, 후방부군관들과 공급소전사들은 재산구조대로 활동할것!》

후방부책임일군의 명령이 내리기바쁘게 화용은 《초상화보위대 날따라 앞으로!》 하고 화재위험구역으로 앞장서 달리였다.

롱마의 입김같은 불길과 검은 연기가 점점 기둥을 부리며 하늘을 뒤덮었다.

바깥쪽머 물통이며 젖은 가마니와 갈구리를 든 장정들과 아낙네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어느누구도 불길속으로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아우성만 치고있었다. 그들속에는 세 아이와 운신 못하고있는 늙은 아버지를 집에 두고 직장에 나갔다가 뒤늦게야 달려온 최준범동무와 그의 안해도 어울려있었지만 어쩔바를 몰라했다.

앞을 가려볼수 없는 화염속을 뚫고 3층에 올라온 화용은 뒤따라선 전투원들을 매집에 배치하고 자기는 불이 난 첫집에 뛰어들었다.

벽에 걸려있는 초상화를 정중히 내려 가슴에 안고 다음집, 또 다음집... 이렇게 4세대의 초상화를 모두 내려 가슴에 품어안고 층계를 밟고 내려와 밖의 일정한 장소에 모신 다음 그달음으로 또다시 불길속을 헤치며 3층으로 뛰어올라갔다.

집집을 다 돌아보고난 화용은 초상화를 모두 잘 보유했다는것을 확인하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며 불길이 제일 세찬 다음집에 뛰어들려는 순간 예일곱에 잡혔을 쌍둥이 총각애와 여라문살에 났음직한 소녀애가 복도에 나와 발을 동동 구르며 목놓아 울고있는것을 발견했다.

화용은 쌍둥이를 한꺼번에 좌우 량겨드랑에 끼안은 다음 소녀애를 잔등에 업고 비척거리며 가까스로 마당에 내려섰다.

숨이 차오르며 맥이 진해졌다. 사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며 눈앞이 어질어질해졌다. 목에서 겨불내가 났다. 더는 한발자욱도 옮겨놓을것 같지 못했다.

이때였다.

가까이에 있던 녀의사가 3층 2호집에 운신못하는 늙은이가 집안에 갇혀있을거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화용은 지체없이 돌아서서 또다시 3층으로 뛰어올라갔다.

불길은 더욱더 세차졌다. 불에 탄 서까래가 허물어져내리기 시작했고 기와장이 아래로 쏟아져내리었다.

자칫 발을 잘못 옮겨놓으면 3층에서 공중돌이로 아래에 처박힐수 있었다.

위험은 점점 더 커지는 반면에 의식은 각일각 희미해져갔다.

마지막 힘을 깡그리 모아 3층에 올라온 그는 옷방에서 운신을 못하고있는 70고령의 늙은이를 찾아냈다. 로인은 불길이 허를 길게 내뿜두르며 자기앞에 최후를 선언하고있다는것을 알았지만 운신할수 없는 몸이어서 불이 달린 벽에 기대어앉은채 마

지막 운명을 기다리고있었다.

오화용은 그 로인을 보는 순간 마치도 어머니가 거기에 앉아있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비척거리던 화용은 늙은이를 보자마자 초인간적 힘으로 와락 그를 부둥켜안았다. 밖에까지 무사히 내려온 그는 무슨 힘에 떠받들리어 로인을 안아내 왔는지 모르는듯싶었다.

무수한 별찌들이 눈앞을 스치었다. 숨이 가빠졌고 의식이 혼미해졌다. 귀가 멍멍해졌다.

어데서인가 귀에 익은 성환의 목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초상화도 모두 정중히 보위하구 사람들도 다 구원했소. 그런데 조직부장동무가 왜 보이지 않소?》

화염이 그들을 서로 휘감아안고있어 지척도 분간하기 어려운데다 화용은 그들로부터 퍼그나 멀리 떨어져있었던것이다.

《동무들, 수고했소.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오.》

이렇게 목청을 돋구었으나 좀처럼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는 모든것이 제대로 구원되었다는 기쁜 마음으로 안도의 숨을 《후유-》하고 내쉬며 어머니를 그려했다.

《어머니, 제가 전화를 받고도 늦어지게 된걸 용서하십시오. 이제 올라가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것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빌며 억척같이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늙은이가 석싹한 목소리로 뜨거거리었다.

《집안에서 당원증을 꺼내오지 못했수다. 옷방에 있는 함통안에 넣어두었수다.》

순간 화용의 눈앞에는 로당원의 붉은 당원증이 방불히 떠올랐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져있는 붉은 당원증.

비단 이름은 부모들이 지어주었지만 당원증은 우리 당이 안겨준 고귀한 정치적생명의 유일한 징표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져있고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이 담겨져있는 붉은 당원증을 불에 태워버린다면 저 로인은 육체만 남아있는 죽은 목숨이나 갈울것이 아닌가.

당원증을 구원해내는 길, 이것은 한 인간에게 정치적생명을 이어주는 가장 보람있는 위업이기도 하다.

설사 함정같은 저 무서운 불길속에 뛰어들었다가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붉은 당원증을 구원해내야 한다.

이것이 로동당시대의 당원의 본분이 아니겠는가.

화용은 불사신같이 일어났다.

한걸음한걸음 비척거리며 층계를 지리밧고 저벽 저벽 올라가던 그는 비호같이 날렵하게 또다시 불길속에 뛰어들었다.

쓰러졌다간 다시 일어서고 일어섰다간 또다시 어푸러지군했으나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끝내 당원증을 찾아냈다.

당원증을 품에 찔러넣고 돌아서려는 순간 불에 타버린 보짱이 무너져내리었고 기와장이 포탄처럼 내리쬘지었다.

후방부려단장 홍성환동무와 군관, 전사들이 그를 찾아 3층에 뛰어올라왔다.

당원증을 꼭 품어안은 오화용동무가 불길속에 쓰러진채 마지막 숨을 내뿜고있었다.

전투원들이 와락 달려들어 그를 업고 병원에 뛰여갔다.

침대우에서 가까스로 눈을 뜬 오화용동무는 빙울타리쳐 서있는 전투원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동무들, 수고했소. 다친 동무는 없습니까. 당원증은 로인한테 전해주었습니까? ...왜 눈물을 흘립니까. 나는 죽지 않습니다. 모든것이 무사히 구원되었다니 정말 기쁩니다. 후방부려단장동무, 나를 대신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잘 이야기해주시오. 이 아들은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군인으로 할수 있는 것 다 했다고...》

어머니가 남긴 말

어머니는 아들의 령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어머니가 왔다. 네가 그렇게도 보고싶어 내가 왔다. 어서 눈을 뜨거라. 이런 너를 보자고 내 마음이 가리켰구나. 아들아, 장하다! 너는 숨지지 않았구나. 네 숨결을 타고져 세 아이가 살아 숨쉬고있지 않느냐. 저 아이들이 천만으로 불어나 너에게 영원한 생을 부어넣어줄거다.》

영원한 생

군부대정치위원 석원석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오화용동무는 우리 당이 낳은 참된 정치일군이었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인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원수님의 훌륭한 전사였습니다.》

오화용동무는 비록 우리의 결을 떠났으나 그가 남긴 고귀한 삶은 우리 인민과 더불어 우리 병사들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고동치며 영생할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슬하에는 바로 이런 전사들이 있어 인민의 군대라는 이름이 별처럼 빛나고있다.

군대명절

김대성

군인건설자들속에 들어가 현실체험을 하다가 오래간만에 집으로 돌아오니 인민학교 1학년생인 딸애가 반기며 달려나와 불쑥 나에게 편지를 한장 주면서 줄라댔다.

《아버지, 이 편진 내가 쓴건데 봐주세요.》

옛그제 책가방을 댄 딸애가 벌써 제손으로 편지를 썼다니 대견하기 그지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누구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 어런게 편지를 썼을까?

궁금한 생각에 호기심도 바짝 동해서 편지봉투를 살피보니 주먹같은 글자로 쓴 받을 사람의 주소가 한눈에 안겨왔다.

《인민군대아저씨들에게!》

철부지 딸애가 우리 글 배워서 처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런것이니 그저 기특하다 하기엔 보다 더 숭엄한것이 있지 않는가.

나는 그 어떤 귀중하고도 신성한것을 대하듯이 조심스레 속지를 뽑아들었다.

《오늘도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고있는 인민군대아저씨들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군대명절을 맞이하는 인민군대아저씨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한자두자 정성을 담아서 꼭꼭 박아쓴 글발들을 읽어내려가노라니 작년에 어느 한 인민군부대의 정치일군과 나는 이야기가 문득 생각나는것이였다. 그때 그 구분대에 나가서 현실체험을 하고있던 나는 그 일군의 책상앞에 편지더미가 그전보다 몇배나 더 커진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랬더니 부대정치일군은 빙그레 미소하며 의미심장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올해 인민군창건기념일이야 류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저 그 말을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맞는 명절이라는 의미로 들었었다. 그런데 오늘 딸애가 쓴 축하편지를 읽으면서 그것만이 아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듯싶다.

해마다 이맘때엔 의례히 맞이하군하는 인민군창건기념일이 올해따라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경사스러워 철부지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명절분위기에 휩싸인것은 무엇때문이란 말인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보위하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왔으며 당과 혁명 앞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영웅적조선인민군은 눈보라 만리, 불바다 만리길을 헤쳐 걸음걸음을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으며 참으로 머나먼 길을 걸어왔다.

1932년 4월 25일.

안도의 깊은 수림속에서 조선인민의 첫 혁명무력이 자기의 창건을 엄숙히 선포할 때 마침 움터오른 봄싹들은 지금 돌기돌기의 년륜을 그린 거목으로 자랐으리라.

반세기가 넘는 것처럼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에 와서도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변함없이 높이 우러러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인민군창건 60돐을 성대하게 기념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이래 우리 인민군대는 지난해 제국주의 자들과의 정치군사적대결에서 하나의 대전을 치른 것과 같은 거대한 승리를 이룩한 궁지안고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돐을 빛나게 장식하였으니 이런 경사가 어디에 또 있으랴.

더우기 올해 4월 25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고 인민군대를 원호하는 기풍이 날로 높아지는속에서 맞이하는 군대명절이여서 각별히 의의가 깊은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손길따라 민족의 존엄과 조국의 안녕을 지켜낸 조선인민군은 앞으로도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반드시 이룩하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금성철벽으로 지킬것이다.

벽장안에 고이 간수해두었던 물맑은 해병복을 꺼내입은 나는 딸애의 손목을 잡고서 집을 나섰다.

봄이다! 온갖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는 4월의 봄이다. 경사스러운 명절들이 겹쳐진 올해의 봄은 류달리 따사롭다. 정이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완연해진 봄빛과 함께 온 나라 방방곡곡에 차넘치는 명절분위기는 4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전성기를 맞이한

대화원의 꽃향기인양 더 질게만 풍겨난다.

행복의 꽃물결이 출렁이는 거리엔 또다시 대형축판들이 나붙고 람홍색공화국기가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봄바람을 안고 춤추듯이 나뭇긴다. 군복단장을 위엄있게 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장병들은 못사람들의 선망어린 눈길에 높이 떠받들리운다.

준엄한 나날에 조국을 지켜 뿜는 피를 바치길 주저하지 않았기에 만사람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영예군인들을 위하여 상점들은 특별봉사로 흥성거린다. 청춘시절에 병사로 복무했음을 더없는 긍지로 간직하고있는 내 가슴도 터질듯 긍지로 부풀어오른다.

오! 산갈은 파도를 뚫고 장쾌하게 내달리는 어뢰정의 갑판우에서 목숨보다 귀중한것이 조국임을 알게 된 어제날의 전우들아! 지금은 모두들 어디에 가있는가? 몸을 둔곳은 서로 달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영원토록 떠나올수 없는 조국보위초소에 오늘도 함께 있나니 언제든지 당이 부르면 되돌아가야 할 그 시절을 추억하며 축배를 들자. 우리들의 명절, 군대명절이 왔다.

인민군대아저씨들을 축하하여 정성담아 쓴 편지를 부치려고 우편통을 찾아 달려가는 딸애의 모습은 이리 팔랑 저리 팔랑 춤추며 날아가는 꽃나비인양 재롱스럽다. 필경 지금 이 시각 저애의 가슴속엔 어서 커서 아버지처럼 조국의 바다를 지켜갈 꿈이 싹트고있으리라. 어뢰정을 몰아 망망대해를 주름잡는 처녀해병의 용감한 그 모습을 나는 벌써 행복하게도 그려보고있는것이다.

뜻깊은 이날을 맞이하여 군대에 보낼 위문품을 준비하고 축하편지를 쓰는 그 많은 사람들속엔 고이 기른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부모들이 있으리라. 나처럼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제대병사들도 있으리라. 나의 딸애처럼 미래의 병사로 자라날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도 있으리라.

군대명절이자 인민의 명절이어서 누구나 환희에 넘친 내 조국이어! 군대와 인민이 따로없이 모두다 어깨걸고 성벽처럼 일떠서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을 지키고 우리 제도를 지키기에 하늘이 무너진대도 땅이 갈라진대도 우리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인것이다.

등대불

한 호

반갑다 얼싸안는 손길처럼
물결은 밀려와 배전을 그려안고
설레는 마음 앞서닿는 조국의 기슭엔
마중나온 눈빛인가 등대불 등대불

대양만리 풍랑을 헤쳐
돌아오는 이 아들이 대견해
그윽한 미소를 보내는가
부르는듯 찾는듯 반가워라 등대불

고향의 바다가 하얀 백사장
어린 시절 동무들과 미역감다가
뜨거운 모래불에 뒹굴며
해지는줄 모르던 그런 저녁이면
도래굽이에서부터 나를 부르며 나오시던
어머니 그 정깊은 눈빛이 어려오누나

어려와라
다박술 우겨진 언덕우에서
떠나갈 때 바래주던 동생들
이밤도 기다려 잠 못드는 다심한 그 눈빛들이
정다운 그 얼굴들이,

출항을 앞두고 잠시 만나도
잘 다녀오라고
웃으며 손 저어주던 이웃들
내 사는 거리의 그 밝은 창문빛들을

다 합쳐안고 어서오라 부르는가

내 잠시 조국을 떠나도
사무쳤던 그리움에 마음 앞서 달려온 길
이국의 번쩍이는 거리, 변화한 기슭은 많아도
내 삶의 닳을 내리고 사는 품
조국의 저 품밖에 없나니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
조국은 언제나 이 심장과 함께 있어
대양만리 파도를 헤쳐갈 때도
이국의 기슭에 잠시 머무를 때도
항시 안고살던 나의 조국

헤쳐온길 풍랑 사나웠어도
우리 순간도 두려움 몰랐나니
무역제일주의의 크나큰 믿음으로
위훈의 향로를 펼쳐준 고마운 품이
밤이나 낮이나 저렇듯 지켜주기에

아, 이 세상 바다 한끝에 가도
나를 불러 꺼지지 않을 등대불이어
조국의 정다운 눈빛처럼
돌아오는 아들들을 기다려
이밤도 조국은 잠들지 않고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는구나

금야벌의 기수

서진명

나는 찾아가네

울렁이는 마음 안고 나는 찾아가네
처음가도 낯설지 않은 길
아직은 한번도 만난적 없어도
구면처럼 생각되는 주인공 찾아

결음보다 마음이 앞서가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농촌선동원의 모범으로 내세워주신
조명숙동무를 찾아

아기를 잠재운 베개머리에서
남달리 책을 많이 본 박식가
이랑을 타도 맨 앞장에서 타며
남달리 바빠 산 정열가

발머리의 설참
분조원들의 가슴 울려준 그 목소리

물कु는 여름철
풀단을 저나르던 그 숨결소리
온 나라가 다 듣게 해주고 싶어

평양에 회의 왔다가도
배낭 가득 삽날을 사가지고 오고
풀더미를 쌓아올려도
눈에 띄게 높이 쌓아올리며
레사로온 나날에 그가 한 그 모든 일
만사람이 다 알게 해주고 싶어

꽃향기에 이끌린 사람처럼
설레는 가슴 진정 못하며
금야군 신성리로 나는 가네
농촌테제 해빛아래 꽃피난 마을
친애하는 그이께서 피워주고 내세워주신
또 한송이 아름다운 꽃을 찾아

그 모습

내 발길 멈춰세운것은
거무스한 그 옥토였네
내 눈길 붙잡는것은
검붉은 장일을 흔드는
대실한 그 강냉이포기였네

눈에 띄게 살찐 발이랑
작황이 좋은 곡식포기들을 보며
나는 생각했네
친애하는 그이께서 사랑하시는 선동원
그는 어떤 동무일까?

금방 김을 매다 나온듯
발머리에서 만난 주인공
조명숙동무는
이 나라 농촌 어디가나 볼수 있는
수수한 보통녀인

허나 그의 땀이 어린
기름기 흐르는 땅을 보며
그의 기쁨으로 설레는

탐스런 곡식포기들을 보며
이 가슴 차츰 후더워졌네

몇마디 말을 나누기도전에
정이 가고 마음이 끌리어
터갈리고 장알진 그의 손을 잡고
수고한다고
진심의 인사를 하고싶었네

풍년농사로 친애하는 그이의 뜻 받들려는
가슴속 소원을 땅에 묻고
곡식포기로 수놓아가기에
땅과 그리도 잘 어울리고
곡식과 그리도 잘 어울리는
금야벌의 녀성선동원

뜨거운 눈길로 나는 바라보았네
겉모습은 남다르지 않아도
가슴에 안고 사는 보석같은 그 마음을
땅이 말해주고 곡식이 말해주는
고향벌과 함께 빛나는 그 모습을!

스물네개의 삽

하나
둘...
땅을 가꾸기전에
분조원들의 마음을 먼저 가꾸어준
스물네개의 삽

셋
다섯...
평양에서 안고온 그 진정이
흙을 뜨면 흙에 실리고
거름을 채우면 거름에 어리게 한
스물네개의 삽

화장품이며 놀이감
사고싶은것 많은 매대앞에서도
고향의 포전을 먼저 생각한
그 티없는 마음이 어린
류다른 《평양상품》

보기만해도 가슴이 설렌다네
선동원대회장에 넘치던
그 목소리, 그 결의대로

땅을 더 잘 갈구자는
그 진정이 뜨거워

잡기만해도 새 힘이 솟는다네
분조원모두를
주체농법관철에로 떠밀어주는
그의 손길이 느껴져

하나
둘...
오늘은 금야별사람들
온 나라 농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스물네개의 삽

셋...
다섯 ...
한삽의 흙도 더 뜨고
한삽의 거름도 더 내자고
참된 주인의 심장의 말을
가슴가슴에 불씨로 안겨주는
아, 스물네개의 삽!

밤들판에 넘치는 소리

유정한 밤이라고
개구리도 개굴개굴
쪽너머 흐르는 시내물도
은실금실 달빛을 실고
달과 마주 웃는 밤

조마구 손들이 박수를 치듯
잎새를 맞비비며 일렁이는 별
조용히 들길을 걷는
내 옷섶에 매달리며
벼포기들도 속삭이는듯싶네

밤도 깊은 밤
풀단 이고 지나던 우리 선동원
소담스레 자라는 곡식을 보니
어느결에 피곤을 잊은듯
흰이를 드러내며 웃더라고

논고물도 주절주절
날보고 말하는듯싶네
폭우 쏟아지던 밤
터지려는 논뚝을 막으며
선동원이 한밤을 지낸곳이
바로 여기라고

밤을 모르고 크는 곡식을 찾아
밤을 잇고 찾아나온 날이
한두달이 아닌듯
더기의 강냉이숲도
잎새를 흔들며 나를 찾는가

천만 포기중의 그 한포기
그 한포기의 키가 뒤질세라
별빛아래서 덧거름주던
그밤의 그 사연도 잊지 말라고...

아, 순박한 그 진정에
감동되고 이끌리어
곡식 포기들도 눈물도
고맙다고 끝없이 속삭이는듯

밤들판에 넘치는 그 소리 듣노라니
이밤도 어느 밭머리에서 풀을 베고있을
선동원의 그 얼굴 떠오르고

바람결에 그 숨결소리 실려오는듯싶었네

농촌마을의 이름없던 선동원을
온 나라가 다 알게 내세워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계시는 평양하늘 우러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심장이 뜨겁게 속삭이는 소리가!

《가을에 꼭 다시 오세요!》

내게는 그 말이
인사말로 들리지 않았네
떠나는 나의 손을 잡으며
선동원동무가 한 그 말
-가을에 꼭 다시 오세요!

차는 떠나고
마을은 멀어져도
우리 선동원이 한 그 말은
그냥 귀전에 울려
이 가슴 후덥게 했네

별에 땀과 진정을 묻은
주인의 권리
곡식때문에 웃고 걱정하는
량심의 권리로
누구에게나 하는 그 말

내 눈석이물 흐르는
이른봄철 왔더라도
곡식포기 설레는 이 들길에서처럼

그는 나에게 말하고
나 또한 그 말을 믿었으리니

달리는 차창너머
언듯언듯 스쳐지나는
푸른 들 푸른 언덕너머
-가을에 꼭 다시 오세요!
그 말은 그냥 따라서며 울리고

눈가에는 어려왔네
씻누런 이삭의 바다에
논두렁이 묻히고
언덕이 묻힐
만풍의 가을

그 가을
그 기쁨을 안고
환하게 웃는 우리 선동원
이 땅에 진정을 묻어
우리 당의 기쁨을 무르익히는
참된 주인의 모습이